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내 반(反)성폭력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보고서

2015년 9월 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내
반(反)성폭력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보고서**

보고서 작성일: 2015년 9월 3일
작성자: 파이루, 마카롱, 미야, 윤쓰리

목차

1장. 보고서 설명

1) 작성의 배경 및 취지	2
2) TF 논의과정	3

2장. 반성폭력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에 대한 점검

1) 성폭력사건 처리과정 / 대책위	4
2) 반인권적 행위 내규	22
↳ [참고자료] 현행 내규 전문(2014.06.08. 개정안)	19
3) 반성폭력 공부모임	34
4) 섹슈얼팀	46

3장. 반성폭력적 문화와 인식에 대한 점검 - 문제점을 중심으로

62

4장. 반성폭력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4-1. 개선 방향	67
4-2. 10가지 제안	69

[기타 참고자료]

■ 반성폭력 토크 기록

- 1차 (2015.04.12)	79
- 2차 (2015.04.26)	88

1장. 보고서 설명

1) 작성의 배경 및 취지

2014년 여름, 아수나로 내에서는 반인권적행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나는 사과하고 싶지 않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도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등 2차가해까지 하며,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정했고, 끝내는 징계와 사과를 거부하고 제명당하고 아수나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반인권적 행위와, 잘못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가해,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며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는 아수나로 안에 반성폭력 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제제기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제기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적 문제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반성폭력을 이야기해온 아수나로에서, 이런 수준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4년 10월 11일 전국논의자랑에서 '아수나로 내부 반성폭력 문화와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TF'가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 첫 번째 TF에서는 현재 아수나로의 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하기 위해, 활동가 인터뷰와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현황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3달 남짓한 촉박한 기간과, 세 명에 불과한 작은 팀 규모로 인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15년 겨울 제 16회 총회에서 '회칙개정 및 반성폭력 공부모임 팀 구성'이 제안되었지만 부결되었으며, 다양한 반성폭력 문화/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TF활동을 연장하고, TF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구성된 2차 TF는 다양한 반성폭력 문화/제도들을 고민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두 차례의 반성폭력 토크와 자료조사를 거쳐 이 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TF에서 조사한 현재 아수나로의 반성폭력 제도/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아수나로 전체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역량상의 문제로 인해, 현 제도와 문화 전반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 참고하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폭력적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제안한 내용이 추진된다고 해서 성폭력이 사라지고, 반성폭력 문화가 완성될 수 있냐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수나로 단체 차원에서 반성폭력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써 보고서 내용이 함께 고민되고, 토론되길 기대합니다.

2) TF 논의과정

2015.02.01 팀 오프라인 회의 / 대전 / 카페노리
2015.02.14 팀 오프라인 회의 / 대전 / 카페노리
2015.03.08 팀 오프라인 회의 / 대전 / 카페노리
2015.03.22 팀 온라인회의
2015.04.05 팀 오프라인 회의 / 서울 / 나룸아지트
2015.04.12 반성폭력 토크 1차 / 서울 / 나룸아지트
2015.04.19 팀 오프라인 회의 / 대전 / 카페노리
2015.04.26 반성폭력 토크 2차 / 대전 / 전교조 대전지부
2015.05.09 팀 온라인회의
2015.06.07 팀 오프라인 회의 / 서울 / 나룸아지트
2015.06.13 팀 온라인회의
2015.06.21 팀 온라인회의
2015.06.28 팀 오프라인 회의 / 서울 / 나룸아지트
2015.07.04 ~ 2015.07.05 팀 워크샵 / 수원 / 다산인권센터
2015.07.11 ~ 2015.07.12 팀 워크샵 / 수원 / 다산인권센터
2015.07.20 팀 온라인회의
2015.07.26 팀 오프라인 회의 / 서울 / 전교조 본부
2015.08.02 팀 온라인회의
2015.08.06 팀 온라인회의
2015.08.08 ~ 2015.08.09 팀 워크샵 / 서울 / 전교조 본부, 나룸아지트
2015.08.18 팀 온라인회의
2015.08.22 ~ 2015.08.24 팀 워크샵 / 서울 / 전교조 본부, 나룸아지트
2015.08.28 팀 최종점검 온라인회의

2장. 반성폭력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에 대한 점검

1) 성폭력사건 처리과정 / 대책위

1-1) 현황

성폭력사건 처리과정 아카이빙 (문제제기글 작성 ~ 사건의 종결)
1. 2006년 겨울 사건 (2006.11.28. ~ 2006.12.04)
<p>■ 대책위: 없음</p> <p>■ 문제제기: A 활동회원(서울지부)이 채팅방에서 '최근에 내가 성매수를 했는데 서비스가 별로였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이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됨. 이에 한 활동회원이 끝장도론에 그것을 주제로 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림. (2006.11.28)</p> <p>■ 내부논의(조사): A 활동회원에게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릴 것을 다시 요구,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있을 반성폭력 페미니즘 세미나 때까지 회원으로써 자격과 권리를 일시적 박탈하기로 함.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강제탈퇴를 논의하기로 함. (2006.12.04.)</p> <p>■ 사건 결론: A 활동회원이 사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의결권을 박탈하고 아수나로 카페 내에서 글쓰기 정지 처리함. A 활동회원은 활동을 그만둠. (2006.12.04.)</p>
2. 2007년 겨울(연초) 성폭력사건 (2007.01.25 ~ 2007.03.08.)
<p>■ 대책위: 청인, 공현</p> <p>■ 문제제기: 코이(서울지부) 활동회원의 여성 활동회원에 대한 연애 관계적인 지나친 접근과 불편한 언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그리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른 활동회원들도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2007.01.25)</p> <p>■ 내부논의(조사): 서울지부에서는 논의 후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전달하고, 가해자가 소속된 정당에서 당원들에게 실시하는 성평등 교육 이수 등을 진행할 것을 요청함. 성평등 교육이 집행되지 않을 시에는 다시 한 번 징계를 논의하여 더 강한 제재를 가하기로 함.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서울지부 결정은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통과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기에, 사건에 대한 대책위 등은 따로 만들지 않은 상태.</p> <p>- 사건 해결 진행 도중에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통과됨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위를 만듦. (2007.01.25) 대책위와 가해자가 만나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공유하여 숙지시키고,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함. (2007.01.30)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문과 성평등 교육 이수(가장 기초적 교육) 계획 제출을 요구함.</p> <p>■ 사건 결론: 가해자는 카페에 사과문을 게시했고, 빠른 시일 내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말했으나 (2007.03.08), 이행하지 않은 채 활동을 그만둠.</p>
3. 2007년 겨울(연말) 성폭력사건 (2007.12.18. ~ 2008.03.27)
<p>■ 대책위: 없음</p> <p>■ 문제제기: 길손이(울산지부) 활동회원이 2007년 11월 무렵, 자신이 강연을 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진을 카페에 올림. 참살이(울산지부) 활동회원 등이 "역시 미인은 똑똑하다", "오 여고생"등의 댓글을 달았고, 이를 발견한 이름없음(서울지부) 활동회원이 문제를 제기함. (2007.12.18)</p> <p>■ 내부논의(조사): 아수나로 총회와 전운회를 통해 논의가 마무리되고, 참살이 활동회원에게는 전체 공식 사과 및 사과문을 작성 요청함. 아수나로 각 지부에서의 여성주의나 여성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됨.</p> <p>길손이 활동회원에 대한 성인지적 언어사용 및 지적인 권위주의와 여성주의적 문제제기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권고 + 참살이 활동회원에게 욕설과 성적 대상화 및 남성중심적 언어사용에 대한 사과요구를 결정했으며, (2008.03.03.), 각 지부는 이 사건을 거울로 삼아 여성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부에서 활성화할 것을 권고함. (2008.03.27.)</p> <p>■ 사건 결론: 참살이 활동회원이 카페에 사과문을 게시함. (2008.03.27.)</p>

4. 2008년 가을 성폭력사건 (2008.09.04. ~ 2008.11.17)
<p>■ 대책위: 천아, 호적돌, 밤의마왕, 공현</p> <p>■ 문제제기: 참살이(울산지부) 활동회원이 같은 지부에 소속된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상처를 주는 성차별 발언을 여러 차례 함. 피해자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무시를 당함. 피해자는 이에 전체 차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책위가 구성됨. (2008.09.04)</p> <p>■ 내부논의(조사): 대책위 구성 내규중에서 '지부 사람 1명, 운영모임에서 1명' 이라는 규칙에 따라 부산/울산/경상권 지부에서 가해자의 언어폭력/활동불성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2008.10.30) 2주(11월 17일로부터) 이내에 지적한 내용에 대한 성의있는 사과문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제명하기로 결정. (2008.11.15.)</p> <p>■ 사건 결론: 가해자가 카페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활동을 그만둠. (2008.11.17.)</p>
5. 2008년 가을 언어폭력사건 (2008.10.26~2009.03.29)
<p>■ 대책위: 밤의마왕, 또또, 사랑(강한새)</p> <p>■ 문제제기: '아수나로 안의 욕설, 막말 등의 문제에 관한 끝장토론'에서 스칼리(서울지부) 활동회원의 욕설/막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언어폭력 등의 문제를 더 폭넓게 다룰 수 있게끔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수정하기로 결정함. (2008.10.26.)</p> <p>■ 내부논의(조사): 전체온라인회의에서 가해자의 욕설/막말 사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꾸림. (2008.11.02.) 대책위에서는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가해자는 학원 등의 일정이 바쁘니 사과문 작성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함. (2009.02.10.)</p> <p>■ 사건 결론: 가해자가 카페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활동을 중단함. (2009.03.29.) 한달 반 가량 이후 "다 짜증난다, 일처리들도 꼴통들이다, 난 A 활동회원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는 글을 올렸으나(2009.05.14.) 그러한 글을 올린 맥락이나 관련된 논의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음.</p>
6. 2010년 여름 광주 꽃밭사건(2010.05.20. ~ 2010.12.19?)
<p>■ 대책위: 없음</p> <p>■ 문제제기: C 활동회원(광주지부)이 카페에서 "광주지부엔 꽃이 필요한 것 같아", "남자들이 자신의 발에서 나는 청국장 냄새에 자각 할 수 있게 해야만 해"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타이루(서울지부) 활동회원 등이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2010.05.20.)</p> <p>■ 내부논의(조사): 병가상사(광주지부) 활동회원이 이후 다시 한 번 카페에서 문제제기 글을 올림. (2010.11.23) C 활동회원은 이미 사과한 일이라고 말했으나, 병가상사 활동회원은 '지난 일이라고 덮어두기보다는 이 사건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성에 대한 교육을 폭넓게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지부내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을 제안함.</p> <p>이후 광주지부 회의에서 반성폭력 관련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방식의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병가상사 활동회원이 공부모임에 사용할 책 후보를 몇 가지 선정해오기로 함. (2010.11.28.)</p> <p>■ 사건 결론: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나왔으나, (2010.12.19. 까지) 모임이 잘 잡히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됨.</p>
7. 2011년 봄 성폭력사건(2011.05.07 ~ 2011.08.12)
<p>■ 대책위: 진냥, 검은빛</p> <p>■ 문제제기: 곤양이(서울지부) 활동회원이 여성 신입회원들에게만 성폭력적인 발언을 하며 집적대는 문제가 반복됨. 문제제기를 몇 번 했으나, 곤양이 활동회원의 태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서울지부 회의에서 전체온라인회의의 안건으로 징계를 요청함. (2011.05.07)</p> <p>■ 내부논의(조사): 전온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책위가 꾸려짐. (2011.05.07) 사건 처리 중 대책위와 서울지부 구성원들이 가해자의 징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대책위 구성원이 "가해자가 술 먹어서 그런 거다, 술 안 먹으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발언하는 등 2차가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2011.07.22)</p> <p>대책위에서 3년간 가해자의 아수나로의 온-오프라인 활동 전체에 참여를 금지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하고,</p>

반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및 공개사과를 요구함. 이수나로의 모든 지부가 반(성)폭력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회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함. (2011.08.12)

■ **사건 결론:** 가해자는 교육 이수 및 공개사과를 이행하지 않고 활동을 그만둠.

8. 2011년 겨울 성폭력 사건(2011.12.24 ~ 2012.02.20?)

■ **진상위:** 다영

■ **문제제기:** C 활동회원(서울지부)이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음란사진과 함께 성폭력적인 글을 게시했고, (대략 2011.12.13.) 이에 대해 서울지부에서 이수나로 내에서 대책위를 꾸리기로 전체온라인회의에 제안하기로 함. (2011.12.24.)

■ **내부논의(조사):** 이수나로 내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가해사실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하는 정도의 진상위를 구성함. 추후에 진상 파악 후 진상위는 해체하고 대책위를 꾸릴지 말지 결정하기로 함.

- 가해자가 소속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에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수나로에 함께 비대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비대위는 가해자가 소속되지 않은 단체에도 연대 요청을 했었고 가해자 추방이 목적이었음. 이수나로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문제제기를하기로 결정함. (2012.01.15.)

■ **사건 결론:** 진상위 활동 진행상황을 묻는 글에 다영 활동회원(서울지부)이 사건 개요를 정리해서 2월 중으로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댓글을 단 이후로 기록이 없음.(2012.02.20.) 가해자가 활동을 그만두면서 흐지부지됨.

9. 2012년 봄 성폭력 사건(2012.03.12 ~ 2012.06.20)

■ **진상위:** 수수, 진냥

■ **문제제기:** G 활동회원(광주지부)이 이수나로 내부계시판에 피해호소 글을 올림.(2012.03.12.) G 활동회원이 서울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을 때, Y 활동회원(서울지부)이 찾아와 함께 놀던 중 Y 활동회원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삽입섹스를 시도하는 등 성폭력 가해를 했다고 밝힘.

■ **내부논의(조사):** 진냥(대구지부) 활동회원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피해호소인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었고, 당시 피해호소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은 것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치료를 위해 서울을 방문해서였으며, 가해지목인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음. 피해호소인은 가해지목인의 성폭력이 고의적인 것이 아닐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또한 앞으로 발생할 성폭력 피해 상담치료 비용을 요구함.(2012.03.13.)

-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성폭력 사건 진상위원회가 꾸려짐.(2012.03.18.) 피해자는 가해지목인에게 생계를 꾸리지 못한 근 한 달 반의 고료와 상담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일정을 잡고 상담을 함.(2012.03.19.)

- 진상위에서 가해지목인과 대면하여 진술을 받았으나, 가해지목인과 피해호소인의 진술이 완전히 반대됨. 가해지목인은 피해호소인의 진술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함. 피해호소인은 진상위가 조속히 종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함.(2012.04.25)

■ **사건 결론:** 마지막 회의를 기점으로 이수나로 성폭력 진상위원회는 더 이상 진상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 피해자의 진술을 더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진상위원회 구성원들끼리 여태까지 모인 진술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 성폭력상담소나 다른 성폭력 관련 활동가, 단체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2012.06.02) 이후 진상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가와 단체를 알아보는 것이 늦어지던 중, 피해호소인이 활동을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흐지부지됨.(2012.07.??)

10. 2013년 봄 성폭력 사건(2013.05.14 ~ 2013.07.07)

■ **대책위:** [성폭력공동대책위] 수수, 별다(이수나로), 아리데(청소년노동조합 준비모임), 한날(인권교육센터 들)

■ **문제제기:** 광혁(서울지부) 활동회원이 타 단체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그만하라는 의사를 몇 번 밝혔음에도 행동이 수정되지 않음. 이에 대해 피해자대리인이 내부계에 문제제기 글을 씀.(2013.05.14.)

■ **내부논의(조사):** 전체온라인회의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함.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가 속해 있는 이수나로, 청소년노동조합준비모임,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공동으로 대책위를 구성.(2013.05.19.)

■ **사건 결론:** 가해자는 피해자가 요청한 반성폭력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를 함.(2013.07.07.)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한 슬럼프 때문에 활동을 그만둠. (2013.07.23.)

11. 2014년 봄 폭력사건(2014.03.18 ~ 2014.04.06)

■ **대책위:** 없음

■ **문제제기:** 카페가입자 F(광주지부)의 폭력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글을 피해자대리인 홍수(광주지부) 활동회원이 내부계에 올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여러 번 하면서도 행동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홍수의 연락을 피하고 아수나로 카페를 탈퇴하며 연락이 두절됨. 피해자는 본인에 대한 모든 것을 가해자가 볼 수 없게 제한하고 싶어했으며, 피해자대리인 홍수는 전체온라인회의 혹은 전국논의자랑에서 카페가입자 F의 영구 제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함. (2014.03.18.)

■ **내부논의(조사):** 전국논의자랑에서 해당 사건 가해자의 징계에 대해 논의함. 가해자가 활동회원이 아니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굳이 연락해서 '당신이 활동정지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전달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2014.04.06.)

■ **사건 결론:** 가해자를 아수나로 전체에서 활동정지 처리하고, 광주지부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함. 단, 가해자에게는 그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추후에 가해자가 다시 등장하면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함. 가해자의 아이디나 이름 등은 광주지부와 카페 가입자 담당이 체크하도록 함. (2014.04.06.)

※ 홍수 활동회원은 [6. 2010년 여름 광주 꽃밭사건]에서의 병가상사 활동회원 & 현재 광주지부 활동중인 빈둥 활동회원과 동일인물입니다.

12. 2014년 여름 성폭력 사건(2014.07.13 ~ 2015.04.16)

■ **대책위:** 루블릿, 윤쓰리, 미추연(중간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변경)

■ **문제제기:** 인천지부 회의에서 아르비(인천지부) 활동회원의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대책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2014.07.12) 피해자대리인 그링(인천지부) 활동회원이 인천지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책위를 꾸릴 것을 요청하는 글을 전체온라인회의의 안건으로 올림. (2014.07.13)

■ **내부논의(조사):** 가해자가 '진상조사도 안 한 채로 가해지목인을 가해자라고 낙인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내부계 익명게시판에 올림. (2014.07.13)

- 전온회에서 대책위가 꾸려짐(2014.07.20). 대책위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하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내부계 익명게시판 임시폐쇄를 요청했고,(2014.07.26.) 총회에서 대책위 활동기간인 2014년 9월 20일까지 익명게시판을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함.(2014.08.03.)

-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진술을 받고(2014.08.24.)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계에 올림.(2014.08.31.) 보고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해자가 그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대책위에서 보고서에 대한 몇몇 우려지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가/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진술을 받고 보고서를 수정하기로 결정함. 보고서 수정을 위해 대책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함.(2014.09.16.) 전체온라인회의에서 대책위 활동기간을 2014년 10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됨. (2014.09.21.)

- 인천지부 활동회원 라일락이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글을 내부계에 올림.(2014.09.21) 이에 대책위에서는 회의를 가져 라일락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글을 달고(2014.09.28) 보고서를 최종수정함.(2014.10.03)

- 전국논의자랑에서 대책위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사항 중 하나인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기존 대책위 멤버들이 준비하기로 함.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아수나로 내의 전반적인 반성폭력 문화/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됨.(2014.10.11)

- 가해자가 반성폭력공부모임을 2014년 이내에 최소 2회 이수하고,(11월 29일, 12월 20일 확정) 내부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결정. 반성폭력 공부모임과 사과가 완료될 때까지 가해자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사과문은 공부모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올리기로 함.(2014.10.11)

- 가해자는 진술과정에서 자신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대책위에서는 이는 이번 성폭력사건과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해 해당 진술을 채택하지 않음. 그리고 가해자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보고서 내용을 전달했을 때,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 추후에 피해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사과를 받기 어려울 것 같으므로 자신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제명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함.

- 전국논의자랑에서 가해자의 징계 이행 거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가해자를 무기한 제명 처리하고, 이후 가해자가 활동 복귀를 희망할 경우 아수나로 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그리고 아수나로 조직이 반성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전체 차원 사과문과, 사건 해결이 늦어진 것에 대한 인천지부 차원의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함. 전체 차원의 사과문은 징계공지와 함께 카페에 게시하기로 함. (2014.12.06.)

- 이후 사과문이 작성되지 않아, 대책위에서 후속조치 점검요청을 전체온라인회의 안건으로 발의함. (2015.02.10.) 전체 차원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한 파이루 활동회원(서울지부)은 3월 16일, 인천지부 아리데 활동회원은 3월 13일까지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함.

■ **사건 결론:** 가해자는 활동을 그만두고 무기한 제명처리됨. 대책위에서 2015년 겨울 제 15회 총회 때 익명게시판 폐지안건을 상정해 통과됨.(2015.01.11) 인천지부의 사과문을 내부게시판에 게시했으며 (2015.03.17.) 전체 차원의 사과문 및 제명 공지를 카페에 게시함. (2015.04.16.)

- 전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처리가 끝나는 데 대략 2~3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됨.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책위의 활동기간은 최대 2개월이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가해자가 아수나로 활동을 그만두며 흐지부지되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들이 연장되거나, 마무리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끝맺어지지 않음.

1-2) 문제점

■ 문제점1: 문제제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

상황

-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음. 2014년 여름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대책위에게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부 내에서 사건을 공유하기는 했는데, 모임에서 누군가가 해당 사실을 글로 정리해서 회의 때 얘기해보자고 말함. 그런데 가해자가 회의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글로 써서 회의에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꺼려졌으며, 사건과 관련 없는 제 3자에게 공유되는 것이 걱정되어 문제제기를 미루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 (2014년 여름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대략 2014년 3~4월경으로, 문제제기 및 공론화가 이루어진 2014년 7월과는 3~4개월 가량의 격차가 있었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위의 사례처럼 문제제기가 늦어지기도 하며, 문제제기와 단체 내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묻히는 사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원인

원인1) 문제제기 창구 부족, 안내 미비

-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반인권적 행위 사건 피해호소 및 문제제기에 대해 “반인권적 행위 신고는 전체온라인회의나 지부 등의 회의 안건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거나 즉석에서 제안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 반인권적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지는 않도록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지부 또는 게시판에 직접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적혀 있지 않음. 그리고 그러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다른 매뉴얼 등도 없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많지 않은데, 위의 아카이빙에 나와 있는 8번의 성폭력사건 중에서 4번의 사건이 지부 내에서 발생한 사건임. 함께 활동하는 단체에서, 특히 같은 지부에서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현장에서 본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지부모임에 나오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그럼에도 지부 내 안건으로 발의하거나,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전체회의(전체온라인회의, 전국논의자랑 등)에서 즉석으로 안건을 발의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황.

원인2) 활동중단, 제명 등 관계가 파탄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염려

-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거의 항상 가해자가 징계를 받고 제명당하는 결과가 나옴. 2011년 봄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음에 서울지부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징계'의 얘기만 했었잖아요? 가해자를 어떻게 징계할까의 논의보다,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덜 상처받고, 아수나로 안에서의 반성폭력문화를 정착시킬 건가 라는 논의가 더 커야 하는 거 아니예요?” 라고 문제제기 글을 올린 바 있음.

그리고 아수나로 내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다른 활동회원들은 가해자를 낙인찍게 되고, 이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그렇다 보니 피해자 역시 문제제기를 하기에 부담을 느껴,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될 수 있음.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아래와 같이,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둘 다 대책위라는 기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음.

“피해호소인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대책위로까지 끌고 가야 하나, 하는 생각+앞으로의 진술과정의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호소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고, 가해지목인은 자신 때문에 ‘대책위’라는 기구가 꾸러졌다는 것과, 자신이 가해자라고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워서 더더욱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자기방어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 문제점2: 2차가해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함

상황

- 활동회원들(가해자 포함)의 2차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함.

성폭력사건이 공론화되고 전체온라인회의에서 대책위가 꾸러질 때, 대개 진상조사를 비롯한 대책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해지목인의 활동을 정지할 것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가해자/가해지목인의 이수나로 활동(온/오프라인 모두)에서의 2차가해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음.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대책위가 꾸러지기 전까지의 팀 동안에 가해자가 활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2차가해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없는 상태임.

2014년 여름 성폭력 사건이 문제제기되었을 당시 지부 차원의 피해호소 글이 게시된 후, 활동회원들의 일정을 조율해서 (대책위를 소집하는) 전체온라인회의가 열리기까지 1주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1주일 사이에 가해자(당시에는 가해지목인)가 내부게시판 익명게시판에서 “피해 받은 게 힘들었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냐, 싫다고 표현해본 적은 있냐, 그 표현도 안하고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터트리면 가해지목자 입장에서는 피해호소인이 피해자코스프레 하는 것 같다”는 등의 2차가해성 발언을 한 바 있음.¹⁾ 이후 가해자는 진술과정에서 그 게시글을 자신이 올렸다고 밝혔으나, 만약 가해자가 말하지 않았다면 해당 게시글을 누가 올렸는지를 알 수 없었을 상황이었음. 따라서 대책위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제재 불가능한 익명적인 가해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게시판 폐지를 권고함.²⁾ 이후 2015년 겨울 제 16회 총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익명게시판은 폐지되었고³⁾, 익명적인 2차가해는 어느 정도 방지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가해자 또는 주변인이 익명성을 띠지 않은 채로 가하는 2차가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 그리고 이와 같이 2차가해 예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2차가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함.

원인

원인1) 단체 내에서 2차가해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모욕, 정신적 고통을 주는 추가 행위를 2차가해로 인정하며, 대책위는 이를 예방하며 적절한 조치(추가 제재 포함)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내규에서는 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가해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음. 또한 이수나로 내에서도 어떤 것이 2차가해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활동회원들 사이에서의 암묵적인 합의 또는 활동회원들의 개인적인 주관은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성폭력당한 것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 등이 2차가해라는 생각은 많은 활동회원이 가지고 있음) 단체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합의를 위한 논의자리 또한 가졌던 적이 없음. 무엇이 2차가해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조차 공식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의견이 갈리는 ‘2차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임.

원인2) 2차가해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대책과 권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대책위가 2차가해를 예방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차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2차가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매뉴얼이나 합의된 원칙 등이 없는 상태. 그렇다 보니 2차가해가 발생하면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처가 늦어지곤 하는 상황임.

2014년 여름 성폭력사건 당시에도 가해자가 익명게시판에 2차가해성 글을 게시했을 때 대책위가 이에 대한 임시조치로 익명게시판 임시폐쇄 안전을 내놓았으나, 2014년 여름 제 15회 총회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서야 논의를 거쳐서 집행이 이루어짐. 그리고 이는 가해자가 2차가해 글을 게시했던 날인 7월 13일로부터는 21일, 대책위가 꾸러진 후 첫 회의를 가졌던 7월 26일로부터는 8일이 지난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임. 익명성을 통해 2차가해가 이루어졌고 또 다른 2차가해 글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었던 공간에, 21일 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2차가해에 대해 정해져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는 대책위원회

1) 코키리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짚은 읽어주세요...) | 작성일: 2014.07.13. - <https://nebu.asunaro.or.kr/anoy/819925>

2) [대책위] 2014년 10월 3일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 결정입니다. (141005 수정) | 작성자: 루블릿 | 작성일: 2014.10.03.

- <https://nebu.asunaro.or.kr/932123>

3) 제16회-2015겨울 이수나로 총회 회의록(안전처리) | 작성자: 짱짱 | 작성일: 2015.02.13. - <https://nebu.asunaro.or.kr/1121766>

임. 그러나 대책위에는 2차가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 아수나로 내에서 합의된 대처 방법도 없고, 대책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안전을 올리고 논의를 거쳐 통과된 다음에만 가능한 상황에서는, 위의 2014년 여름 성폭력사건 사례에서처럼 2차가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움.

물론 아수나로에서 2차가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가해자 또는 주변인이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서 가하는 2차가해 등은 아수나로가 막을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아수나로 내에서 발생하는 2차가해를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지 못하고, 2차가해가 일어난 뒤에도 제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원인3) 가해자/가해지목인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방지 등을 위한 안내/창구가 마련되지 못함

- 2014년 여름 성폭력사건 당시 가해자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익명게시판에 2차가해성 글을 게시했으며, 진상조사기간동안 활동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지부 팀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내가 처음 제안한 팀인데 왜 내가 빠져야 하나”는 말을 반복하는 등의 행동을 보임. 그리고 대책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진술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는, 가해자에게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후 전국논의자람에서 징계 및 대책논의에 차질을 겪는 일이 발생함.⁴⁾

그리고 이는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 가해지목인에게 왜 활동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어떠한 언행들은 2차가해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안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함.

- 대책위 활동 기간동안 가해지목인을 피해호소인과 공간분리조치하기 위해 활동정지가 이루어진 것이며, 추후에 가해지목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없었으니, 가해지목인은 ‘진상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벌써부터 자신이 가해자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마땅한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익명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 것.

그리고 2차가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및 2차가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해자는 2차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됨. 그리고 실제로도 자신의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며 진술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내가 이런 언행을 할 만한 구실을 제공했다”는 등의 말을 반복한 바 있음.

물론 아수나로에서 가해자/가해지목인에게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안내를 진행하고, 가해자/가해지목인이 모르는 점을 질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도 2차가해가 일어났을 가능성 또한 없는 것은 아님. 하지만 그러한 안내와 창구가 없는 상황은 더더욱 가해자/가해지목인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문제제기 및 징계를 납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보아, 당시 가해자로 인해 이루어졌던 2차가해는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가해자/가해지목인에게 아무 것도 안내하지 않은 아수나로 조직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제점3: 지지부진한 일처리

상황

- 반인권적 행위 내규상에 명시된 대책위 활동기간은 최대 2개월임. 그러나, 대책위가 꾸려진 7번의 사건 중 3번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건 처리기간이 2개월을 넘김. 그리고 2개월 안에 처리된 3번의 사건들도, 가해자가 아수나로를 나가며 사건이 흐지부지되면서 기간이 짧아진 것.

그 중 가장 처리기간이 길었던 사건은 2014년 여름 성폭력 사건인데, 당시 대책위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 열린 2014년 12월 6일 전국논의자람에서 결정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음.⁵⁾ △ 아수나로 조직이 반성폭력적인 분위기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체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사과 진행. 늦어도 12월 내에 제명조치 공지와 함께 사과문 게시 △ 인천지부 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인천지부에게 사과문을 요청. 인천지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부모임 이수 후에, 지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지부의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요청

4) 14.10.11 다섯번째 전국논의자람 회의록. | 작성자: 파이루 | 작성일: 2014.10.19. - <https://nebu.asunaro.or.kr/955100>

5) 2014.12.06 전국논의자람 회의(록) | 작성자: 파이루 | 작성일: 2014.12.10. - <https://nebu.asunaro.or.kr/1019098>

그러나 사과문 작성이 늦어져 사과문 및 징계공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날짜는 2015년 4월 16일로,⁶⁾ 성폭력 사건의 처리기간이 총 9개월에 달하게 됨. (사건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날짜는 2014년 7월 13일이었음)

원인

원인1) 경험, 전문성의 부족

- 현재 이수나로에서는 반인권적 행위 사건 발생 이후 문제제기 및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전체온라인회의를 소집해 대책위를 꾸리고 있음. 하지만 대책위의 역할, 업무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일처리에 구멍이 생기고 일처리가 늦어지곤 하는 상황임. 제일 최근 공론화되었던 2014년 여름 성폭력 사건에서는 대책위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받는 과정이 가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대조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진술과정에서 대책위가 가해자에게 진술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에게 의견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가해성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실수를 하기도 함.

현재 대책위 활동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문서가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숙함이기도 하지만, 가이드나 매뉴얼을 만든다 해도 가이드에 모든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명시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명시된 사항대로 똑같이 따라하기도 힘들. 상담과 조사 같은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기도 한 부분.

- 사건 처리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꼼꼼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처리과정이 될 수 없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뉴얼로 정리하는 등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매뉴얼뿐만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 전에 대책위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활동회원들은 어느 정도 대책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현황의 성폭력사건 아카이빙에 적혀 있는 대책위 구성원 15명 중 지금까지 이수나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은 3명뿐임. 활동회원 회전이 빠른 이수나로 특성상 대책위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단체를 나가버려, 현재 이수나로 내에는 대책위 활동에 대한 경험/전문성을 갖춘 활동회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아래와 같이, 대책위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몰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언급된 바 있음.

“대책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위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대책위 활동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은 감을 못 잡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2)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 가이드가 없음

- 앞에서 말했듯,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호소 및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해 대책위의 구성/진상조사/징계/보고서 작성 등 처리과정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 수준의 가이드가 단체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서 언급되기는 하나 ‘이러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만이 명시되어 있고,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대책위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실수가 생기기도 함.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아래와 같이, 대책위 활동에 대한 매뉴얼 또는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수나로 회원 모두가 알고 있다면, 폭력 사건을 막거나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중략) 대책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매뉴얼 등을 만들어두어야 앞으로 또 다시 대책위를 꾸릴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멘붕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 반인권적행위에 따른 활동회원 아르비 제명 공고 및 이수나로의 사과문 | 작성자: onlyasunaro | 작성일: 2015.04.16.
- <http://cafe.naver.com/asunaro/56331>

원인3) 사건 처리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

- 이수나로에서는 대책위 활동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맡고 있던 기본 업무(지부활동/다른 팀활동)를 줄여준다거나 하지는 않음. 그렇다 보니 대책위가 제대로 회의를 잡고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임. 2014년 여름 성폭력 사건에서도 대책위 구성원 개인의 일정조정이 쉽지 않아 회의를 갖는 팀이 길었고, 그로 인해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짐.

- 타 단체의 성폭력사건 처리방식을 살펴보면,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다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회 사람들의 업무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권운동사랑방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참고)

생계유지/학교 등의 생활과 활동을 병행하기도 힘든데, 그 상태에서 대책위 활동을 추가로 하는 것은 충분히 활동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임. 같은 팀 또는 지부에서 맡은 일들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책위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1.위원회는 상임·돈움활동가 중 3인으로 구성한다.
- 2.위원은 상시직이며, 인권운동사랑방 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3.위원장은 위원 중 뽑는다.
- 4.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5.위원회는 사건 모두를 기록하고 공개/비공개 여부를 고려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 6.위원회는 사건 모두를 기록하고 보고서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
- 7.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제14조 위원 및 임시위원에 대한 지원

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결합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휴가 신청, 업무 조정, 상담 등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 작성자: 인권운동사랑방 | 작성일: 2010.10.23

- <http://www.sarangbang.or.kr/content/성차별금지-및-성폭력사건-해결을-위한-내규>

■ 문제점4: 지부에서 사건 처리/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상황

- 이수나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개념이 '지부'인데, 지부 내에서 사건 처리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2014년 여름 성폭력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을 때 지부 내에 과거 대책위 활동을 해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및 논의가 뒤늦게 이루어졌고, 가해자와의 공간분리도 늦게 이루어진 바 있음. 또한 대책위가 꾸려진 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지부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인

원인1) 지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름

-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참고해볼 수 있을 법한 자료인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도, 지부가 어떤 대처와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지부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책위 활동경험이 있는 활동회원이 지부 내에 있다면 어느 정도의 처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거 대책위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총 15명 중 현재까지 이수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인 3명에 불과함.

그렇다 보니 활동회원들은 지부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 이렇다 보니 2014년 성

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지부 내에서 친분이 있는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호소했을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피해 내용을 글로 적어서 안건으로 제출하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고, 피해자는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공유하기가 꺼끄러워 공론화를 망설이다가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론화가 이루어짐.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2차가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반성폭력 토크의 '사건처리과정 안에 있으면서 대책위 활동을 안 한 회원의 발제(라일락 활동회원/인천지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피해자는 지부 내에서 본인과 친분이 있는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본인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sns나 지부 모임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몇몇 지부 구성원들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글로 적어서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부 내 구성원들이 피해호소를 접했음에도 심각성 및 처리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빠른 처리 및 공간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계속 모임에서 마주치며 불편함을 느꼈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2차 가해도 겪어야 했습니다."

원인2) 지부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분위기

- 위의 반성폭력 토크 발제문에서 보았듯,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으나 지부 구성원들이 그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또한 사건이 공론화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챙겨져야 하는 일들이 잘 챙겨지지 않기도 함. 2014년 여름 성폭력사건에서는 대책위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인천지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을 제시했고, 대책위 구성원들이 공부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지부에 공지와 장소 대관을 요청했지만, 공부모임 이틀 전야 공지가 이루어지고 장소가 공유되는 등 일들이 챙겨지지 않음. 대책위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부 전체적으로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깔려 있음을 뜻함.

이런 경우 피해자는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별 일 아닌데 너만 유난 떠나다'는 시선을 보낸다고 느끼기 쉬우며, 문제제기 또한 주저하게 될 수 있음.

■ 문제점5: 활동회원들의 방관적인 태도

상황

-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 또한 중요함. 하지만 피해자가 문제제기와 사건 처리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 가해자가 문제를 외면하거나 처리과정에서 회피하지 않도록 챙기는 역할, 구성원으로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며 책임지는 역할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지인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의 사건해결을 위한 역할 또한 중요함.

- 하지만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해자, 대리인, 대책위가 아닌 이수나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사건해결 과정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피해자, 가해자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활동회원들은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몰라 결과적으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곤 하.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 하는 건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배제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같고' 등등의 갈등/고민/난감함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며, 공식적인 사건처리과정만 지켜보고 있게 됨.

원인

원인1)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름

-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본인이 피해자/가해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닌데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제기 및 처리과정 등, 꺼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과정, 번거로운 과정에 굳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긴 어려울 수 있음. 개입한다 해도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게 됨. 그래

서 성폭력상담소 등의 단체에서는 ‘가해자의 친구라면’ ‘피해자의 친구라면’과 같이 주변인으로서 사건 해결과정에 왜 함께 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함.

- 사건 해결과정에서 방관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원인은 의도적인 회피, 방치일 수도 있음.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 결국은 알아서, 눈치껏 찾아서 의견을 내거나, 개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됨.

원인2) 단체 차원에서 고민/논의된 적이 없었음

-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가장 큰 원인은, 단체 차원에서 구성원의 책임/개인들의 역할/관계에서의 문제해결 등을 고민하거나 논의해보는 자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임. 현재의 방관적 태도는,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합의 또는 공유되지 못한 공백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아수나로 안에서는, 개인들의 관계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는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이 존재하기도 함. 하지만 성폭력사건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조직/공동체의 문제임.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개인의 선택으로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서 합의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모두가 가해자와 썸을 까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간단한 방법일 수는 있어도,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님. 개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에 함께할 것인가는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 내가 피해자의 지인이라면/가해자의 지인이라면/사건이 발생한 단체의 구성원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등, 개인간의 관계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고민을 나누고 토론과 합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문제점6: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책/지원이 없음

상황

참고자료: 반인권적 행위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사항 아카이빙		
사건명	가해자 대상 결정사항 (밑줄: 논의 및 통과/집행된 사안)	아수나로 전체 대상 결정사항 (밑줄: 논의 및 통과/집행된 사안)
2007년 겨울 (연초) 성폭력사건	- <u>아수나로 회원 전체에 대한 사과와 반성 요구</u> - 가해자가 소속된 정당에서 성평등 교육 이수요청 - 이후에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더 강력한 징계 검토	없음
2008년 가을 성폭력사건	- <u>대책위 결정사항 게시 후 2주 이내 성의있는 사과문 작성 요구</u> - 사과문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명 - 만약 제명된 이후 다시 활동의사를 밝힐 경우,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문을 올린 후 활동을 허락 - 활동 재개 후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징계 적용	없음
2008년 가을 언어폭력사건	- <u>'온라인에서 욕설과 막말 등 언어폭력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거나 상처받았던 사람들 모두'에게 공개사과 요구</u>	없음
2011년 봄 성폭력사건	- <u>온·오프라인 활동 전체에 참여를 금지하고 회원자격 박탈</u> - 반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및 공개사과 권고 - 권고사항을 이수하고 활동재개를 원할 시, 징계결정 3년 후 피해자가 참석한 지부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전체온라인회의 수준 이상의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승인. 단, 지부 회의에서 부결되거나 피해자가 활동재개를 반대할 경우, 안건은 부결되며 6개월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음.	- <u>회칙 개정 권고: 모든 지부가 반(성)폭력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가져야 한다는 내용 추가</u> - 모든 구성원이 가·피해자간 온·오프라인 공간분리에 대해 조력할 것을 요청 - 2차가해 및 성폭력사건의 재발을 막고 반성폭력적이며 인권적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 - 성폭력에 둔감한 문화를 개선하고 반성폭력 문화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 -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지부에서는 피해자 상담/치유를 위한 노력을 행할 것을 요청 - 반성폭력 관련 공부모임 프로그램/자료를 개발, 활동가를 양성할 것을 요청
2013년 봄 성폭력 사건	- 가해자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인권교육센터 들, 아수나로, 청소년노동조합 준비모임)에서 지속적인 반성폭력 교육을 제공하고, 가해자가 이를 이수할 것을 요청 - <u>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청</u> <u>(가해자는 들, 아수나로, 청노조에서 진행한 합동 공부모임을 1회 이수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활동을 그만둠)</u>	없음
2014년 여름 성폭력 사건	- <u>(가해자를 포함한) 인천지부 전체를 대상으로 공부모임을 진행 (최소 2회 이상)</u> - <u>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분리 요청</u> - 공부모임을 이수한 뒤에 내부계시판을 통한 공개사과를 요청. 사과문 내에서 피해자는 익명 처리되어야 하며,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의 내역과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명시해야 함.	- 각 지부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하는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빠뜨리지 말 것을 요청, 뉴페공부모임 등을 통해 뉴페 및 활동회원들이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을 요청 - 지부별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할 때 이번 사건에 관련된 내용 반영 요청 - <u>익명계시판 폐지</u>

- 지금까지의 아수나로 내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살펴보면, 사건에 대한 대책이 거의 항상 가해자의 징계로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나마 2011년 봄 사건과 2014년 여름 사건 대책위에서는 아수나로 전체 차원에서의 권고사항을 몇 가지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언급되거나(‘반성폭력적이며 인권적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 등), 혹은 강제성이 없으며 그것이 이행되는지 챙기는 사람이 없었음.(‘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하는 반성폭력공부모임을 빠트리지 말 것’ 등) 그리고 이는 아수나로 내에서 추후의 성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함.

- 그나마 아수나로가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성폭력과 같이 이 사회의 반인권적이고 지배적인 인식과 구조가 뿌리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인식’에 기반한 사건 해결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다”고 명시하는 등,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피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나,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아래와 같이 ‘아수나로가 피해자 친화적이기는 하나, 딱히 지원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피해자 차후 지원의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피해자 지원을 한게 있나? 했는데 딱히 없는 것 같다. 개인 피해자 대리인이 감정 노동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단체를 나간 적이 있는가? 하면 유사한 사람이 한 명 있다. 피해자가 잘 안 나가네? 왜 그럴까? (의아함) 를 생각해봤을 때 뭐지?했는데 뭘 잘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단체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것은 일상적 폭력에 문제제기가 많았던 경우가 많고, 사건 자체가 경중을 나누기 힘들겠지만 사건 자체가 농도가 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단체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진단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아수나로라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꽤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아무튼 괜찮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대책위가 꾸려진 뒤에 해당 지부라던가 커뮤니티 안에서 이행되잖아요. 이때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주는 것 같고. 우리가 괜찮은 지원들을 나름 해온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액티브한 것보다는 패시브한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을까 했거든요.”

원인

원인1) 돈이 없음

- 피해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 지원 중 대표적인 것은 상담치료, (물리적인 상해가 있었을 경우) 외과치료 등이 있음.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함. (상담치료의 경우 최소 수십만 원 수준) 그러나 아수나로는 한 달에 120만 원 가량 들어오는 후원금을 사업과 활동지원비 등에 지출하는 것만으로도 늘 돈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 경제력이 거의 없다시피한 청소년과 20대 비청소년이 회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단체 특성상 활동회원들 역시 늘 돈에 쪼들리기 때문에, 회원들 사이에서 모금 등을 진행하기도 어려움.

2012년 봄 성폭력사건 당시에도 피해호소인이 가해지목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치료비용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게시했으나, 가해지목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워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음. (당시 전체온라인회의에서 가해지목인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가해지목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아수나로에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지원이 가능한가를 논의하다가 아직 진상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결론내렸으며,⁷⁾ 이후 진상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이 성폭력사건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며 흐지부지되어버림.)

원인2)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름

-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는 “대책위는 조사활동, 가해자 활동 정지·격리, 가해자에게 사과를 비롯해서 징계 결정, 피해자 치유, 2차 가해 예방 등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해자 치유를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7) 4월 21일 전체온라인회의 회의록 | 작성자: 택이 | 작성일: 2012.04.23. - <http://cafe.naver.com/asunaro/40771>

며, 이에 대한 가이드나 매뉴얼 등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활동회원들이 상담치료 등 금전적인 지원 외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고 있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위의 2012년 봄 성폭력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요청했을 때에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1-3) 반성폭력문화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평가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이 내규는 인권적 행위와 사건을 가능한 한 올바르게 해결하고, 그런 행위와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공포를 주고 반성을 유도하는 근대적 형벌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와 예방을 우선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문제 인식과 사죄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대책위원회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위원회 활동은 언제나 피해자의 치유와 성폭력사건 예방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그리고 공론화된 9건의 성폭력사건 중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사항을 이수한 경우가 3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가해자에게 문제를 인식시키고 사죄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의 아수나로 내 성폭력사건 처리과정이 아수나로의 반성폭력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오히려 대책위 구성원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가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등의 실수를 하거나, 대책위 구성원들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 늘어지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를 ‘대책위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아수나로 내에서는 대책위가 꾸려졌을 때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를 납득시키고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방법론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음. 대책위가 꾸려질 때마다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미숙함의 문제만이 아님.

반인권적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징계보다는 피해자의 치유와 아수나로 조직의 반인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반디팀이 대책위 활동을 전문적으로 맡고 외부 자문과 교육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활동가들의 자문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현행 내규 전문(2014.06.08. 개정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반인권적 행위 내규

◎ 목적

1. 이 내규는 아수나로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 행위와 사건을 가능한 한 올바르게 해결하고, 그런 행위와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공포를 주고 반성을 유도하는 근대적 형벌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와 예방을 우선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문제 인식과 사죄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적용과 범위

1. 이 내규에서 반인권적 행위란, 아수나로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한 경우를 뜻한다. 단, 아수나로나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능력상 그 보장이 불가능한 인권은 이 내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활동회원의 주거권이 침해당한다고 해서 아수나로나 그 사람 주변의 회원들이 집을 당장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경제적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주로 사회권의 범주)에는 그 인권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를 아수나로에서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 내규는 주로 '자유권'으로 분류되는 인권들이 침해당하는 경우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 반인권적 행위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성폭력,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 물리적 폭력, 다양한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비인간적 대우 등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것들 외에도 반인권적 행위는 더 있을 수 있다.

3.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말한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 특정 성을 비하·차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차별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이들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제, 비하,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대우하거나 주류적인 것만을 당연시하는 태도, 또는 이런 차별적 인식들을 강화/재생산하는 행위나 언동 등을 포함한다. 반인권적 행위는 전반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예컨대 언어폭력 등의 경우에는 그 말에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비하나 차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언어폭력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발화되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ex: 폭력을 휘두른 권력자 등)에 대한 뒷담화 같은 경우에는 정상참작한다.

4. 반인권적 행위 중에서 성폭력과 같이 이 사회의 반인권적이고 지배적인 인식과 구조가 뿌리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인식'에 기반한 사건 해결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다.

5. 이 내규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아수나로의 활동회원으로 한다. 그리고 아수나로에서 그냥 눈팅만 하거나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게시판에 글만 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규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관한 것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또한 내규의 적용 대상으로 생각한다.

◎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고

1.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 일체를 알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사건 해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면담시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동반할 권리가 있다.

2. 반인권적 행위 신고는 전체온라인회의나 지부 등의 회의 안건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거나 즉석에서 제안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 반인권적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지는 않도록 한다.

3. 특별한 신고시효는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아수나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에 다른 소속 단위나 관련 단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신고된 후 전체온라인회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여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대책위원회는 관련자들이 있는 지부의 활동회원들을 위주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이나 자원자 등으로 3명 이상으로 꾸린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 구성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인권교육이나 (페미니즘) 상담교육이나 관련된 경험 등,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최대한 참여시킨다.

2. 대책위는 반인권적 행위 사건 해결을 위한 한시적 기구이며, 조사활동, 가해자 활동 정지·격리, 가해자에게 사과를 비롯해서 징계 결정, 피해자 치유, 2차 가해 예방 등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3.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다른 지부의 활동회원들이 함께 검토한다. 반인권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고서에 징계 권고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활동 내용은 모두 피해자와 아수나로에 보고해야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소집 가능하다.

4. 대책위의 활동 기간은 최대 2개월로 하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하면 전체온라인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5. 대책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이 공지된 지 2주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대책위나 전체온라인회의에서 다시 이를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야 한다.

6. 신고는 받았으나 조사 결과 반인권적 행위로 판단되지 않은 사건은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기각된 이유와 조사 내용을 알리며, 예외적으로 경각심이나 공개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판단은 대책위가 함) 공지하지 않는다.

◎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대책위가 반인권적 행위를 확인한 경우, 가해자는 실명 공개 사과를 기본으로 하되,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 사과에는 자신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내역과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명시해야 한다. 대책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과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분명한 의견 제시를 해야 하며, 본인이 잘못을 반성할 적절한 시간을 줄 수 있다.

2. 사과 외에도 다른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필요할 경우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세미나, 강연, 독서, 상담 등등) 또한 가해자의 반인권적 행위가 인정되고, 그것이 상습적이거나 과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는 다른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가해자가 사과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의 정도는 강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일정 기간 활동정지, 제명, 영구제명 등이 가능하다. 이런 징계는 대책위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제명이나 영구제명에 대해서는 대책위 외에 활동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전체온라인회의나 총회 등)를 통해 결정한다.

3. 영구제명의 경우에는 징계 사실에 대해 대외적으로 다른 운동 단체들 등에도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밖의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알릴지는 대책위에서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대책위가 사라진 후 이를 공개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4. 반인권적 행위가 인정되어 대책위의 결정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의사결정권은 징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지되며, 맡은 직책도 사라진다.

◎ 기타 사항

1.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모욕, 정신적 고통을 주는 추가 행위를 2차 가해로 인정하며, 대책위는 이를 예방하며 적절한 조치(추가 제재 포함)를 취해야 한다.

2. 반인권적 행위가 있고 이를 처리할 경우 각 지부는 이를 다른 지부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니까, 지부 안에서만

처리해버리지 말고 공유하고 대책위를 꾸려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경미하고 지부 단위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지부에서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부에서 처리한 이후에 이를 사후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부에서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과 내용은 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따른다.

3. 아수나로 지부들과 모든 기본적인 활동 단위에서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숙지해야하며, 신입회원 가입시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즉, 활동회원이 되려는 사람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근본적인 내용에 반대한다면 가입도 안 된다.)

4.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공식 제재 외에 개인적인 복수나 제재를 불허하며, 만일 그런 개인적 복수나 제재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행위가 일어날 경우, 별개의 반인권적 행위로 처리한다.

5. 회원들 간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나이주의(나이를 매개로한 차별, 모욕 등을 정당화하는 권위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벌차별, 성폭력, 언어폭력, 왕따 기타 등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교육과 내규 준수의 의무는 회원 모두에게 있다.

2) 반인권적 행위 내규

2-1) 현황

■ 제정 과정

-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처음 제정된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자료는 현재 아수나로 카페에 남아 있지 않음. 아래 내용 중에서 2006년~2007년의 논의과정은 당시 내규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공현(수원지부) 활동회원의 기억을 참고하여 작성함.

[2006년 8월: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논의의 시작]

초기의 제정 논의는 활동회원들의 '단체 내에 반성폭력 내규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함.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아닌 '반성폭력 내규' 제정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2006년 8월 27일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내규에 대해서는 모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회 때 최종승인하기로 함.⁸⁾ 이후 내규에서의 페미니즘 수용 문제에 대한 논의('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논의글' 참고) 등을 거쳐서 내규를 작성하기 시작함.

참고자료: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논의글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진보적 사회운동 내부의 성폭력 규정은 법률에 비해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성폭력 관련 규정은...

1.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 : 성적 자기 결정권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지요. 한 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성적 행동을 결정할 권리
2. 피해자 중심주의 : 피해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피해 여부를 느꼈냐 마느냐가 중요함
3. 2차 가해 인정 : 성폭력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도, 사과를 거부한다거나 협박을 한다던가,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압력을 넣으면 '2차 가해'가 되고, 더 엄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2차 가해자도 처벌합니다.
4. 가해자의 의도 : 이것은 가해자가 명확히 성폭력 행위를 하려고 의도한 바 인가 아닌가에 따라 처벌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 징계 정도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소한 스킨쉽과 집적거림도 명확히 거부 의사 및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도가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에서 통용되는 반성폭력 내규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자료와 기본 원칙을 보면 아시다시피, 대다수 한국인의 통념이나 법률에 비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건, 페미니즘(여성주의) 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지요.

어쨌든, 아수나로 반성폭력 내규에서 이런 페미니즘의 원칙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용해야 한다고 보구요.

피터는 전체회의에서 '양성평등포럼'을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바빠서 정확히 지적을 못 하였지만, 사실은 '페미니즘과 성폭력'에 대한 포럼을 열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사회 문제 자체가 페미니즘 이론에 의해 정립된 거고, 마초이즘 비판이라든가, 팬클럽 문화, 성소수자 문제를 분석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것이지요.

여하튼 반성폭력 내규에 관심있는 정식 회원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단순 찬성/반대 부터 수정,보완, 추가, 삭제 다 환영

출처: 반성폭력 내규의 기본 원칙과 페미니즘(여성주의) 수용 문제 | 작성자: 꿈틀이 | 작성일: 2006.08.29.

- <http://cafe.naver.com/asunaro/2290>

8) 8.27. 회의록 | 작성자: 공현 | 작성일: 2006.08.31. - <http://cafe.naver.com/asunaro/2326>

[2006년 하반기: '반인권적 행위 내규'로의 전환]

- 내규가 통과되기 전 2006년 겨울, A 활동회원(서울지부)이 자신이 성매수를 했다는 사실을 irc 채팅방에서 말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반인권적 행위가 맞으나,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수나로 내에서 의견이 갈렸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반인권적 행위 전반에 대해 다루는 내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작성 중이던 내규는 반성폭력 내규가 아닌 '반인권적 행위 내규'로 변경되었으며,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반인권적 행위의 사례를 모으는 과정(아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제보 모집글' 참고) 등을 거침.

참고자료: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제보 모집글

반인권적 행위에 관한 내규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아수나로'의 회원이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에 아수나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 내규에는 반인권적 행위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제재'를 결정하는 절차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아수나로 총회에 초안이 제출되어, 적절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인권적 행위'의 기준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완전히 객관적인 인간 권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아수나로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내규를 확정하기 위해, 실제로 아수나로 회원이 행한 반인권적 행위 혹은 그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를 모아 이것이 제재 대상인가/아닌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논의는 총회 때 진행될 것이지만, 아수나로 회원 모두의 경각심과 주의를 위해 '반인권적 행위' 사례를 내규에 부록처럼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이 아수나로 회원이 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자신이 당한것이든, 타인이 당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꿈틀이' 아이디에 쪽지나 이메일로 제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하신 회원을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반인권적 행위를 한 회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출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 내규 작성에 도움을 위한 것이니 많은 참여부탁 | 작성자: 꿈틀이 | 작성일: 2007.01.18. - <http://cafe.naver.com/asunaro/3946>

[2007년 상반기: 논의 및 제정]

- 2007년 겨울 제 1회 총회에서 내규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대책위 구성 최소 인원 명시 △ 대응 교육 상설화 △ 다른 폭력들에 대한 풍부한 예시와 언급 세 가지가 추가됨.

- 2007년 2월 4일 전체온라인회의에서도 내용이 추가됨. △ 실명공개 사과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둠 △ 재발시 가중처벌 △ 피해자가 사과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 이유가 정당하면 다시 논의

- 2007년 3월 3일 최종 승인되어 제정된 초창기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목차별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리인의 개념이 '신뢰인'으로 잠깐 언급됨 △ 대책위 구성 기간의 상한선과 인원구성, 최소인원에 대한 내용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언급 △ 사과의 방식과 방법 명시 △ 2차가해에 대한 언급

참고자료: 반인권적 행위 내규 첫 제정안

총회/전체온라인회의 통과일 : 2007년 3월 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반인권적 행위 내규

◎ 목적

1. 이 규약은 아수나로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 행위와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과 예방 및 교육을 위해 제정되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반성을 유도하는 근대적 형벌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와 예방을 우선하며 그리고 가해자의 문제 인식과 사죄를 위해 노력한다.

◎ 적용과 범위

2. 반인권적 행위란 활동 시 인간으로서의 갖는 모든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뜻한다. 단, 이 규약에서 적용하는 범주는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을 뜻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회권을 아수나로 차원에서 완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말한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 특정 성을 비하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4.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주관식 피해 인식'에 기반한 사건 해결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다.

5. 이 규약의 적용대상은 아수나로의 활동회원과 회원가입서를 통해 활동의사를 표한 온라인 회원들을 포함한다.

◎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고

6.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 일체를 알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사건 해결에 참여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면담시에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다.

7. 반인권적 행위 신고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며, 다만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지는 않도록 한다.

8. 신고 접수는 소속한 지역모임의 조직(연락)담당이나 온라인 부서인 운영모임에 한다.

9. 별도의 신고시효는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아수나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에 다른 소속 단위나 관련 단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

10.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는 신고된 후 10일 이내에 운영모임, 지역모임의 조직,연락담당과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며 최소 인원은 3명이다.

11. 구성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인권교육이나 (페미니즘)상담교육 등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최대한 참여시킨다.

12. 대책위는 반인권적 행위 사건 해결을 위한 한시적 기구이며, 조사활동, 가해자 활동 정지 및 격리, 피해자 치유, 2차 가해 예방 등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3. 활동 내용은 모두 피해자와 단체 내외에 보고해야하며, 재소집 가능하다. 단, 신고는 받았으나 조사 결과 반인권적 행위로 성립이 되지 않은 사건은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기간만 경위와 조사 내역을 알리며, 예외적으로 경각심이나 공개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이유나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타당성은 대책위가 심사함) 공지하지 않는다.

◎ 가해자에 대한 조치

14. 가해자는 실명 공개 사과를 기본으로 하되,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예외로 한다. 사과에는 자신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 내역과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명시해야 한다. 대책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과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분명한 의견 제시를 해야하며, 본인이 잘못을 반성할 적절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15. 가해자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세미나, 강연, 독서, 상담) 교육프로그램 외에 봉사활동 의무 이행도 사안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

16. 반인권적 행위가 성립되는 즉시 의사결정권은 정지되며, 말은 직책은 박탈된다.

17.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때까지 접근금지당할 수 있다.

18. 가해자가 사죄와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거부할 경우 제재의 정도는 심화 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강제 탈퇴, 제명, 영구제명 등이 가능하다. 단, 영구제명에 대해서만 대책위 외에 활동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기타 사항

19.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모욕, 정신적 고통을 주는 추가 행위를 2차 가해로 인정하며, 대책위를 이를 예방하며 적절한 조치(추가 제재 포함)를 취해야 한다.

20. 아수나로 지역모임과 모든 기본적인 활동 단위에서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숙지해야하며, 신입회원 가입시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다. (즉, 신입회원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근본적인 내용을 반대한다면 가입도 불가이다.)

21. 만약, 종결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가해자가 비슷한 종류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초기부터 사죄와 교육프로그램보다 강한 제재가 가능하다.

22.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공식 제재 외에 개인적인 복수나 제재를 불허하며, 그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하지 않으며, 별개의 반인권적 행위로 처리한다.

23. 회원들 개인간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나이주의(나이를 매개로한 차별,모욕등을 정당화하는 권위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벌 차별, 성폭력, 왕따 등을 근절, 예방하는 교육과 내규 준수에 대한 의무는 회원 모두에게 있다.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반인권적 행위 내규 (2007년 3월 3일 제정) | 작성자: 꿈틀이 | 작성일: 2007.03.03.

- <http://cafe.naver.com/asunaro/4656>

■ 개정

[1차 개정: 2008년 말 ~ 2009년 초]

- 2008년 10월 26일 진행된 “아수나로 안의 욕설, 막말 등의 문제에 관한 끝장토론”에서 스칼리(서울지부) 활동회원의 욕설/막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스칼리 활동회원에 대한 대책위 구성과는 별개로, 욕설/막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언어폭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제기 절차에 대해 공지하자고 제안됨.⁹⁾

- 2008년 11월 2일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스칼리 활동회원 욕설/막말 사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으며, 반인권적 행위 내규 개정은 다음 총회 때 논의하기로 결정함.¹⁰⁾

- 2009년 겨울 제 4회 총회에서 내규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앞의 끝장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추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보완이 이루어짐. 추가하기로 결정된 내용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성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게 개정 △ 대책위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해지목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S 씨 등의 이니셜 사용 △ 대책위 구성방식 및 활동기간 △ 대책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공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

참고자료: 2009년 겨울 제 4차 총회 기록

2. 반인권적 행위 내규

- 내규 수정해야함.

- 예전과 비교하면, 가장 큰 변화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이전엔 성폭력을 주로 다뤘으나, 수정 후엔 언어폭력 등 여러 유형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게 함. (차별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하나 싶음.)

- 이의제기 부분 추가해야 함. 2주 안에 이의 제기 들어오면 다시 논의.

- 징계 관련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명 공개 대신 s 씨 등의 이니셜로 사용. 실명은 결과 나온 후 결정에 따라 공개함.

- 다만 나중에 반성하고 돌아오고 싶어할 때, 그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 이번에 낸 개정안은 유연성을 주기 위한 것. 하지만 징계나 이런 사안에는 어느 정도 엄격함도 요구되는 것.

- 대책위 구성과 활동/ 구성은 공지 한 후 자원 받거나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즉석 자원 받거나 함. (후자를 내규 문서에 명시해야?)

신고된 뒤 10일 이내 꾸리기 어려울 듯. 다음 전체회의까지로 변경하거나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하자. ---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하게 전체온라인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위를 꾸릴 수 있게 한다.

- 조사기간은 2개월. 기간 안에 결정, 필요한 경우 전체회의에 얘기해서 연장할 수 있다.

- 신고 들어왔을 때, 가능한 한 대책위를 빨리 꾸린다.

- 제명당한 회원에 대해서 알리는 건, 영구제명일 경우에는 외부에 확실하게 공지해서 공개. 이외에 공개, 공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

9) 아수나로 안의 욕설, 막말 등의 문제에 관한 끝장토론 (10월26일) | 작성자: 공현 | 작성일: 2008.10.30.

- <http://cafe.naver.com/asunaro/13692>

10) 아수나로 전체온라인회의 (11월 2일) 정리 | 작성자: 공현 | 작성일: 2008.11.04. - <http://cafe.naver.com/asunaro/13736>

-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징계의 수위나 대응 방식 등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수정안이 작성됨. 2009년 1월 28일 전체온라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에서의 수정/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수나로 능력상 보장이 불가능한 인권에 대한 예시 추가 △ 반인권적 행위 자체에 대해 간략한 예시 추가 △ “ ‘반인권적 행위’ 는 전반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는 내용 추가, 언어폭력을 예시로 들 △ ‘피해자 중심주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이 폭넓어짐 △ 반인권적 행위 신고 창구 변경 △ 징계에 대한 설명이 상세해짐

참고자료: 반인권적 행위 내규 개정안(2009년 1월 28일) 중 (수정된 부분 밑줄)

- 예를 들어 활동회원의 주거권이 침해당한다고 해서 아수나로나 그 사람 주변의 회원들이 집을 당장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주로 사회권의 범주)에는 그 인권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를 아수나로에서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 내규는 주로 ‘자유권’으로 분류되는 인권들이 침해당하는 경우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 반인권적 행위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성폭력,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 물리적 폭력, 다양한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비인간적 대우 등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것들 외에도 반인권적 행위는 더 있을 수 있다.

- 반인권적 행위는 전반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예컨대 언어폭력 등의 경우에는 그 말에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비하나 차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언어폭력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발화되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ex: 이명박 등)에 대한 뒷담화 같은 경우에는 정상참작한다.

- 반인권적 행위 중에서 성폭력과 같이 이 사회의 반인권적이고 지배적인 인식과 구조가 뿌리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인식’에 기반한 사건 해결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다.

- 반인권적 행위 신고는 전체온라인회의나 지부 등의 회의 안건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거나 즉석에서 제안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 반인권적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지는 않도록 한다.

- 신고된 후 전체온라인회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여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관련자들이 속한 지부의 활동회원과 운영모임의 활동회원, 그리고 그밖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이나 자원자 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3명 이상으로 꾸린다. 인권교육이나 (페미니즘) 상담교육이나 관련된 경험 등,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최대한 참여시킨다.

- 가해자가 사과와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의 정도는 강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일정 기간 활동 정지, 제명, 영구제명 등이 가능하다. 이런 징계는 대책위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제명이나 영구제명에 대해서는 대책위 외에 활동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전체온라인회의나 총회 등)를 통해 결정한다.

[2차 개정: 2011년 중순 ~ 2014년 중순 / 부제: 결정사항에 대한 기나긴 망각의 역사]

- 2011년 여름 제 9회 총회에서 2011년 봄 성폭력사건 대책위 권고안에 대해 논의함.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 대책위에 피해자가 직접 참여 가능 △ 대책위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대책위의 성격에 대한 명시 △ 보고서 제출과 공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함. 또한 대책위가 조사한 결과의 공개 방법과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대책위 운영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이 내규에 담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자료: 2011년 여름 제 9회 총회 결정사항

① 성폭력 대책위 권고안(<http://cafe.naver.com/asunaro/33354> 권고안)

가) 개인징계: <http://cafe.naver.com/asunaro/33355> 참조

나) 반인권적 내규 개정안의 방향 제시: 대책위에 피해자가 원한다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여 관련 지부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대책위에서 징계 권고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다른 지부 활동가들이 포함된 사건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찬성: 15명 반대 1명. 총 16명 가결)

출처: 2011 여름총회 결정사항 정리정리 | 작성자: 진남 | 작성일자: 2011.08.31. - <http://cafe.naver.com/asunaro/33998>

- 2011년 여름 제 9회 총회 이후, 그 누구도 논의했던 내용대로 내규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2014년이 되어서야 공현(수원지부) 활동회원에 의해 발견됨. 2014년 5월 9일, 공현 활동회원이 내규 개정안에 대해 전국논의자랑 또는 전체온라인회의에서의 의결을 구하는 글과 함께 개정안을 올림.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정됨.

△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예시가 바뀜 △ 대책위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 사건조사 후 징계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참고자료: 반인권적 행위 내규 개정안(2014년 6월 8일) 중 (수정된 부분 밑줄)

-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ex: 폭력을 휘두른 권력자 등)에 대한 뒷담화 같은 경우에는 정상참작한다.

- 신고된 후 전체온라인회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여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대책위원회는 관련자들이 있는 지부의 활동회원들을 위주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이나 자원자 등으로 3명 이상으로 꾸린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 구성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인권교육이나 (페미니즘) 상담교육이나 관련된 경험 등,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최대한 참여시킨다.

-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다른 지부의 활동회원들이 함께 검토한다. 반인권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고서에 징계 권고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활동 내용은 모두 피해자와 아수나로에 보고해야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소집 가능하다.

출처: 전은희 또는 전논자 의결을 구합니다. -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 개정 문제 | 작성자: 공현 | 작성일자: 2014.05.09. - <http://cafe.naver.com/asunaro/53478>

- 2014년 6월 8일 전국논의자랑에서 내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위의 내용대로 이탈자만 수정해서 통과하기로 결정됨. ('2014년 6월 8일 전국논의자랑 회의록' 참고)

참고자료: 2014년 6월 8일 전국논의자랑 회의록

1-2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 개정 (발의: 공현)

[안건설명]

- (공현이 모두에게 분노를 느끼다.)
- 2011년 여름 전주(대구가 아니다!)총회에서 새벽까지 토론한 내용(16명 밖에 안되는 이유는 시간이 늘어지다보니 다들 지쳐서)이 반영이 안됨. 피해자가 원한다면 대책위에 참여, 대책위가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3년간 반영이 안됨.
- 시기가 흘러서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뒷담화 예시”에서 이명박이라는 표현대신 포괄적으로 변경한 내용.
- 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라 거기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음. ▶ 전국논의자랑이 전은회 대신 만든거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까지 논의하는 건 무리는 없을듯. (전국논의자랑이니까.) 문제는 준비가 안되서 논의가 어렵다는 것?

[지부의견]

- 없음.

[논의]

- 당시 논의할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 처리방식은 대책위에 앞서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조사를 하고 넘어갔는데.
- 그렇게(대책위에 앞서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처리한 예가 있나?
- 있었다. 그 사건들에서 진술이 엇갈려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서.
- 사실관계 조사도 대책위가 같이 하지 않나?
- 대책위는 어떤 인적 구성으로 꾸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 (있다.) 관련자들이 있는 지부의 활동회원들을 위주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이나 자원자 등으로 3명이상. 피해자가 원할 경우 참여 가능.
- 당시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을 참여시킬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었음.
- 시간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안이다보니.
- 우선은 저번 총회에서 결정된 수준으로 통과 하고, 그 다음에 총회든 다음 전논자든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안 논의를 다음에 준비해서 하는 걸로 하자. 준비가 필요한 거 같다. (결정사항)
- 오자 잡기 : 참여한 -> 참여한
- 공현이 올림.

출처: 6월8일 전국논의자랑 회의록 | 작성자: 파이루 | 작성일자: 2014.06.16.

- <https://nebu.asunaro.or.kr/786157>

- 이후 더 이상의 개정안 없이, 2014년 6월 8일 전국논의자랑에서 의결된 내규를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음.

2-2) 문제점

■ 문제점1: 활동회원들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존재를 모름

상황

- 뉴페와 활동회원들이 내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하나의 예로, 2013년 중순부터 이수나로 활동을 시작한 미야(부산지부) 활동회원은 2015년 TF팀 활동을 하며 팀 내에서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에야 내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함. 내규는 이전에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수나로 내의 공통적인 합의지점인데, 이 합의지점에 대해 모르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상황.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서도 ‘이수나로 지부들과 모든 기본적인 활동 단위에서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숙지해야 하며, 신입회원 가입시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즉, 활동회원이 되려는 사람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근본적인 내용에 반대한다면 가입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내규에 명시된 내용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 이수나로가 내규의 근본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활동회원이 될 수도 있는 상태라는 뜻임. 실제 E 활동회원(창원지부)은 ‘페미니즘은 여성중심적이며 여성우월주의적인 사상이다’는 입장의 글을 내부게시판에 작성한 적 있으며, 다른 활동가들이 그에 대해 반박하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수나로 활동을 그만둠. 현재 이수나로가 내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가입을 막을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빈동(광주지부) 활동회원이 “2014년 광주지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잘 몰라서 어떻게 피해호소를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음. 그리고 이는 뉴페 및 활동회원들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상황이, 피해호소와 징계 등 실제 내규가 활용/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

원인

원인1)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내규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음

위에서 본 미야 활동회원의 사례와 더불어, 창원지부에서는 2015년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도중에 활동을 시작한 뉴페 K가 “계속 무상급식 서명운동 하느라 뉴페 공부모임이나 반인권적 내규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수나로 들어가기 전에 보긴 봤는데 따로 설명해준 적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음. 그리고 뉴페공부모임에서도 내규에 대한 안내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규가 있으니 읽어보라”는 설명 정도만 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이는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내규에 대한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활동회원으로써 승인되기 전이든 이후이든 내규를 접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함.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신입회원 가입시에 내규를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원인2) 내규를 찾아 읽기 힘들 (접근성이 좋지 않음)

- 뉴페가 이수나로를 제일 처음 접하는 공간은 카페인 경우가 많으나, 카페에서 내규를 찾아보기가 어려움. 카페에 접속하면 이수나로 활동에 필요한 글과 유용한 정보 등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카페 대문에 링크를 걸어두고 있으나, 회칙과 내규는 따로 공지되어 있지 않아서 찾아보기가 힘들.

카페 왼쪽의 자그마한 ‘이수나로 약속’ 메뉴에서 찾거나 검색창에 ‘내규’ 라는 단어로 검색해야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수나로 활동을 새로 시작하려는 뉴페 중에 “나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단체의 내규에 대해 모두 알아야겠어!” 하며 내규를 찾아 살살이 뒤져보고 읽는 사람은 웬만해선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

■ 문제점2: 내규가 반인권적 행위 사건에 활용/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상황

-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이용될 일이 거의 없음. 이따금씩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회에서나 내규를 들춰보는 수준이며, 그렇다 보니 활동회원들 사이에서 존재감 또한 없음. 그리고 실제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책위 활동경험이 없는 구성원들만으로 대책위가 꾸려졌을 경우엔 어떻게 활동을 진행할지 감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함. 그리고 내규를 활용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 활동회원들도 내규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쉬우며, 그렇다 보니 뉴페에게도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원인

원인1) 성폭력사건 외의 반인권적 행위 사건에 내규를 참고하고 적용/활용하기 어려움

- 2007년 겨울 제 1회 총회에서 처음 내규를 제정할 때에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폭넓게 다루는 내규를 만들자는 취지로, '반성폭력 내규'가 아닌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제정함.

그러나 현재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사실상 반성폭력내규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대책위를 꾸릴 때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반인권적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 이유로 △ 내규 안에서 성폭력의 개념이 매우 폭넓음 △ 성폭력 사건에만 대책위가 꾸려져 왔기 때문에 다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족 △ 대책위라는 기구 자체에 대한 무거움 △ 다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명시 부족 등이 반성폭력 토크에서 논의됨.

이 중 다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명시가 부족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는데, 내규의 '적용과 범위' 조항 2번 문항에서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성폭력, 언어폭력(욕설, 막말 등), 물리적 폭력, 다양한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비인간적 대우 등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것들 외에도 반인권적 행위는 더 있을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내규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문항 하나를 더 들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18페이지 내규 '적용과 범위' 조항 3번문항 참고), 다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예시 등이 없음.

이렇다 보니 성폭력이 아닌 다른 반인권적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규를 활용/적용하기가 어려우며,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반성폭력 내규 정도로 취급받게 됨.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아래와 같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성폭력뿐만 아니라 인권에 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폭넓은 내용을 담자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우리가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서 성폭력 파트는 있는데 다른 파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의미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이지만 사실상 성폭력 사건 특별내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수나로가 추구하는 인권친화적에 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폭력과 차별에 대해서,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읽어보게 하려면, 덜 어렵게 쓰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내용 자체도 성폭력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들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원인2) 실제 반인권적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 '반인권적 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지부회의 안건/전체온라인회의 안건/내부계시판 글, 댓글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하다. 반인권적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지는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내규 내에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회의 안건 발의/내부계시판 글 또는 댓글 게시는 다른 사람(대리인 등)이 대신 해주지 않는 한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며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방식임. 자신을 드러내며 문제제기하기 어려움/꺼려지는 데다 주변(지부 등)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힘들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내용 부족은 반인권적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게 만들.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엔 전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텐데, 전체에 글로 공유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다른 절차나 방법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양한 피해호소 절차를 마련할 때에도 개인들의 이름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그 방법을 만들 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논의가 진행됨.

-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건이 신고된 이후 전체온라인회의를 통해 대책위를 꾸려야 하며, 대책위는 조사/가해자 활동 정지 및 격리/징계 결정/피해자 치유/2차 가해 예방 등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조사를 진행하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등)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피해자 치유와 2차 가해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렇다 보니 대책위 활동방법은 대책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대책위 운영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대책위 운영방법이 대책위를 꾸릴 때마다 구전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낡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경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내용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이게 맞냐고 묻는 경우. 구전되던 대책위 운영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원인3) 사건처리 방식이 대책위를 소집하는 방법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피해호소 = 대책위 소집요청)

- 내규 내에서는 ‘반인권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사실이 신고된 이후 전체온라인회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여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원회를 꾸린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 외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 보니, 반인권적 행위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호소가 이루어졌을 경우엔 당연하게 대책위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임. 대책위라는 기구가 성폭력 사건(특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꾸려진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피해자 스스로가 ‘대책위를 꾸릴 만큼 사건이 중한 것 같지는 않은데 피해호소와 문제제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할 경우엔 피해호소를 주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이수나로 내에서 대책위가 꾸려진 6번 가량의 반인권적 행위 사건 중에서 성폭력 사건이 아니었던 사건은 1번밖에 없음. (2008년 겨울 폭력사건)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대책위가 꾸려지지 않고 지부차원에서 해결해서 넘어가는 경우 등등 해결방법의 다양한 수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반인권적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상황을 구제받거나 하기 위한 대책위란 장치가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책위가 기능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폭력 대책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원인4) 어려운 어휘 사용

- 일반적으로(특히 운동사회 밖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어(피해자 중심주의, 사회권, 자유권 등)와 어려운 단어(한자어 등)가 많이 사용되었고, 전체적인 문장 구조 자체가 어려운 방식으로 쓰여짐. 내용이 어렵다 보니 평소 틈틈이 읽어보고 숙지하거나, 반인권적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 들춰보기 더더욱 어려움.

이에 대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현행 회칙과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음.

참고자료: 회칙과 반인권적 행위 내규 비교해보기 (각각 내용 일부 발췌)	
회칙	<p>[1] 수줍게 소개</p> <p>1. [이름] 우리 단체 이름은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부릅니다.</p> <p>2. [있는 곳]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 지역에 지역모임이 있습니다.</p> <p>3. [바라는 것]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청소년을 억압하는 사회의 모든 요소에 반대하고 맞서 싸워서 없애거나 바꾸는 것. 청소년의 모든 인권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청소년을 존중 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것. 청소년이 주체적인 저항과 운동, 직접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인권을 얻어내는 것’ 등입니다.</p>

	여기서 인권은 단지 조약이나 법률 문장에 쓰여 있는 권리, 멈추어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계속 진보하고 변화하며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일 거예요. 조금 더 거창하고 자세한 목적이나 방법론은 “기본원칙”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행위 내규	<p>◎ 적용과 범위</p> <p>1. 이 내규에서 반인권적 행위란, 아수나로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한 경우를 뜻한다. 단, 아수나로나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능력상 그 보장이 불가능한 인권은 이 내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활동회원의 주거권이 침해당한다고 해서 아수나로나 그 사람 주변의 회원들이 집을 당장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경제적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주로 사회권의 범주)에는 그 인권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를 아수나로에서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 내규는 주로 ‘자유권’으로 분류되는 인권들이 침해당하는 경우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p>

조금만 읽어보아도 회칙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비해 훨씬 더 쉬운 단어와 문장구조로 쓰여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아래와 같이, 말이 어려워서 감을 못 잡는 경우도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말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섹슈얼팀에서도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풀어서 설명하는 공부자료를 만들었을 정도로. 너무 개념화가 많고..”

이는 회칙은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직접 작성하면서 일부러 쉬운 말로 풀어 쓰기 위해 노력했으나,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처음 발의되었을 당시 타 단체(인권운동사랑방)의 내규를 참고하며 많은 내용을 베껴 왔기 때문임. 타 단체의 내규를 참고하여 작성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은 카페에 남아 있지는 않으나,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공현 활동회원이 말한 부분. 또한 반인권적 행위 내규 1차 제정안과 인권운동사랑방의 내규를 비교해 봐도, 비슷한 부분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참고자료: 아수나로 내규 초안과 인권운동사랑방 내규 비교 (각각 내용 일부 발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반인권적 행위 내규 (첫 제정안 / 2007.03.03.)	인권운동사랑방 -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4차 개정안 / 2010.10.23)
3.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말한다.	제1조 정의 성폭력은 성에 기반을 둔 모든 육체·정신·환경적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인식'에 기반한 사건 해결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다.	제4조 피해자의 존중 1.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항상 존중된다.
7. 반인권적 행위 신고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며, 다만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지는 않도록 한다.	제3조 사건의 신고 3.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의 2006년 ~ 2007년 당시 내규를 인용해서 비교하려 했으나, 개정 전 내규를 찾을 수 없어서 현행 내규로 대체함.)

2-3) 반성폭력문화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평가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성폭력 담론뿐만이 아닌, 다양한 반인권적 행위 전반에 대해 다루며 대책을 이야기하는 폭넓은 의미의 내규로서 작용하고자 만들어짐. 그러나 현재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나 대책위에서 들춰보는 사실상 '성폭력사건 특별내규'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되었으며, 피해호소가 이루어진 성폭력사건을 제외한 폭넓은 반인권적 행위 사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땐 내규를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마저도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으로만 사건을 처리하게끔 명시되어 있어서 대책위를 통하지 않은 사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적혀 있는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식마저도 상세하지 않아 대책위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렇듯 실효성이 없다 보니 활동회원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으며, 존재감이 없으니 새로 활동을 시작한 뉴페에게도 인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짐. 그러한 상황들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 왔으니, 다수의 활동회원들이 내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아수나로의 반성폭력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아수나로가 반성폭력 내규가 아닌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제정했던 취지를 살리며, 인권친화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규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개편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지금과 같이 '반인권적 행위'의 예시들(성폭력, 언어폭력 등)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아수나로에서 지향하는 인권의 가치들을 명시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반성폭력 공부모임

3-1) 현황

■ 시작

- 언제부터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아수나로에서는 초창기(2006년)부터 단체 내에 서 어떤 것을 반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¹¹⁾ 다른 단체의 반성폭력 내규 등을 참고하며 논의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 또한 등장한 것으로 보임.

- 2006년에는 한 활동회원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진행하는 반성폭력교육 공지를 아수나로 카페에 올리고, 활동회원들이 함께 참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함.¹²⁾

아수나로 내에서 직접 준비해서, 혹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했다는 등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음. 그리고 2007년 겨울 제 1회 총회에서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반성폭력 페미니즘 세미나를 진행하자고 제안되었으나, 제안된 이후 주제 선정/강사 섭외 등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됨. ('2007년 1월 총회 기획안' 참고)

참고자료: 2007년 1월 총회 기획안

2. 총회 프로그램에 대하여

총회 자체는 한 해 평가 및 계획, 그리고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미리 합의된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는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 회원들이 모이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1) 반성폭력 페미니즘 세미나

일단 이 세미나 같은 경우 2가지 필요성에 의해 제기 되었습니다.

하나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정하는데 있어 왜 페미니즘의 반성폭력 이론

혹은 원칙을 받아들여야 하는가/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페미니즘 진영 자체도 최소한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입장차가 있고, 어떤 특정 진영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 페미니즘 일반

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일 전까지 아수나로 총회에 참석가능하다는 분이 10명도 안 되어서

과연 추진되고 있는 섭외를 끝까지 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왜냐하면 차비 조로

돈은 드려야 하고, 강사분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과 토론식으로 할 준비가 되는

지 등등의 문제로)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어쨌든 10명만 되면 추진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에 대해 의견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페미니즘 진영의 교육담당 강사분을 섭외하는게

힘들어진다면, 미리 최소한의 이론 소개 자료를 짜와서 그를 바탕으로 난상토론

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아수나로 총회에 관한 간략한 기획안 | 작성자: 꿈틀이 | 작성일: 2007.01.14.

- <http://cafe.naver.com/asunaro/3902>

초기에는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아수나로 내에서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외부단체의 반성폭력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11) 반성폭력 내규의 기본 원칙과 페미니즘(여성주의) 수용 문제 | 작성자: 꿈틀이 | 작성일: 2006.08.29. - <http://cafe.naver.com/asunaro/2290>

12)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교육 | 작성자: 공현 | 작성일: 2006.12.13. - <http://cafe.naver.com/asunaro/3556>

2007년 초에는 코이(서울지부) 활동회원이 성폭력가해자로 지목되고 문제제기되었을 때, 서울지부 내에서 논의 후 가해자에게 반성폭력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음.¹³⁾ (가해자는 사과문을 게시하며 사과문에서 “빠른 시일 내에 타 단체 혹은 당에서 시행하는 반성폭력교육을 이수하겠다”고 말한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활동을 그만둠.¹⁴⁾)

2007년 말에는 길손이(울산지부) 활동회원이 여고에서 강연을 진행한 뒤 학생들의 사진을 올리자 참살이(울산지부) 활동회원 등이 “미인은 생각하는 것도 똑똑하다”, “여고가 좋다” 등 ‘여고생’을 대상화하는 댓글을 달음.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총회 때 강사를 섭외해서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거나, 누군가 발제문을 써서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된 적 있으나 이후 총회에서 관련 이야기를 진행한 기록은 없음.

2008년 9월 24일에는 서울지부에서 ‘페미니즘 더블S’라는 이름의 공부모임이 진행됨. [페미니즘의 도전]과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이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폭력, 성매매, 가부장제와 가사노동 분담 문제, 아수나로 서울지부의 남성적인 대화방식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페미니즘 더블 S 기록 참고)

참고자료: 페미니즘 더블 S 기록

더블S에서

사람 : 엽건 또또 난다 공현 동소심(곤양이) 미상 주맹이 무명

첫 시작. 성매매 성폭력 등 이야기가 나옴

-페미니즘의 도전에서는 위안부 이야기가 기억에 남음. 위안부 문제를 민족-민족 관계로 보고 여성인권 문제로 보지 않는 한국 사회...

- 성매매 뿐 아니라 여성 상품화나 대상화에 대한 비판도 필요함.

미니스커트 논쟁 - 미니스커트 등을 입는 것의 욕망을 사회적/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

-성매매 여성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캠페인 비판. 성매매 문제를 가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성매매 반대 캠페인 때도 사람들이 “당신 딸이면...” 많이 했음. ---> "딸이 아니면 해도 되나?"

- 성폭력, 가족. 모두 권력 문제로... 가정은 권력구조.

가족 이야기

- 청소년인권운동에서 가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페미니즘을 참고해야...---집에서 늦게 들어가고 집회 나간다고 압박 들어옴.

- 가족을 화목한 공간이나 혹은 회복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안 보고 운동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으로 봤으면. 개별적인 집안에서의 운동은 무리가 있다.

- 무명의 투쟁 사례. 동생과의 돈 연대. 엄마와 여성주의 공부 등. 새로운 틈.

- 가정 안에서 각각 투쟁하기에는 청소년이 너무 약하다. ... 예컨대 집단적인 가출이라거나 제도적인 요구라거나... 새로운 가정 틀..

- 공현이 아수나로 서울지부 안에서 가부장의 역할이라는 주장 제기...::;

(중략)

가사노동, 가부장, 가족임금 이야기

- 남성이 설거지 같은 걸 안 해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여성이 설거지를 많이 하는 착취 관계,

- 명절에 집에서 가사노동... 남성 청소년(손자?)이 나서서 하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벽은 견고함:: 때로는 공략도 필요하지만 낙후를 기다려야 할 때도 짬.

- 가사노동에서도 착취가 일상화되어 있다.

13) 아수나로 서울지부 코이 사건 보고 | 작성자: 공현 | 작성일: 2007.03.06. - <http://cafe.naver.com/asunaro/4709>

14) 늦었습니다. | 작성자: 코이 | 작성일: 2007.03.08. - <http://cafe.naver.com/asunaro/4747>

- 주명이 집에서 아버지가 가사노동을 다 함. --> 이걸 남성이 착취된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문 제기
- 가정 안에서 착취 문제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음. 맞벌이 여부에 따라, 집 경제에 따라... 무엇을 '착취'라고 부를 것인가, 다양한 관계와 영역 고려해야.
- 가정이란 자체가 문제지 ㅋㅋ 남성이건 여성이건 착취당해, 라는 몰타기 의견
- 가족 안에서 누가 경제적인 권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
- 한 가정에 소득이 오르면 남성이 부양하는 월급이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함. 가족 임금제라고 부르는데... 청소년의 노동은 용돈을 벌으려는 개념이고 30~40대 노동은 생계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 여성의 임금과 청소년의 임금이 저임금화되는 이데올로기

아수나로 서울지부 내 대화방식

- 페미니즘 얘기를 아수나로에 적용해보면 아수나로가 너무 남성적인 듯. 논쟁 방식, 공격적...
- 스스로 어떤 대화형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지적해주기 바란다.
- 남의 말을 잘 듣고 언성이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모두들 말을 잘 안듣고 언성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생각을 해보면 화낼때 화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 남성적인 면이라면 일방적인 대화가 문제라고 생각.
- 내가 맞다고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하는 동안 언성이 높아져서 싸우는 것 같다.
- 대화 방식이 공격적이 되거나 문제가 될 때 지적하고 잠시 중단시키는 어떤 제스처...?
- 아까도 게로게론이 울먹이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갔는데. 이런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자.
- 우리 페미니즘을 공부를 많이 하자;;;

출처: (뒤늦게) 아수나로 서울지부 더블S 첫 번째 페미니즘 정리 | 작성자: 공현 | 2008.10.05.

- <http://cafe.naver.com/asunaro/13420>

■ 회칙에 명시된 시점/계기

- 2011년 봄, 아수나로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함. 사건의 대책위는 아수나로의 모든 지부가 반(성)폭력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회칙이 개정될 것을 권고했으며, (2011년 봄 성폭력 사건 대책위 권고안 참고) 2011년 8월 제 9회 총회(전주)에서 회칙에 “아수나로 모든 지부는 남성중심적 문화를 없애고 반(성)폭력적 분위기(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반성폭력에 관한 모임을 최소 연2회 이상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참고자료: 2011년 봄 성폭력 사건 대책위 권고안

아수나로 전체에 대한 권고사항

1. 회칙개정에 대한 권고

대책위원회는 아수나로의 모든 지부가 반(성)폭력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회칙이 개정될 것을 권고한다. 반(성)폭력 관련 교육은 인권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감수성과 실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며 연 2회 이상의 횟수의 명시는 아수나로 지부들의 자율적 운영방침과 대치되는 면이 없잖아 있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가해자 - 피해자 분리 및 2차 가해에 대한 경계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대책위를 꾸리거나 징계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해결 과정 전체에 있어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가 피해경험으로부터 치유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조력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주된 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아수나로 모든 구성원은 가해자-피해자 간 온-오프라인 공간 분리에 대해 이해하고 조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이 개인적 차원의 상처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제로 인해 생겨난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모든 아수나로의 구성원은 더 이상의 2차 가해 및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고 반성폭력적이며 인권적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3. 적극적 노력에 대한 촉구

아수나로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에 둔감한 문화를 개선하고 반성폭력 문화 만들기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직접 관련된 지부에서는 피해자 상담 혹은 치유를 위한 노력을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아수나로 전체적으로 반성폭력에 관한 공부모임 프로그램 혹은 자료, 활동가를 개발 혹은 양성해야 할 것이다.

출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권고안 | 작성자: 검은빛 | 2011.08.12. - <http://cafe.naver.com/asunaro/33354>

■ 진행현황 - 전체

- 2010년 7월 제 7회 총회(부산) 첫째 날 총회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주의 교육,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함. 반성폭력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진행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011년 8월 제 9회 총회(전주)에서도 첫째 날 반성폭력 워크숍을 진행함. 이때 역시 반성폭력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진행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전주 총회 마지막 날 총회논의가 끝난 때부터 1박 2일간 '반성폭력 씨앗돋는 워크숍'을 진행함. 총회 참가자들에게 미리 참가 신청을 받음. 앞으로 아수나로 내 반성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으며, 워크숍 참가자들이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를 만들기로 결정해서 자료를 만들.
- 2010년~2011년 총회 이전/이후에는 전체 차원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한 적은 없음.

참고자료: 아수나로 내 전체 차원 반성폭력 공부모임 현황		
날짜	장소/시기	내용
2010.07.30	제 7회 총회(부산)	진행자: 난다(수원지부) 1) 여는 시간: 아수나로에서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 / 없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쪽지에 써서 함께 말함 2) 토론: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른 것 아니냐'는 말 등, 기존 사회의 주류적 질서와 기준에 반박하기 3) 성폭력 가상 사례 속에서 스스로가 대책위의 일원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할지 이야기
2011.08.05	제 9회 총회(전주)	진행자: 진냥(대구지부) - PPT를 보며 전반적인 반성폭력에 대한 이야기(성폭력의 정의, 성차별 등)를 진행
2011.08.07 ~2011.08.08	제 9회 총회(전주) 끝난 뒤 밤시간 + 그 다음 날	진행자: 진냥(대구지부) - '반성폭력 씨앗돋는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대구지부 진냥이 기획, 진행함 - 아수나로 내 반성폭력적인 문화를 듣게 만들 수 있는 '반성폭력 씨앗 활동가'를 양성하자는 목적으로 기획 -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피해자중심주의, 가해자 교육, 성폭력 관련 법률 등에 대해 이야기함 -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 공부모임 자료를 만들기로 결정함. (겨털수다회, 청바지를 욱하라!) - 만들어진 '겨털수다회' 자료는 2011년 9월 서울지부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로 사용됨. '청바지를 욱하라' 자료는 만들어지지 않음.

■ 진행현황 - 지부별

- 2013~2014년 2년간 지부별로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10개지부 중 공부모임을 2년간 한 번이라도 진행한 적 있는 지부가 3군데인 것으로 나타남. (TF에서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인천지부에서 11월, 12월에 공부모임을 진행해서, 공부모임을 진행한 지부는 총 4군데가 됨) 그리고 그 중에서, 회칙대로 1년에 두 번 이상 공부모임이 진행된 곳은 수원지부 한 곳 뿐이었음.

- 대부분의 지부들은 공부모임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로 ‘사람이 없고 역량이 부족함’,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등을 꼽음.

참고자료: 2013~2014 지부별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상황 기록 (진행여부)		
지부	진행여부	진행되지 못한 이유
광주	한 번도 못함	2013년: 사람이 없었음 2014년: 공부모임이 의무사항이란 사실을 몰라서 뉴페공부모임만 진행. 다른 활동들에 치이다 보니 할 시간도 없었음
부산	한 번도 못함	무응답
서울	1년에 1회씩만 진행	하지 말아야겠단 별도의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못 챙기고 흐지부지 넘어감. 당시에 파토 분위기가 엄청 불고 한 달 넘게 전체회의를 못함.
수원	1년에 2회씩 진행	
인천	2014 하반기 2회 진행	2014년 연말에만 공부모임이 진행됨. 그 전에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응답 (2014년 여름 성폭력사건 대책 중 하나가, 가해자를 포함한 인천지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이었음)
창원	2014년 1회 진행	2013년 초부터 2014년 초까지 쪽 구성원이 세 명이였음. 해야지 해야지 했지만 자주 일정이 핑크남. 신규회원이 2014년 봄에 들어오고, 인천지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성폭력대책위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빼먹지 말자고 강조한 후에야 2014년 10월에 공부모임을 한 번 진행함.
구미(준)	한 번도 못함	사람이 없었음
대전(준)	한 번도 못함	준비모임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만큼 인원이 많지 않아 지부지원팀인 루블릿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판단함.
성남(준)	한 번도 못함	준비모임으로 승격(14년 3월 30일 전운회) 이후로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해질 때까지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보류하기로 결정
울산(준)	한 번도 못함	사람도 없고, 의무사항이란 사실 자체를 몰랐음

- 진행된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반성폭력에 대한 이야기(페미니즘의 역사, 성폭력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정의,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등)와, 반인권적 행위 내규, 사례 토론, 성폭력사건 대처법 등이 있었음.

참고자료: 2013~2014 지부별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상황 기록 (내용)			
지부	날짜	주제	내용
서울	2013.07.07	전반적인 반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부 내 활동회원으로 인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해서 대책위에서 진행한 공부모임. 가해자가 소속된 외부단체(청소년노동조합 준비모임, 인권교육센터 '들')의 구성원들도 최대한 많이 참여함 -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한남, 양미가 진행을 맡음 - 페미니즘의 역사, 피해자중심주의,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등 전반적인 반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 - 반성폭력에 대한 PPT를 본 뒤 참가자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 - 2015 반성폭력 토크에서 '아수나로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2014.06.28	1) 피해자 중심주의 / 2차가해 2) 섹드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가지 주제로 공부모임을 진행함. - 주제별로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수원	2013.07.14	전반적인 반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에서 준비, 수도권지부 합동으로 진행. 수원지부와 의정부지부 참가 - 진보신당 성정치위원 토리를 외부강사로 초청함 - 성폭력의 정의, 성적 자기결정권,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등 전반적인 반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
	2013.12.25	반인권적 행위 내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규를 함께 읽으며 내규가 만들어진 경위, 내규 내용 등을 설명 - 아수나로 내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례들을 각색, 어떤 것이 성폭력이고 어떤 것이 아닐지 등에 대해 사례토론 진행
	2014.10.18	페미니즘 책 읽기	- 함께 '행복한 페미니즘'을 읽고 토론을 진행
	2014.11.16	페미니즘 책 읽기	- 함께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을 읽고 토론 진행
인천	2014.11.29	지부 내 성폭력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부 내 성폭력사건이 발생해서 대책위에서 진행한 공부모임 -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대처가 늦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있으면 좋을지 이야기함. 다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대처가 늦어졌으니, 앞으로를 위해 성폭력사건 대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옴.
	2014.12.20	대책위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부 내 성폭력사건이 발생해서 대책위에서 진행한 공부모임 -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논의함.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
창원	2014.10.26	전반적인 반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 등 전반적인 반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 - PPT를 보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3-2) 문제점과 원인

■ 문제점1: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상황

- 위에서 서술했듯이, 회칙상 모든 지부는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6개월에 최소 한 번씩 진행해야 하나, 거의 진행되지 않음.

원인

원인1)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내부사업

- 공부모임이라는 내부사업 특성상, 진행했을 때 당장 드러나는 성과가 거의 없고,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이슈파이팅, 행사준비 등)에 비해 '해야 한다'는 부담과 긴장감이 덜하며, 관심과 중요도에서 밀리기 쉬움. 그렇다 보니 반성폭력 공부모임뿐만 아니라, 공부모임들은 전체적으로 일정이 밀리거나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음. 하나의 예로, 인천지부에서는 장애인권, 예세며, 채식 등 다양한 주제로 공부모임을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채식 공부모임만 한 번 진행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된 바 있음.

원인2) 반성폭력 공부모임 지원, 독촉 등 챙기는 주체가 없었음

- 2012년에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지부별로 반 년당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회칙을 개정된 이후, 지부별로 이것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2014년 말에 TF에서 조사를 진행했을 때에야 수면 위로 떠오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지어 지부들 중엔 공부모임 진행이 의무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곳들도 있었음. 이는 그동안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을 점검하고 챙기는 주체가 없었음을 뜻함.

원인3) 활동회원들이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 대부분의 지부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로 '사람이 없고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꼽았음. 그러나 지부들이 공부모임을 진행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진행된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TF에서는 지부들 중 대표적으로, 공부모임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서울지부와 창원지부를 살펴보았음) 서울지부는 2013년 하반기에 다섯 가지의 활동¹⁵⁾을 진행했으며, 창원지부는 2014년 상반기에 세 가지의 활동¹⁶⁾을 진행함. 지부 한 곳당 한 반기 동안 진행된 사업이 각각 3개에서 5개 사이로,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제 16회 총회(2015년 1월)에서 가졌던 [2014년 지부활동 발표회]의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각 지부에서 작성한 2014년 활동 평가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과 운영에 대한 비판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음. 페미니즘 공부모임을 진행했던 수원지부의 평가글에서는 진행된 공부모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부들의 평가글에서는 반성폭력 공부모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이는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다른 사업과 운영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으며, '꼭 해야 하는', '진행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점검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뜻함.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복합적인 이유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도 함. (문제점4 참고)

■ 문제점2: 반성폭력 감수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지 못함

상황

- 활동회원들에게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이 이루어짐. 2014년 TF에서 진행한 활동가인터뷰에서도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공부모임에서 뻔한 이야기들만 나오거나 사람들과의 뒷풀이 자리 등에서 이미 나왔던 고민들이 공부모

15) 19금 전문 리뷰 블로그/19금의 날/뉴페의 날/학생의날 신문/제도화 이후 준비 세미나 준비팀

16) 경상남도 청소년 토론회 입방정/‘학생은 학생답게’ 포스터 붙이기 캠페인/진주외고 학생인권침해사건 대응

임을 통해 부상되거나 하다 보니 자신의 감수성을 키우는 데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음. (2014 TF 활동가인 터뷰 참고)

참고자료: 2014 TF 활동가인터뷰

“...반성폭력 공부모임도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아는 내용이 많거나, 내가 그 공부모임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진행에 도움을 준 경우가 많아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들이, 혼자서나 아니면 다른 뒷풀이 자리에서 고민하던 문제들이 그 공부모임을 통해서 부상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 때는 ‘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하고 들을 수 있지만은 나 자신의 고민을 위해서는 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출처: [2014 TF팀] 활동가인터뷰 / 수수 | 작성자: 히포(윤쓰리) | 2015.01.18. - <https://nebu.asunaro.or.kr/1080007>

원인

원인1) 공부모임과 지부문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함

-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이루어진 뒤에 주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공부모임이 끝난 뒤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음.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활동회원들의 고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외당지 않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공부모임이 끝나버리곤 함. 또한,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공부모임도 최근(2014년 12월)에야 진행되기 시작함. 이는 공부모임 내용이 활동/문화와 연결되지 않아서 활동회원들에게 외당지 않으며, 실효성 또한 없었음을 뜻함.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난다(수원지부) 활동회원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공부모임 안의 내용들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건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것 같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건 수원지부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룰 때, 수원지부 멤버들이 고민을 꺼낼 수도 있고, 각자 경험을 갖고 얘기하면 공부모임 진행이 풍부해진다는 생각이 듦. 그런 점은 좋은데, 그때 그 시간에만 집중하고 거기서 한 고민들이 공부모임 안에서만 머무는 것 같다는 고민도 있었음.”

원인2) 공부모임을 진행할 때, 진행자의 역량과 지부 분위기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고 있음

- 반디팀에서 거의 동일한 교육자료로 2015년 5월 대전지부, 6월 서울+인천 합동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했지만, 대전지부에서는 한 시간만에 끝난 공부모임이 서울+인천에서는 세 시간씩 이야기가 진행된 적이 있었음.^{17) 18)} 같은 자료로 공부모임을 진행해도 참가자와 지부 분위기에 따라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이야기를 이끌어내거나, 이야기가 나오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참여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음.

-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원이 많은 지부(신생지부 등)에서 공부모임이 진행될 경우,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 이는 뉴페나 활동회원들이 사회(특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해야 한다고 학습되었거나, 또는 권력자의 주장/교육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해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됨. 이런 기존의 학습/경험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수나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위기에만 의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진행자가 이야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엔, 반성폭력에 대한 자료를 보고 진행자에게 설명을 듣기만 하고 참가자들에게서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채 ‘좋네요 짹짹’ 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공부모임이 되어버리기도 함. 진행자 또한 사회에서 위와 같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공부모임 진행을 잘 하는 노하우 공유 등, 진행을 맡는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17) 6월14일 반디팀 회의 | 작성자: 수수 | 2015.06.14. - <https://nebu.asunaro.or.kr/1266797>

18) 2015.07.01 반디팀 회의록 | 작성자: 히포(윤쓰리) | 2015.07.02. - <https://nebu.asunaro.or.kr/1272055>

■ 문제점3: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을 위한 콘텐츠 자체가 부족함

상황

- 반성폭력 토크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다른 공부모임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하다. 뉴페공부모임은 ppt도 많이 올라오고, 예전 자료도 엄청 많은데,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진짜 없다”고 평가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뉴페공부모임 등 다른 공부모임에 비해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뉴페공부모임과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비교해보았을 때, 뉴페공부모임 자료는 모두 이수나로 내에서 직접 만든 것이며 2014년까지 18개 가량이 제작되어 카페와 내부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음. 하지만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는 8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1개는 이수나로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외부 단체/외부 강사의 자료를 퍼온 것임. 그리고 위의 ‘공부모임 진행상황 기록’에서 보았듯이, 공부모임용 읽기자료를 따로 만들거나 구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페미니즘 책을 읽고 공부모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수나로 내에서 직접 자료를 만들지 않고 외부자료를 사용해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하는 빈도는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음.

- 반성폭력 토크에서는 “뉴페공부모임을 반성폭력 공부모임보다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뉴페공부모임 자료가 더 많은 것일까”라는 이야기가 나옴. 그러나, 자료 수를 살펴보면 뉴페공부모임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년당 평균 3.6개 정도의 자료가 만들어졌으나, 이수나로 내에서 직접 만든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는 2011년 8월부터 1년당 평균 1.75개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음. 시작 시기의 차이보다는, 1년당 만들어지는 자료 수 자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 콘텐츠 부족의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자료: 이수나로 내 뉴페공부모임 자료 리스트 (~2014)

게시일자	지부	글 제목	게시자	자료 위치
2010.07.17	전체	이수나로 뉴페 공부모임 활용 자료 :: 이수나로에 대한 기본 소개!	공현	카페
2010.07.17	전체	이수나로 뉴페 공부모임 활용 자료 ::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허접 운영 개념도	공현	카페
2010.07.17	서울	서울지부뉴페공부모임자료최종본이라는...	공현	카페
2011.07.04	수원	수원지부 뉴페를 위한 가이드라인(잠정 완성)	호야	카페
2012.02.18	수원	[수원지부뉴페공부모임자료]학생인권쟁점토론	난다	카페
2012.04.15	부산	뉴페공부모임자료?	고양이	카페
2012.04.03	서울	뉴페공부모임자료-유월,지효라쉬미에서ㅋ_ㅋ	지효	내부게
2012.09.11	서울	2012년9월7일이수나로서울지부뉴페공부모임ppt	미소지음	카페
2012.03.05	인천	인천뉴페공부모임ppt자료초안	아리데	내부게
2012.11.15	서울	뉴페공부모임준비자료	윤쓰리	카페
2012.11.26	수원	2012/11/24수원지부뉴페공부모임때사용했던파포2	플린	내부게
2012.12.20	인천	2012년12월15일인천지부뉴페공부모임자료ppt	태완지	카페
2013.03.30	의정부	의정부지부뉴페공부모임자료입니다.	필부	카페
2013.11.06	부산	이수나로부산지부공부모임자료	고양이	카페
2014.02.08	수원	[뉴페공부모임자료]이수나로문화와운영맛보기OX퀴즈!	공현	내부게
2014.07.24	성남 (지부지원팀)	[지부지원팀]뉴페공부모임자료 140724리뉴얼버전	루블릿	내부게
2014.05.09	수원	수원지부뉴페공부모임PPT자료	공현	내부게
2014.05.28	서울	서울지부뉴페공부모임자료집	필부	내부게

참고자료: 이수나로 내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 리스트 (~2014)					
게시일자	지부	글제목	게시자	자료 위치	내부제작여부
2010.07.29	전체	2010여름총회 - 반성폭력 교육	난다	내부게	내부제작
2011.06.11	전체	[자료글]여성주의&반성폭력 공부모임자료	진냥	카페	내부제작
2011.07.30	전체(총회)	반성폭력 씨앗 돕는 워크샵 자료집	진냥	카페	내부제작
2011.09.04	서울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집	공현	카페	내부제작
2012.09.20	서울	[반성폭력공부모임] 자료올림니당~~!!쪼옥봐주시라요*^^*	u_nee0 (윤희)	카페	외부강사 제작
2014.06.28	서울	반성폭력 워크샵 관련 자료 - part.2 섹드립	덤코	내부게	내부제작
2014.11.30	인천 (대책위)	2014.11.29 인천지부 반성폭력 공부모임	히또	내부게	내부제작
2014.12.20	인천 (대책위)	[대책구역] 141220 인천지역모임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	루블릿	내부게	내부제작

원인

원인1) 반성폭력 주제에 대한 부담

- 뉴페공부모임은 활동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과 주장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공부모임이니 자료를 만들기도 비교적 쉽고, 예전에 만든 자료를 재사용해도 됨. 하지만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 분야의 내용을 써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의 난이도가 높음.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공부모임에 참가해야 하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에 썼던 자료를 재사용하기도 어려움. 그런데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로 공부모임을 진행하기도 어려움.

원인2)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음

- 타 단체의 자료를 참고하려 해도, 이수나로와 맞지 않아서 참고하기 어려움. 페미니즘은 이성애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상당히 이성애중심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의 이야기에 맞춰져 있음. 이수나로는 일반적인 회사나 타 단체와는 달리 대표/직급이 없으며 일반적인 사회에서보다 성소수자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 대표/직급이 있으며 권위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 맞춰 만들어진 반성폭력 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참고해서 이수나로의 공부모임에 반영하기 애매한 지점들이 있음.

-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수나로는 구조상 타 단체의 반성폭력 자료를 참고하기 힘들다는 논의가 있었음.

“타 인권단체(민우회 등)에서 진행된 반성폭력 교육 자료 같은 것들 중 참고해볼만한 게 있지 않을까. ▶ 서울지부에서 한번 민우회 같은 곳 활동가를 강사로 초대해서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했었는데, 정말 구렸음. 부장님 성희롱 이런 거 이야기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느낌인데, 상당히 이성애중심적이었음. 이수나로랑 너무 다른 문화와 케이스를 가지고서 이야기 하다 보니 이수나로 활동가들이 거기에 공감되거나 몰입되거나 고민하기가 너무 어려움. 그런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게, 우리는 부장님도 없고 성소수자가 더 많고.. 이성애자가 수적으로 소수자였던 때도 있었고.. ▶ 우리는 우리가 시작부터 해야 할 듯.”

원인3) 공부모임 방식/프로그램 선정의 어려움

현재 이수나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성폭력 공부모임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책임기, 개념설명 등 기초적인 감수성과 지식을 쌓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례토론, 대책위 시뮬레이션 등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토론하는

방식임.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은 각각 문제가 있음.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책읽기 등 감수성을 키우거나 반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공부모임은 기초적인 감수성/지식을 쌓을 수는 있으나 활동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끝나기 쉬움. 그리고 사례토론/대책위 시뮬레이션 등 사람들을 실제 상황에 몰입시키는 공부모임은 참가자 자신의 일상에 와닿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감수성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워 자칫하면 폭력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단어만 안 쓰면 된다’고 학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짐. 이와 같이 현재의 공부모임 방식은 각각 문제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활동회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4: 활동회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의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며 부담을 느끼고 있음

상황

- 활동회원들에게 ‘함께 활동하는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수성을 키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 회칙에 적혀 있는 의무 사항이라서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다가옴. 현황에서의 ‘지부별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상황 기록’(37페이지)을 살펴 보면, 공부모임을 1년에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9개 지부 중 두 곳이 ‘공부모임이 의무사항인지 몰라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그리고 ‘의무사항인지 몰라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회칙상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재도 회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원인

원인1) 주제 선정의 어려움

- 활동회원들이 공부모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려면 스스로가 고민되는/애매한 지점들을 공부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아수나로 특성상 공통되는 공감대를 찾아서 주제로 선정하기가 힘들. (아수나로는 성소수자/비성소수자/성폭력피해생존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소수자 중에서도 동성애자/양성애자/젠더퀴어/무성애자/에세머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형성되어 있음)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활동회원들은 공부모임에서 진행된 내용을 진부하고 뻔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공부모임을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됨.

원인2) 활동회원들의 감수성/지식/정보의 격차로 인한 어려움

- 오래 활동하며 여러 담론을 접한 활동회원과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활동회원이 갖고 있는 감수성에 차이가 큼. 하나의 예시로, ‘페미니즘은 여성중심적이며 여성우월주의적인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활동회원도 있었음. 이렇게 감수성의 차이와 지식/정보의 격차가 크다 보니 반성폭력 공부모임에서 토론을 진행하기가 힘들며, 모두에게 맞는 주제를 선정하기도 힘들. 같은 내용으로 공부모임을 진행해도 어떤 활동회원은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느끼고, 어떤 활동회원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 대다수의 활동회원들은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만을 반복하다가 공부모임이 끝나게 됨.

- 감수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함께 반복적으로 공부모임을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야 하는데, 기존의 활동회원이 활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활동회원이 들어오는 회전율이 높고 멤버가 빨리 바뀌다 보니, 오래 활동한 회원과 새로 들어온 회원의 감수성의 차이를 좁히기가 힘들. 주로 새로 들어온 회원들에게 맞춰 공부모임 내용을 정하다 보니, 위에서 보았듯이 오래 활동한 회원은 계속해서 저번에 들은 적 있는 주제의(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공부모임을 듣게 되고, 공부모임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됨.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아수나로는 지역별로 조금씩 사람이 있고 사람 교체가 엄청 빠르는데, 거기서 공부모임 코스 ABC를 굴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 계속 초심자 코스만 굴리고 있고, 그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3-3) 반성폭력문화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평가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해도 참가자 개인의 감수성을 키우는 역할이 수행되지 못했으며, 공부모임 안에서 나온 고민과 이야기를 일상에 접목시키지 못함. 그나마 반성폭력의 개념이나 성폭력사건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은 하고 있으나, 지부별로 공부모임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서 이 역할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아수나로 내 반성폭력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됨.

그러나 새로 활동을 시작한 회원에게 반(성)폭력의 담론에 대해 설명하거나, 성폭력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일임. 기존에 활동을 해온 회원들 또한 지부 내에서 반(성)폭력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감수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함.

따라서 주제에 대한 부담감/어려움/거부감을 어느 정도 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힘으로써 콘텐츠의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공부모임”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인권/반인권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우리는 반성폭력 토크를 통해서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활동회원들의 다양한 고민지점들을 공부모임에 녹여내야 실효성 있는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4) 섹슈얼팀

4-1) 현황

■ 팀의 운영

[2012년 상반기: 섹슈얼팀의 탄생]

- 2012년 겨울 제 10회 총회 때, 서울지역모임에서 '섹슈얼위원회 구성'을 총회안건으로 제출함. (섹슈얼위원회 안건발의글 참고) '각 지부 내 성폭력적, 반여성주의적 분위기나 사건에 대해 견제하고, 상담을 받는 상시적 기구'를 목표 및 역할로 하는 '섹슈얼팀'이 처음으로 구성됨. 지부별로 담당자를 두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팀원: 비를사랑한소금인형(창원), 고양이, 희망으로(부산), swan(강릉), 유편디(대구), 수수(서울), 그링(인천), 하윤(전주) + @]

참고자료: 섹슈얼위원회 안건발의글 - 10회 총회

(1) 섹슈얼 위원회(가칭)

작년에 만들어졌던 성폭력 대책위는 안타깝게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대책위의 실패(?) 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사건만 맡아서 처리하는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기구였다는 점도 한 몫 했을 겁니다. 또한 특정 지부들 안에서 반여성적이고 성폭력적인 분위기를 느낀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고민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아수나로의 초지부적이고 상시적인 성폭력 대책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네요.

그래서 성폭력, 여성주의 관련 사안에 대한 일을 전담하는 초지부적 성격의 '섹슈얼 위원회(가칭)' 을 제안합니다. 1) 아수나로에 성폭력 사안이 있을 때 대책위로 전환되어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전국 총회에서 여성주의,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을 맡습니다. 3) 지부 안에 성폭력적 사안이 있을 때 도움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4)성폭력적이고 반여성적인 지부 분위기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견제를 합니다.

- * 초지부적 성격. 지부별로 1명을 둘 것인지? 권역별로 1명을 둘 것인지?
- * 섹슈얼 위원회의 멤버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성주의에 대한 감수성-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할지?

출처: [총회안건] 서울지부가 내는 총회 안건 ~_~ 섹슈얼 위원회 설립/ 가출 메뉴얼 배포(?) | 작성자: 수수 | 작성일: 2012.01.14.
- <http://cafe.naver.com/asunaro/37861>

- 팀 결성 이후 2012년 2월 19일 온라인에서 첫 번째 섹슈얼팀 회의가 진행됨. 비를사랑한소금인형(창원지부) 활동회원이 팀 코디를 맡고, 한 달에 한번 팀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팀내 감수성을 맞추기 위한 독서토론 △다른 단체들의 반성폭력위원회/성폭력 관련 토론 등 사례 찾아보기 △정기적으로 팀에서 토론을 진행해보고, 이견이 생기는 지점을 지부에서 토론해보기 3가지 팀 활동계획을 세움. 하지만 각자 맡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팀 코디를 맡은 활동회원이 갑작스럽게 활동중단을 통보하는 등의 문제를 겪다가 2013년 3월 11일 두 번째 온라인회의를 마지막으로 팀 운영 및 활동이 흐지부지됨. (2012년 상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참고)

참고자료: 2012년 상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 섹슈얼팀은 2011년 겨울 총회 이후로 생긴 새로운 팀입니다. 각 지부에서 담당자를 1명씩 두었습니다. 올해 섹슈얼팀은 단 2회의 회의를 가졌고, 나머지 회의는 전부 파도나거나 잡히지 못했습니다.
- 섹슈얼팀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담당자들의 적극성 부족 2. 섹슈얼팀의 모임담당의 부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담당자들의 적극성 부족 : 여러차례 회의를 잡았으나 각 지부별 담당자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파도가 났습니다. (평가 글을 쓰기 위한 회의잡기에도 댓글이 두개 밖에 안달렸습니다) 각자가 조사해서 오기로 한 사항들도 조사를 안하는 등,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가글을 빌어 죄송합니다() 다음번 섹슈얼팀 담당자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활동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 섹슈얼팀의 모임담당 부재 : 원래는 비사소님이 담당이었으나, 비사소님이 아수나로 활동을 그만두시면서 모임담당자가 공중으로 증발되어버렸습니다 πππ 그 이후에 곧바로 모임담당을 정했어야했으나,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모임담당을 정하지 못했고 섹슈얼팀의 모임이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 다음번 섹슈얼팀 담당자분들께 부탁 :

- 1) 회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πππ
- 2) 섹슈얼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활동해주세요 πππ
- 3) 힘..힘내세여...

출처: 섹슈얼팀 평가글 초안입니다. 검토해주세요. | 작성자: 다은 | 작성일: 2012.07.25.

- <http://cafe.naver.com/asunaro/42935>

[2012년 하반기~2013년 상반기: 섹슈얼팀의 증발]

- 2012년 여름 제 11회 총회에서 섹슈얼팀에 대한 평가/계획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카페와 내부게시판 모두에 관련 기록이 없음. 이후 지역모임별로 섹슈얼팀 담당자를 뽑아 새롭게 팀을 구성해야 했으나, 전체 담당/팀 구성을 위해 진행된 2012년 8월 5일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섹슈얼팀과 정치적권리팀은 지부에서 1명씩 뽑으면 됩니다.” 하고 넘어간 이후, 아무도 챙기지 않음으로써 잊혀져 2012년 하반기에는 섹슈얼팀이 구성되지 않음.

- 2013년 겨울 제 12회 총회에서 지부별 담당자를 두어 섹슈얼팀을 구성하는 방식의 문제와, 지난 2012년 하반기 구성 자체가 되지 못한 섹슈얼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유지한다면 어떻게 유지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짐. 섹슈얼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고, 당시 은지(전주지부) 활동회원이 강력하게 섹슈얼팀 활동의사를 밝히면서 섹슈얼팀을 유지하기로 함. 지부별 담당자 방식이 아닌 관심 있는 활동회원들을 모이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외부 교육 이수 등의 활동을 찾아보기로 함.

- 제 12회 총회에서 은지(전주지부) 활동회원이 섹슈얼팀에 자원하고, 2013년 2월 24일 담당정하기 전체온라인회의의 공지글에 댓글로 수수(서울지부) 활동회원이 자원 의사를 밝혔지만 2013년 상반기에도 섹슈얼팀이 구성되지 않음. 전체담당 및 팀을 정하기 위해 진행된 2013년 2월 24일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전체팀 구성(섹슈얼팀 포함)을 위한 공지글을 올리기로 한 이후, 6월까지 전체팀 구성 공지글이 계속 올라오고, 전체온라인회의의 안건으로 포함은 되어 있는데 별도 논의는 되지 않은 채 이어짐. 그러다 2013년 6월 16일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안건에서 사라진 이후, 팀원 모집글도 올라오지 않게 됨.

[2013년 하반기: 섹슈얼팀의 나름 전성기]

- 2013년 여름 제 13회 총회에서 섹슈얼팀이 2013년 상반기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상황을 점검하고, 아수나로 내의 반성폭력 교육 준비/상담 및 대책위 자료 아카이빙 등의 역할을 논의하며 새로운 섹슈얼팀을 구성함. [팀원: 수수, 아리데, 별다]

- 제 13회 총회 이후 2013년 8월 22일 진행된 섹슈얼팀 회의에서 “섹슈얼팀이 여성주의를 가지고 아수나로 내 ‘폭력’을 대하는 분위기를 어찌저찌 해보는 팀이 되면 좋겠다.”는 목표를 설정. 팀 사업으로 △아수나로 내 성폭력사건 처리과정 아카이빙 △‘잠깐!’ 사업 △아수나로 대나무터 사업 3가지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결정함. (아래 2013년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참고)

- 2013년 하반기에는 8월 8일 (참여: 별다, 수수 / 장소: 흥대), 8월22일 (참여: 아리데, 별다, 수수 / 장소: 흥대), 11월 27일 (참여: 별다, 아리데, 수수 / 장소: 나뭇아지트), 1월 19일 (참여: 수수, 별다, 아리데 + 그링그링 / 장소: 나뭇아지트) 총4회의 팀 회의가 진행. 중간에 9월달에 오전에 잡은 회의가 무산되면서 회의 간격이 길어짐.

참고자료: 2013년 하반기 섹슈얼티팀 평가글 (14회 총회 제출)

전체 총평.

섹슈얼티팀은 아수나로에 반성폭력적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팀입니다. 여성주의 담론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 과제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녹여내려 했습니다. 이것 저것 하는 모습이 별로 한 게 없이 보이고, 실제 그렇지만, 섹슈얼티팀은 망하지 않았습니디. 거기에 큰 의미를 둡니다. 또 앞으로의 아수나로 섹슈얼티팀이 해매지 않게 미리 해매는 역할을 했다고 평합니다. 현 구성원들은 반 년 정도 섹슈얼티팀을 더 하면서 마저 해매려고 합니다. 기획해둔 사업을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고, 시도하고 있는 사업을 마저 정리해야 해서요.

개별 평가.

잠깐만 사업.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안에는 여성주의 담론이 담긴 글을 카페에 올린다는 기획이었습니다. 카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반성폭력적 분위기에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잠깐만 사업이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자주 올렸어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반년에 세개는 존재감이 좀 덜합니다. 잠깐만 글을 쓰기가 생각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책 혹은 논문을 잘 참고하여, 글을 좀 짙어두어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글거리를 쌓아두면, 쓰는 게 좀 쉬워질 거니까요. 사람들을 낚아 조회수를 올리는 건 펍 할 만 하다고 평했어요. 낚을거리는 아직 넘치니까요.

아카이빙 사업.

7년이 된 아수나로에서,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꾸려서 다루진 성폭력 사건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반년동안 역시 세 건을 진행했어요. 완결된 것도, 미완결된 것도 있었지만, 모두 찾기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말머리를 정해두지 않고 제목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나로가 카페와 내부게로 논의가 분산되고, 총회라는 전국논의가 있는 탓도 있는듯 했어요. 섹슈얼티팀은 아수나로에 먼저 말머리 다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10년 여름 대책위] 정도로만 달아도 좋을 텐데요. 아니면 그때 그때 위키에 아카이빙 해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반년동안 섹슈얼티팀이 다룬 사건들은 그래도 정리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이 구성원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사건들은 더 오래 전 일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몇몇 그때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예요. 그렇게 아카이빙을 마치고 나면, 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를 만들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책위는 어떻게 구성하고,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게 나은지, 등등. 이것은 물론 섹슈얼티팀의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죽순 사업.

조금도 진행되지 않았고, 구성원은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평했습니다. 그간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죽순에 대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첨부합니다.

아수나로에서 겪은 (성)폭력적인 경험(사건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분위기일 수도 있겠다.) 들을 털어놓는 이야기 조각. 섹슈얼티팀은일종의 '대나무숲'의 역할을 하면서 털어놓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들어줄 수 있게 된다. 구글 닥스 등의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형태로 (이야기=)죽순을 받으며, 혹시이 이야기를 섹슈얼티팀이 공개하여 공론화 시켰으면 한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카페에 공개한다. 공개하지않길 바라는데 섹슈얼티팀이 이 사건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섹슈얼티팀의 역량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해결하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미리 주의를 울리기로 한다. (섹슈얼티팀 = 성폭력 대책위가 아니기에) 죽순의 단기 공개도 가능하게끔 한다. 단기간 (ex. 30일) 동안카페에 공개하며, 그 이후는 원 글을 삭제하는 형태도 원한다면 허락한다.

섹슈얼티팀의 목적은 아수나로를 반폭력적이고 젠더적으로 평등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기에, 가능하다면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입장. 그렇기에죽순들을 공개할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아카이빙하는 사례집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공지를 미리 한다. 죽순 사례집은 원 죽순과 공개되었을 때 그에 관해 달린 피드백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화된 죽순은 나중에 아수나로의 반성폭력 공부모임 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죽순은 어떤 형식으로 받을까? "딱히어떤 해결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시

는 분들은 자신의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비공개를 원하시면 섹슈얼팁 멤버들만 읽고 삭제해드립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수나로 카페에 익명으로 보내주신 죽순을 올려드립니다. 공개된 사례를 가지고 아수나로 사람들이 아수나로 내부의 폭력성이나 젠더적 불평등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을것 같아요. 공개되고자 하는 포맷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죽순의목적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매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수나로의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을 잊지말아 주세요.“

출처: 섹슈얼팁 평가글 | 작성자: 기준 | 작성일: 2014.01.22. - <http://cafe.naver.com/asunaro/51872>

[2014년 상반기: 갑자기 하락세]

- 2014년 겨울 제 14회 총회에서, 섹슈얼팁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 추진중인 사업을 관심 있는 팀원 한두 명을 추가해서 이어 나가면 좋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팀원을 총원하기로 결정함. [팀원: 아리데, 별다, 수수, 함이로(땅사과, 하밍), 은지]
- 제 14회 총회 이후 2014년 2월 14일 팀회의에서 '성폭력사건 아카이빙 사업'을 다음 총회 전까지 진행하고, '잠깐 사업'을 페이스북에 섹슈얼팁 페이지를 만들어 '1주간 논쟁 → 1주 글 작성 → 카페에 올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 다음 낚시(게시글)을 준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아수나로 대나무터 사업'은 g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어 사례를 수집하고, 반성폭력공부모임 사업은 지금까지 있던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 및 잠깐사업 링크를 모아 올리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움.
- 하지만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음. (2014년 상반기 섹슈얼팁 평가글 참고) 2014년 6월 8일 진행된 2014년 상반기 전국논의자랑에서 인천지역모임 전체논의담당으로 참여한, 섹슈얼팁원이기도 한 함이로 활동회원이 “할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건 연애에 관해 글쓰는 건데 아리데가 몇 번 글을 올린 거 말고는 활동이 없어요. 회의도 두 달 전인가... ” 라고 언급함으로써 섹슈얼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유가 전체 차원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짐.
- 2014년 상반기에는 팀회의가 2월 14일(참여: 수수, 기준, 땅사과, 아리데, 은지 / 장소: 나름아지트), 7월 11일(참여: 수수, 기준, 땅사과, 아리데, 은지/장소: 미기재) 2회 진행됨. 2월 회의 이후 4월에 회의를 진행하자 했으나 회의가 진행되지 않음.

참고자료: 2014년 상반기 섹슈얼팁 평가글

섹슈얼팁 상반기 활동

- 아카이빙

저번 분기 섹슈얼팁부터 이어졌던 사업입니다. 아수나로 내의 성폭력 사건들을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건들은 정리했고, 과거 사건은 당시에 활동했던 공현 등에게 묻고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챙겨지지 않았어요.

- 잠깐사업

섹슈얼팁의 중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이번에는 글 두개를 생산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여성주의 글을 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팀원들이 글 하나 정도씩은 쓰기로 했고, 다섯개를 쓰기로 했던 계획에 비하면 적은 양입니다.

평가 _1

[정기적 오프라인 회의가 없음 + 챙기지 않음]

잠깐사업 글 두개를 마치고서는 오프라인 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한 번 회의가 미루어지고, 그 뒤에는 오프라인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회의와 평가회의 두 번 오프라인 회의만 한 셈입니다. 일이 잘 처리되지 않아도 만나지 않으니 관심에서도 멀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을 정확히 어떤 사람이 맡아갈지 (몇번째 글을 누가쓸지) 나누지 않다보니 챙기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코디가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평가 _2

[지부 활동과 연계되지 않음]

언론팀 같은 경우는 신문을 만들면 지부에서 캠페인을 하는 식으로 지부 활동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섹슈얼팁의 잠깐 사업의 경우 가끔 카페에 올라오는 제목낚시 글 정도로 생각되다보니 지부 활동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부에서 일상적으로 만

나고, 이 글이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섹슈얼팀 활동의 동기 부여가 되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카페에 제 목욕사로 글을 올리는 방식은 피드백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운영

코디를 두고, 매달 오프라인 회의를 잡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

잠깐사업은 괜찮은 컨셉과 방향으로 기획을 했으니,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집중사업팀이 했던 것처럼

반인권적행위에 대한 내규에 대해 섹슈얼팀이 같이 읽고 공부하고, 이것을 지부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모임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카이빙 사업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려한 대응방법을 위하여 정리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카이빙 사업을 마무리 하고, 반인권적행위에 대한 내규 공부모임을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처: [평가글] 섹슈얼팀 평가글 | 작성자: 별다 | 작성일: 2014.07.30 - <https://nebu.asunaro.or.kr/848869>

[2014년 하반기: 더더욱 하락세]

- 2014년 여름 제 15회 총회에서 팀 내부 논의, 전체 공유 및 논의가 되지 않은 문제 등이 논의되고, 팀 코디 및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회의 갖기 등이 대책으로 논의됨. 라일락(인천지부) 활동회원이 섹슈얼팀에 참여하고 싶다고 자원했고, 역량 등을 지부에서 논의해서 최종결정하기로 함. [팀원: 아리데, 별다, 수수, 함이로(땅사과, 하밍), 은지, 라일락]
- 제 15회 총회 이후 2014년 8월 30일 팀회의에서 팀코디를 아리데(인천지부) 활동회원으로 정하고, 팀회의 일정, 잠깐사업 주제, 반인권적 행위 내규 팀 내부 세미나 준비일정 등을 정함. (2014년 8월 30일 섹슈얼팀 회의록 참고)

참고자료: 2014년 8월 30일 섹슈얼팀 회의록

8월30일 아침 9시, 섹슈얼팀 조찬회의

장소: 나뭇아지트3

등장인물: 수수, 별다, 은지, 라일락, 아리데, 함이로

잠깐사업 주제

9월27일: 여성혐오 - ex. 김치녀. 여성에 대한 (은지)

10월26일: 성별분업 - ex. 무거운 짐. 설거지. (라일락)

11월23일: 외모 - ex. 다이어트, 성형 : 이상적인 여성상이 계속 변해왔고, 만들어지고 있는거고. 누가 생산을 하는가... 거기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부아르와 성형외과) (수수)

12월28일: 이것또시위- 브라(이것 또 시위), 겨울(아수나로 대구지부 겨울수다회 자료가 있음) (별다)

2. 코디와 회의일자 정하기

* 섹슈얼팀의 코디는 무슨 일을 하면 되나? :

사업 챙김질과 회의 잡고 공지(전화로 빠릿빠릿).

2014 하반기 코디는 아리데

앞으로의 회의: 10월3일 낮 12시(내부 세미나), 11월8일 낮 12시, 12월6일 낮 12시.

3. 아카이빙 마무리

-수수가 11년도 사건 아카이빙을 9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위의 회의자료나 결과, 과정들의 아카이빙은 현 대책위 분들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섹슈얼팀의 내부 반인권적행위내규 세미나

권역별 반인권적행위내규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 섹슈얼팀이 먼저 반인권적행위내규를 읽으면서 다른 지부에 가서 반인권적행위내규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교육 자료의 생산이라고 해야 하나?

(10월3일) 내부 세미나 준비: 함이로, 아리데 - 반인권적행위내규 숫자 맞춰서 프린트하기. 교육을 위한 예시 ppt를 만들기. (교육 나가기 전 논의 합의하는 정도의 느낌의 준비!)

기존에 섹슈얼팀이 아카이빙 했던 대책위 자료를 가지고 반인권적행위내규에 의거하여 어떻게 대책을 꾸리면 될지 심화 버전의 이야기를 해도 좋을 듯? (이러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내부 세미나도 오픈해서 오고 싶은 분은 와서 같이 듣는 것으로. 가령 서울에 오시는 울산지부 목성돼지님을 초대한다거나?

이 팀을 쪼는 것은 별다. 별다를 쪼는 것은 수수. 수수를 쪼는 것은 라일락. (1인 1코디!!!!)

5. 울산지부 반성폭력 공부모임 도움 제안

1) 공부모임 할 자료를 만들어 가져와 공부모임을 진행해 달라는 건지, 2) 같이 공부모임 할 자료를 만들어 같이 공부모임 하지는 건지, 3)그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같이 진행해달라는 것인지 알아야 할 듯 하다. 혹시 섹슈얼팀 내부 세미나 이후에 “반인권적 행위 내규” 공부모임을 권역별로 진행할 건데 그때는 시기 상 어떠하신지. 물어보자

출처: 2014년 8월30일 섹슈얼팀 회의 :) | 작성자: 수수 | 작성일: 2014.08.30 - <https://nebu.asunaro.or.kr/861969>

- 2014년 10월 9일에는 함이로(인천지부) 활동회원이, 2014년 11월 4일에는 별다(서울지부) 활동회원이 섹슈얼팀 활동 중단을 통보함. 팀원들이 맡은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나가는 등 운영과 활동에 어려움이 생김. 2014년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2014년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참고)

- 2014년 10월 11일 다섯 번째 전국논의자랑에서 '전주지부 휴면'을 논의하며 섹슈얼팀원인 은지(전주지부) 활동회원의 활동회원 자격 문제를 논의함. 은지 활동회원은 활동을 정리하려는 특수한 상황이니 총회 때까지 활동회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하고, 총회에서 지부 없는 활동회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인천지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아수나로 내 반성폭력 문화·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함. 섹슈얼팀의 역할/기능에 대한 점검/검토를 포함해서, 아수나로에 피해와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 반성폭력공부모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TF 구성: 목성돼지, 마카롱, 루블릿 + 섹슈얼팀, 기존 대책위멤버 중에 참여할 사람을 추가모집하기로 했으나 되지 않음. 최종적으로 목성돼지, 마카롱, 윤쓰리 3인으로 구성]

- 2014년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팀회의가 진행됨. 8월 30일(참여: 수수, 별다, 은지, 라일락, 아리데, 함이로 / 장소: 나름아지트), 10월 3일 (참여: 은지, 수수, 함이로, 별다, 아리데, 라일락+뚝고, 루블릿 / 장소: 나름아지트), 11월 8일 (참여: 아리데, 은지, 라일락, 수수 / 장소: 미기재), 12월 6일 (참여: 아리데, 라일락, 은지 / 장소: 미기재)

참고자료: 2014년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2014년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

■ 한 일:

<잠깐만!> - 잠깐만!은 아수나로 내의 페미니즘적 감수성(?)을 높이고 페미니즘, 반성폭력의 논의를 별로 접하지 못한 활동회원들에게도 생각의 지점을 만들기 위해 이 관련 논의와 논쟁지점들을 글로 풀어 아수나로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히 설명글만 올리면 사람들이 읽지 않을까봐 카페 제목과 닉네임으로 (ex. 광도훈) 장난을 쳐서 낚시질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목을 다시 바꾸어 섹슈얼팀 게시판에다 모아두었습니다.

페미니즘과 반성폭력 논의들에는 개념어가 많고, 한 논쟁에 농축된 기나긴(?)방대한 맥락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해요. 섹슈얼팀이 만든 잠깐만! 자료의 경우 이런 개념어들을 최대한 쉬운 말로 풀고, 이런 개념들이 생긴 맥락들을 설명하는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번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섹슈얼팀이 여전히 잘 굴러가지 못하면서 이 잠깐만! 자료들이 계획했던 것의 반 정도밖에 만들 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하반기의 경우 이렇게 팀원들의 글 마감이 늦어지거나 파토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팀원당 두 명씩의 독촉자를 만들고, 미리 언제까지 잠깐만! 글을 올릴 것인지 그 주제와 마감일까지 계획을 잡아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밖에 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임에 분명합니다...

〈반인권적행위내규 공부모임〉 - 반인권적행위내규에 합의하지 않으면 아수나로 활동회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4년 인천 성폭력 사건을 통하여 새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이 새롭고도 충격적인 사실! (...) 그래서 섹슈얼팀은 섹슈얼팀의 아수 나로 내의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본래 목적에 맞게 반인권행위내규를 설명하는 공부모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울산지 부(준)에서 이를 가지고 공부모임도 1회 진행했어요.

■ 운영 면에 있어서의 평가와 2015년 활동 방향에 대한 구상:

- 2014 상반기 평가 때, 섹슈얼팀은 멀리 떨어진 지부원끼리 있는 전체팀인만큼,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을 거 같아 매 달 만나기로 했었다. 그런데 매 달 만나도 운영이 어째 잘 안됨. 이번 멤버 구성에 있어 유독 운이 안 좋았던 해인 것 같 다. 도중에 지부가 사라진 회원도 있었고, 휴가를 내버린 사람도 둘이나 있었음. 도중에 아수나로를 탈퇴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인원이 훅훅 줄기 시작했는데 일이 몰려서, 혹은 다른 개인적인 일들로 버거워하던 사람이 많았기에 이런 팀원의 줄어듦과 활기 떨어짐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더불어 이 팀에서 안부를 묻는 다른 아수나로 활동회원도 많지가 않았다. 섹슈얼팀이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팀원이 아 닌 다른 활동회원 분들도 안부를 물으며 독촉과 힘 불어넣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쩌면 좀 낫지 않았을까? πππ (이거슨 책임회피일까)

팀에 지원할 때는 자신의 그 기간동안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고, 또 구성에 있어 이런 물리적 결함도 등을 가늠하여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 2015년도에는 반인권적행위내규 공부모임 자료처럼, 여러 반폭력과 젠더평등 등을 다루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지부별로 공부모 임 원정 등을 가는 게 나올 것 같다. 잠깐사업 때문에 섹슈얼팀까지 운영하는건 좀 낭비 같은 느낌.

- 성폭력 사안이 제기되었을 때, 아수나로 단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섹슈얼팀의 역할이기도 함.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다니는 팀이 되어야 한다. 2014 인천 성폭력 사건 때 대책위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몰라 조금 우왕좌왕한 일이 있었는데, 섹슈얼팀이 대책위와 관련된 매뉴얼 등을 구성해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 잠깐사업의 경우, 기존 카페에 올리는 방식에 이제는 슬 회의감이 든다. 논의도 내부게로 옮겨져서 많이 불라나.. 싶은 마음도 들. 차라리 〈요즘것들〉에 여성청소년이나 성문제 같은 걸로 기획연재를 하는 게 더 나올 듯 하다.

출처: 총회용 2014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 (완성본X 의견취합중) | 작성자: 수수 | 작성일: 2015.01.05

- <https://nebu.asunaro.or.kr/1057811>

[2015년 상반기: 섹슈얼팀의 죽음] 섹슈얼팀으로 죽은지 몇 초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 2015년 겨울 제 16회 총회에서 섹슈얼팀이 잘 운영되지 못한 문제, (1차)반성폭력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에서 제기 한 반성폭력공부모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문제 등이 논의됨. 2015년 상반기에는 TF에서 제안한 '반성폭력 공부모임 팀(약칭 반공팀)'을 새롭게 꾸리지 않고, 섹슈얼팀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챙기는 역할과 잠깐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논의를 하면서 새롭게 팀원을 개편함. [팀원: 수수, 루블릿, 윤쓰리, 보리]

- 16회 총회 이후 진행된 2015년 1월 31일 섹슈얼팀 회의에서 '팀 이름을 바꾸자'는 안건이 논의됨. '섹슈얼팀'이라는 명칭 때 문에 성소수자 관련 팀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서 이름을 바꿀 필요성을 느낀 데 더불어, 처음에는 성폭력적인 분위기를 없애는 팀 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수나로내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인 상황들을 없애는 팀으로 운영하자는 논의를 하며 팀명을 '반 폭력적인 분위기 디자인팀'으로 변경하게 됨.

■ 팀의 사업

① 잠깐(만)!

- 사업기간: 2013년 하반기 ~ 2014년 하반기 (약 1년6개월)

- 2013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사업. "각 지부마다도, 지부 안의 사람들마다도 반성폭력에 대한 '지식'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남.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반성폭력 문화와 고민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 곳곳에 관련 정보, 고민글 등을 적어 붙여두던 내부사업을 참고하여, "반성폭력에 관한 짝막한 지식들을 나름아지트, 카페, 내부게, 페이스북 등에 여기저기 걸어보자"(13.08.02 섹슈얼팀 회의)는 취지로 기획됨.

- 2013년 하반기에는 3개, 2014년 상반기에는 2개, 2014년 하반기에는 1개의 잠깐사업 게시글이 업로드됨. 2013년에는 2~3주, 2014년에는 한달에 한번 간격으로 꾸준히 게시글을 올리는 계획이었으나 "원래 계획은 2주, 3주에 한 번씩 쓰는 것이었는데 이놈의 귀차니즘" (14.01.19 섹슈얼팀회의) "문제는 저번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섹슈얼팀이 여전히 잘 굴러가지 못하면서 이 잠깐만! 자료들이 계획했던 것의 반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이러한 평가가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예정보다 적은 업로드가 이루어짐. 특히 2014년 하반기에는 9월 27일: 여성혐오(은지), 10월 26일: 성별분업(라일락), 11월 23일: 외모(수수), 12월 28일: 브라, 겨털 (별다) 로 기획 및 역할분담을 하고 각자 팀회의 때까지 글 초안을 작성해서 검토 및 토론 후 업로드하기로 했으나 은지(전주지부) 활동회원 외의 다른 팀원들이 글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무산되기도 함.

- 운영이 잘 되지 못하던 잠깐사업은 '개념어들을 최대한 쉬운 말로 풀고, 이런 개념들이 생긴 맥락들을 설명하는 일을 잘 했다고 생각'(2014년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같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섹슈얼팀 내에서도 '기존 카페에 올리는 방식에 이제는 슬 회의감이 든다. 논의도 내부게로 옮겨져서 많이 불라나..' (2014년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등 사업의 성과와 전망 등에서 회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2014년 하반기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됨.

참고자료: 잠깐(만)! 게시글 현황		
날짜	링크	주제
2013.10.02	http://cafe.naver.com/asunaro/50478	반성폭력 (성적자기결정권)
2013.11.06	http://cafe.naver.com/asunaro/50899	성적대상화 (꽃발사건)
2013.11.27	http://cafe.naver.com/asunaro/51169	성별공간분리
2014.03.02.	http://cafe.naver.com/asunaro/52411	술자리(술문화)
2014.06.10.	http://cafe.naver.com/asunaro/53871	연애
2014.10.04	http://cafe.naver.com/asunaro/54954	혐오

② 성폭력 사건 아카이빙

- 사업기간: 2013년 하반기 ~ 2014년 하반기 (약 1년 6개월)

- 2013년 봄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2013년 여름 성폭력사건으로도 명시됨)에서 '아수나로(기준, 수수)에서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잘 기록해서 다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참조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기'로(2013.06.30 성폭력공동대책 위 두번째 회의) 논의되었음. 이후 꾸려진 2013년 하반기 섹슈얼팀 팀원중 아리데(인천지부), 별다(서울지부), 수수(서울지부) 3명이 2013년 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멤버들이라서 '검사경사' 섹슈얼팀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2013년 8월 22일 팀회의에서 논의됨.

- 2013년 6월 30일 2013년 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록에도 '이번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2013년 8월 22일 섹슈얼팀 회의록에도 "최근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의 시작부터 대응 마무리 과정을 정리하기. 사건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문서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 범위를 정한 뒤사건의 정황을 잘 서술해서 다음 성폭력 사건의 대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수나로라는 단체가성폭력을 어떻게 대할 지 도움이 되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하지만 아카이빙된 사건에는 2013년 봄 성폭력사건과 함께 2012년 봄 성폭력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음. 이후 2013년 8월 22일 섹슈얼팀 회의록 등에도 "수수가 11년도 사건 아카이빙을 9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최근 사건뿐만 아니라 아수나로 내에서 대책위원회 등이 꾸려진 성폭력사건을 모두 아카이빙하려고 했으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13년 하반기 섹슈얼티에서 2012년 봄, 2013년 봄(및 여름) 두 개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아카이빙이 진행됨. 2011년에 일어난 성폭력사건도 아카이빙하기로 했으나 진행되지 않음. 2014년 상반기에도 2014년 2월 14일 팀회의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총회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진행되지 않음. 2014년 7월 11일 섹슈얼티회의에서 '과거 사건들은 활동했던 사람이 없어서 공현 등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종료됨. 이후 '(1차)반성폭력문화및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에서 2011년 봄 성폭력사건, 2011년 겨울 성폭력사건 등을 정리함.

참고자료: 성폭력 사건 아카이빙 현황			
날짜	링크	작성 주체	주제
2013.12.22	https://nebu.asunaro.or.kr/560604	섹슈얼티	2013년 여름 성폭력 사건 아카이빙
2014.01.09	https://nebu.asunaro.or.kr/576535	섹슈얼티	2012년 봄 성폭력 사건 아카이빙
2015.01.18	https://nebu.asunaro.or.kr/1080163	아수나로 내 반성폭력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TF (1차)	아수나로 내 (성)폭력 사건 기록 정리(2011~2014) 아카이빙

③ 아수나로 대나무터 (아수나로 죽순)

- 사업기간: 2013년 하반기 (추진되지 않음)
 - 2013년 여름 제 13회 총회 이후 새롭게 꾸려진 섹슈얼티에서, 2013년 8월 22일 팀회의에서 '아수나로 대나무터'(죽순사업으로도 불림) 사업을 기획함. 제 13회 총회 때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인 '아수나로 실태조사'처럼 익명으로 고민을 받는 사업으로 구상함. 9월에 다음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기획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9월 회의가 연기되고 11월 27일이 돼서야 논의가 이루어짐. 하지만 기획 이후 실제 추진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너무 어렵나보다…… 막막하다. 확실히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것들을 밀리게 되어있는 것 같다… 다음 상반기에 정말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현재 섹슈얼티 3인이 생각생각.' (2014.01.19 섹슈얼티 회의) 이러한 평가 정도가 이루어지고 넘어감.

참고자료: 2013년 11월 27일 섹슈얼티 회의록
<p>1 죽순 논의에대한 정리:</p> <p>죽순이란? : 아수나로에서 겪은 (성)폭력적인 경험(사건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분위기일 수도 있겠다.) 들을 털어놓는 이야기 조각. 섹슈얼티는일종의 '대나무숲'의 역할을 하면서 털어놓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들어줄 수 있게 된다. 구글 닥스 등의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형태로 (이야기=)죽순을 받으며, 혹시이 이야기를 섹슈얼티가 공개하여 공론화 시켰으면 한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카페에 공개한다. 공개하지않길 바라는데 섹슈얼티가 이 사건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섹슈얼티의 역량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해결하되, 사실상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미리 주의를 울리기로 한다. (섹슈얼티 = 성폭력 대책위가 아니기에) 죽순의 단기 공개도 가능하게끔 한다. 단기간 (ex. 30일) 동안카페에 공개하며, 그 이후는 원 글을 삭제하는 형태도 원한다면 허락한다.</p> <p>섹슈얼티의 목적은 아수나로를 반폭력적이고 젠더적으로 평등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기에, 가능하다면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입장. 그렇기에죽순들을 공개할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아카이빙하는 사례집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공지를 미리 한다. 죽순 사례집은 원 죽순과 공개되었을 때 그에 관해 달린 피드백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화된 죽순은 나중에 아수나로의 반성폭력 공부모임 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p> <p>* 죽순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그리고 정신의 흐름에 따른/ 정리되지 않은/ 기록:</p> <p>죽순(하나하나의 이야기)모음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전국논의자랑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소설화 작업은 너무 복잡할 듯. 그렇다면 더 간결한 방법은? a A B로 해서 사례집을 만드는 건 어떤가? 죽순이라는 건 여러 층위일것 같다. 반성폭력 내규로서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사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을테고, 그저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들이알려주는 그 이야기(죽순) 들이 사례화 되었으면 좋겠는지아닌지 먼저 동의를 구하고, 사례화 되었으면 좋겠다</p>

면 사례집을 만들자.(단기간 공개하고 싶다면 단기간 공개하는 걸로 하자. 나는 이걸 30일동안 공개하고 싶어, 너무 오랫동안 남아서 회자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30일 공개한 뒤 평하자. 라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그러나 아수나로 전체의 분위기 개선이나 성찰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례화로 남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 역시알려두자.) 자, 사례집을 만든다면, 어떤 종류의 사례집일까?? 온라인?오프라인?

만약 죽순을 사례집으로 만든다면 그 죽순에 대한 피드백과 이야기도 다 함께 사례집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a 그렇다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니 온라인 사례집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죽순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는이메일 / 하나는 구글닥스. a 이메일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구글닥스로 합시다. 섹슈얼팀의 gmail 계정을 하나 판다. Gmail 쓱쓱이? 그게 뭐야...

- 죽순은 어떤 형식으로 받을까? "딱히어떤 해결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저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비공개를 원하시면 섹슈얼팀 멤버들만 읽고 삭제해드립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수나로 카페에 익명으로 보내주신 죽순을 올려드립니다. 공개된 사례를 가지고 아수나로 사람들이 아수나로 내부의 폭력성이나 젠더적 불평등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을것 같아요. 공개되고자 하는 포맷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죽순의목적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매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수나로의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을 잊지말아 주세요."

- 죽순은 언제 공개하나? 섹슈얼팀에서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

출처: 11월27일 섹슈얼팀 회의록 }_< | 작성자: 수수 | 작성일: 2013.12.03

- <http://cafe.naver.com/asunaro/51227>

- 2014년 겨울 제 14회 총회에서 팀원을 총원하고, 2014년 2월 11일 팀회의에서 아리데(인천지부) 활동회원이 고민(죽순)을 받을 G메일 계정을 파기로 하는 등 역할분담을 진행함. 하지만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팀회의 자체가 7월 평가회의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이후 '역량이 많이 드는 일인 것 같다. 쫄쫄하게 챙겨야 한다. 반인권적행위 내규 공부모임과 하나 중 선택해야 할 것 같다'(2014년 7월 11일 섹슈얼팀 회의)라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논의가 사라지게 됨.

④ 반인권적 행위 내규 공부모임 자료 생성 및 교육 진행

- 사업기간: 2014년 하반기 (약 5개월)

- 2014년 7월 11일 팀 회의에서 2014년 하반기 활동을 논의하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에 대해 섹슈얼팀 같이 읽고 공부하고, 배워보고, 이것을 지부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모임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아카이빙 사업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방법을 생각해보기 위해 한 것이었다. 아수나로 활동회원이 되려면 반인권적행위에 대한 내규를 꼭 읽어봐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 내규 공부모임을 지역별로 해 보면 좋을 듯!'이라는 제안이 이루어짐. 이후 8월 22일 섹슈얼팀 회의에서 '권역별 반인권적 행위 내규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 섹슈얼팀이 먼저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읽으면서 다른 지부에 가서 반인권적 행위 내규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섹슈얼팀의 내부 반인권적 행위 내규 세미나'를 준비하는 팀을 함이로, 아리데 활동회원이 준비하기로 역할을 나눔.

- 이후 2014년 10월 3일, 11월 8일 섹슈얼팀 회의 후 '섹슈얼팀의 내부 반인권적 행위 내규 세미나'가 진행되고, '아수나로 반인권적 행위 내규 교육 ppt 자료'가 제작되어 내부게시판에 업로드됨.¹⁹⁾ 처음 목표였던 '지부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모임'을 하는 것은 진행되지 못함. 울산지역준비모임 요청에 따라 2014년 12월 28일 울산지역준비모임 반성폭력공부모임에 섹슈얼팀원인 아리데 활동회원이 참여해서 1회 교육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침. 이후 PPT자료 게시물에 '아리데님이 오늘 울산지부 반인권적 행위 내규 공부모임을 해보고, 보충을 좀 더 한 다음에는 아수나로에서 언제든 쓰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지만 별도의 보충이나 공유글 등은 올라오지 않고,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됨.

- 2014년 12월 6일 섹슈얼팀 회의에서 '총회에서 제안할 것. 반인권적 행위 내규 교육자료를 가지고 지부들이 반인권적 행위 내규 공부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2014년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글에는 2015년 활동 방향에 대한 구상으로

19) 아수나로 반인권적행위내규 교육 ppt 자료 (완성) | 작성자: 수수 | 작성일: 2014.12.28. - <https://nebu.asunaro.or.kr/1040870>

'2015년도에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 공부모임 자료처럼, 여러 반폭력과 젠더평등 등을 다루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지부별로 공부모임 원정 등을 가는 게 나올 것 같다. 잠깐사업 때문에 섹슈얼팀까지 운영하는건 좀 낭비 같은 느낌.' 이라는 평가와 제안이 이루어짐. 2015년 겨울 제 16회 총회에서는 반성폭력뿐 아니라 반폭력 공부모임 자료를 만들어 지부별로 공부모임 원정을 가자는 제안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팀에 들어가고, 팀에서 최종 조정하기로 논의됨.

⑤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 수합

- 사업기간: 2014년 상반기

- 2014년 2월 14일 팀회의에서 '이거 교육연구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반성폭력 공부모임자료 수합+잠깐사업 링크 모아서 올리자. 우리는 성의를 보였어. 기준이 하기로 함'이라는 논의가 진행됨. 이후 카페에 올라온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 관련 글 등 자료들을 간단히 링크로 취합해서 팀게시판에 올려두고 마무리됨.²⁰⁾

- 2015년 상반기 새롭게 구성된 섹슈얼팀에서 반성폭력공부모임 자료를 제작하고 있음.

20) 반성폭력 공부모임 정리 | 작성자: 기준 | 작성일: 2014.02.15. - <http://cafe.naver.com/asunaro/52190>

4-2. 문제점과 원인

■ 문제점1: 팀 사업들이 흐지부지되어버림

상황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섹슈얼티에서는 총 5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기획/추진됨. 그 중 기획대로 진행/마무리된 사업은, 아수나로 카페에 올라와 있는 공부모임 관련 자료들을 제목과 링크를 간단히 정리해서 카페게시글로 올려둔 (2014년 상반기) '반성 폭력 공부모임 자료 수합' 사업 하나뿐임.

- 가장 꾸준히 진행된 '잠깐(만)!' 사업 또한 계획의 절반가량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게시글이 업로드되지 않다가 사업이 종료됨. '성폭력 사건 아카이빙' 사업은 예정보다 기간을 오래 끌다 결국 2011년 사건은 정리 하지 못한 채 종료됨. '반 인권적 행위 내구 공부모임 자료 생성 및 교육 사업'은 교육자료(PPT) 제작은 되었지만, 맨 처음 목표였던 지부에서의 교육은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됨. 교육자료 또한 담당했던 팀원이 갑작스럽게 팀 및 단체를 탈퇴하면서 어렵게 마무리됨. 아수나로 대나무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종료됨. 전체적으로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경향으로, 추진력과 결과가 좋지 못한 상황.

원인

원인1) 관심과 중요도에서 밀리기 쉬운 내부사업의 어려움

- 섹슈얼티가 진행했던 5개의 사업들은 내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구(역사정리) 등 '내부사업'이었음. 섹슈얼티뿐만 아니라, 아수나로 내에서 다양하게 추진했던 활동들 중 이슈화가 아닌 교육/연구 등 내부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전체팀 중 과거 '운영팀', '교육연구팀'도 팀 사업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팀 활동이 흐지부지 종료되었으며, 지부의 경우에도 서울지부에서 다양하게 시도한 '나이주의 연구팀', '인권교육 연구팀', '고교슬럼화/교육불가능 담론 재구성팀' 등의 팀들 또한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팀 활동이 종료된 바 있음. 2차 반성폭력토크에서 이에 대해서 "대외사업이 거의 없고 내부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거나, 긴장감이 잘 조성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쉽게 생기는 것 같음."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함.

- 아수나로 지역모임이나 다른 전체팀 등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은 이슈파이팅, 행사준비 등의 '외부사업'으로 비교적 목표가 분명하고,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긴장감을 형성하면서 어떻게든 추진되고, 역량을 쥐어짜서라도 모으게 됨. 그러나 내부사업은 상대적으로 목표가 추상적이고, 추진되지 않았을 때 부담이 적어 긴장감이 형성되지 않으며, 성과와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관심과 중요도에서 밀리기가 쉽다는 어려움이 있음.

원인2) 구체적이지 못했던 팀의 역할 및 목표

- 회칙(2013년 개정판, 2014년 여름 제15회 총회 부분 개정)에서는 섹슈얼티의 목표를 '아수나로 내부 반성폭력 이슈에 대해 다루며 더 나아가 아수나로의 반폭력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섹슈얼티 내부에서도 "섹슈얼티는 아수나로에 반성폭력적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팀입니다. 여성주의담론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2013년 하반기 섹슈얼티 평가글 中) 라고 설정하고 있었음.

- 하지만 언론팀이 요즘것들 신문을 제작하고, SNS팀이 아수나로 SNS 단체계정을 관리하는 등 다른 전체팀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한 것에 비해서는 역할 및 목표가 구체적인 편이 아님. '반성폭력 감수성 키우기'와 같은 것 자체는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목표보다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추상적 목표가 구체적 역할로 정리되지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방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됨.

원인3) 사업을 기획/추진 할 수 있는 정보, 경험, 실무능력 등 역량의 부족

- 2013년 하반기 섹슈얼티에서는 3명의 팀원이 3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함. 결국 그 중 2개의 사업은 계획했던 것의 절반을 겨우 채웠고, 1개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함. 열정적으로 일을 기획하고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열정적인 기획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함.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능력(계획과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기획안을 만드는 것 부터 기획을 실현하는 설득/디자인/편집/글쓰기같은 기술 등), 기획한 일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해낼수 있는 일인지 역량에 대한 파악과 판단, 지금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정보와 경험 등.

하지만 섹슈얼팀에서 사업을 기획할 때, 팀원들의 역량과 실무능력 등에 대해서 고려하는 논의기록은 없었음. 역량을 고려해 사업을 조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정보, 경험, 역량이라 할 수 있을텐데, 섹슈얼팀을 포함하여 이수나로의 전체팀은 구성할 때 역량 문제를 고려하며 팀을 구성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제점2: 섹슈얼팀 내부의 소통/회의/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상황

- 여러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 또는 워크샵, 미팅, 토론회, 간담회 등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 소통, 토론이 기본적으로 필요함. 하지만 섹슈얼팀에서는 2012년 상반기 지역모임별 담당자들이 모이는 형태로 처음 팀이 만들어졌을 때, 2차례 온라인회의를 진행한 뒤 나뉘 맡은 업무도 진행되지 않은 채 팀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림. 2012년 하반기/2013년 상반기에는 팀 회의가 아예 진행되지 않고 결국 팀 자체가 구성되지 않음. 이후 2013년 하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의 및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다시 2014년 상반기에는 예정된 회의들이 무산되는 등 회의 자체가 원활하게 성사/진행되지 못함, 2014년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팀회의를 진행했지만 회의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회의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특히 섹슈얼팀은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논의와 토론 등이 더욱 필요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함. 이수나로가 기존에 주로 주장해오던 청소년인권 관련 주제와 담론이 아닌, 다소 생소하다 할 수 있는 페미니즘 관련 주제나 담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논의와 토론을 통한 합의와 학습이 필요했음. 잠깐 사업의 경우에도 팀에서 토론을 해서 작성하자는 의견에 따라 팀회의에서 글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회의때까지 준비해오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실제 팀내 토론이 잘 진행되지 못함.

원인

원인1) 만나기 부담스러운 물리적 거리

- 섹슈얼팀이 전체팀이다 보니 다양한 지역모임의 활동회원들이 한 팀으로 구성됨. 서울, 전주,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이 모여 있다 보니 지역모임처럼 한 달에 2~3번씩 자주 만나거나 필요할 때 일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날을 잡아 2~3달, 좀 더 좁혀서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정도가 최대였음.

- 섹슈얼팀을 포함한 전체팀의 경우, 만날 때마다 드는 교통비(돈)와 이동시간이 큰 부담이 되어서 자주 만나기가 어려움. 처음 지역모임별로 담당자를 뽑아 섹슈얼팀을 구성할 때는 오프라인 회의를 엄두내기도 어려운 수준이었고, 자원해서 참여하는 형태로 팀을 꾸렸을 때도 가까운 수도권끼리도 왕복 약 2시간, 전주와 서울은 왕복 약 6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

원인2) 팀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 2012년 처음 구성된 섹슈얼팀이 만들어진 후 단 2번의 온라인회의를 끝으로 회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배경에는, 회의 챙기기 등의 팀 코디 역할을 맡은 활동회원이 갑작스레 활동중단을 통보하면서 회의가 잡히지 않고, 회의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 오래 이어지는데도 다른 팀원들 또한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무책임함이 있었음. 이후 지부별 담당자가 아닌 자원 형태로 팀 구성을 개편했지만, 모두가 책임 있게 팀을 운영하고 팀을 챙기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음. 2014년 상반기에는 예정된 회의가 미뤄져서 3달만에 만나기도 하고, 2014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팀내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팀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각자 회의 전까지 하기로 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팀원들이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하면서 맡은 일들이 흐지부지되기도 함.

-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섹슈얼팀 내부에서도 관련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옴. 2012년 여름총회 평가글에서 섹슈얼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로 '담당자들의 적극성 부족'이 꼽히고, 2015년 겨울총회 평가글에서도 "이번 멤버 구성에 있어 유독 윤이 안 좋았던 해인 것 같다. 도중에 지부가 사라진 회원도 있었고, 휴가를 내버린 사람도 돌아와 있었음. 도중에 이수나로를 탈퇴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인원이 훌쩍 줄기 시작했는데 일이 몰려서, 혹은 다른 개인적인 일들로 버거워하던 사람이 많았기에 이런 팀원의 줄어들과 활기 떨어짐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 대표나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고 활동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이수나로의 시스템에서 개개인들의 참여와 책임은 단체의 흥망성쇠(흥함, 망함, 융성함, 쇠퇴해짐)에 직결되는 문제임. 전체팀은 특히나 인원이 적어 팀원 한 명 한 명의

참여와 책임이 팀의 활동과 운영에 직결되는 상황임. 그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팀에서 나가고, 회의를 빠지고, 1~2명 소수만 팀을 챙기고, 맡은 일을 하지 않는 등 과거 섹슈얼팀 팀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방식은 팀의 논의부터 운영, 활동 전반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만든 심각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문제점3: 전체차원에서 섹슈얼팀을 챙기지 못함

상황

- 섹슈얼팀 활동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는 총회, 전국논의자랑, 지부회의 등 여러 곳에서 이야기되었지만, 팀구성을 바꾸는 것 외에 전체차원에서 별다른 대책이나 지원방법이 논의된 적이 없음. 전국논의자랑에서도 섹슈얼팀이 전체에 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야기되었지만, 섹슈얼팀에 전체공유를 챙겨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 외의 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원인

원인1) 전체팀을 챙길 수 있는 기회/자리가 없음

- 아수나로 총회에서 전체팀, 전체담당에 대한 공유와 평가/논의는 적게는 1시간 30분, 많게는 5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옴. 사전에 평가글을 준비해서 논의하고는 있지만, 10여개 안팎의 전체팀/전체담당에 대한 공유부터 평가, 논의까지 깊이 있게 진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보니 깊이 있는 평가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전국논의자랑에서 전체팀/담당들을 전체적으로 점검/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나(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전체팀/담당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나면 시간이 부족해 안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됨. 당일치기로 진행되는 전국논의자랑의 시간부족으로 인해 안건을 먼저 논의하고 후순위로 전체팀/담당 점검이 진행되었으며,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현재는 전체팀/전체담당을 점검하는 별도의 시간이 아예 사라지게 됨.

- 현재 전체팀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전체에 공유/논의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별도 안건으로 제안되었을 때 정도임. 따로 팀 상황을 점검하고, 챙기는 시간이 거의 없음. 섹슈얼팀에서는 팀의 활동과 운영이 잘 챙겨지지 않고, 전체와의 소통/공유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이 문제를 팀에서 안건으로 정리해서 따로 제안할 상황이 되지 못했고, 전체차원에서는 따로 챙길 시간과 기회가 없다보니 방치되듯이 시간이 지나옴.

원인2) 활동회원들이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닌 다른 일, 다른 팀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부족함

- 지역모임 활동들과 회의록정리, 공금정리, 뉴페챙기기 등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전체차원의 소통과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체팀/전체담당 등에서 해야 할 일도 늘어남. 하지만 지난 2015년 겨울 제 16회 총회에서 전체팀/담당 구성을 논의할 때도 활동회원이 줄어들고, 전체팀/담당에 지원하는 활동회원도 많지 않아서 하던 사람들이 또 하거나, 한 사람이 2개 팀에 중복으로 참여해서 어렵게 전체팀/담당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임.

- 활동회원 수나 역량이, 늘어난 일만큼 늘어나지는 않음. 결국 활동하는 활동회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이 속한 지부나 팀의 일이 아닌 섹슈얼팀 등 다른 전체팀 운영과 활동에 신경 쓸 여유가 부족해짐. 전체소통/사업이 강화되면서 전국논의자랑, 전체팀 회의 등 전국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기는 했으나, 만나더라도 다른 일에 신경을 쓸 만큼 여유가 부족해져 서로를 챙기기는 힘든 상황이 됨.

■ 문제점4: 활동회원들의 반성폭력 감수성 및 지식 향상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음

상황

- '잠깐' 사업이 2013년 상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됨. 2차 반성폭력토크 섹슈얼팀 발제문에서의 "잠깐 사업 : 아수나로 내의 감수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반성폭력 담론의 맥락과 단어를 설명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로는 좋았으나, 실제로 읽고 나서 사람들이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등의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에서 볼 수

있듯, 초반에 제목과 글쓴이를 재밌게 패러디해서 사람들을 낚아 웃음을 주기는 했지만, 지부나 활동회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함. '성폭력사건 아카이빙' 사업 또한 2013년 상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긴 시간을 들여 힘들게 정리했지만, 아카이빙 게시글만 올라오고 활용되지 않았으며, 존재 자체가 활동회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원인

원인1) 담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섹슈얼티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페미니즘', '반성폭력' 등의 담론들은 아수나로가 주로 활동하는 주제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학교/언론 등 사회에서 주로 다루어온 주제도 아님. 또한 섹슈얼티원들이 모두 관련한 활동이나 세미나를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주제일 수밖에 없음. 섹슈얼티 내부에서도 잠깐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제가 어렵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의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함.

- 하지만 실제 공부, 세미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잠깐사업 게시물을 올리기 전 팀내에서 토론을 거치자는 계획도 절반도 진행되지 못함. 결국 '잠깐' 사업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거나, 고민할만한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팀원 개인들이 알고 있던 정보들을 게시글에 정리해두는 수준으로 진행되어버림.

원인2) 전략이 없음

- 아수나로 구성원들은 성 정체성, 성별 정체성, 연애에 대한 관점과 경험, 여성주의담론을 접해본 경험 등에서 매우 다른 정체성과 경험 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다양성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지점이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관심을 이끌어내며 반성폭력 감수성 및 지식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섹슈얼티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수나로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고민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전략' 없이, 보기에 좋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데 그쳐버림. '성폭력사건 아카이빙' '반인권적 행위 내규 공부모임자료' 등은 어렵게 제작되었지만 제작을 끝으로 배포, 교육, 홍보 등이 전혀 준비/진행되지 않고, '잠깐 사업'의 경우도 사업 초기에는 사람들을 낚는 게시글 제목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구사했지만, 이후 1년 6개월동안 새로운 방법 없이 같은 방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관심도가 낮아지게 됨.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대상을 한정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보는 등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섹슈얼티 안에서 이러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원인3)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이 멈춰버림

- 2013년 하반기에 잠깐사업, 성폭력사건 아카이빙, 아수나로 대나무터 등 섹슈얼티의 새로운 사업이 폭발적으로 등장함. 하지만 2014년 다시 팀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서, 사업도 기존 사업을 이어가거나 약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됨. 내부적으로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효과/성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것을 상쇄할만한 새로운 사업, 활동이 나오지 않고 학습/전략 등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함. 기존 사업을 관성적으로 이어나가며 팀의 목표가 '팀의 존치'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됨.

4-3. 반성폭력문화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평가

섹슈얼팀이 목표로 했던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됨. 초반 2012년 상반기 '지부내 성폭력적, 반여성주의적 분위기나 사건에 대해 견제하고, 상담을 받는 상시적 기구'(2012 겨울 총회 결정사항) 로 시작하여, 2013년 하반기에는 '섹슈얼팀은 아수나로에 반성폭력적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팀입니다. 여성주의 담론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2013 하반기 섹슈얼팀 평가글) 하지만 현재 아수나로의 반성폭력 제도와 문화가 과연 섹슈얼팀이 목표했던 대로 변화했는가 생각해보았을 때, 섹슈얼팀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목표에라도 도달했다고, 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임. (너무 까칠하지만)

하지만 팀이 제대로 활동/운영되지 못한 상황을 '섹슈얼팀과 섹슈얼팀원들의 문제'라고 떠넘기듯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함. 아수나로 전체의 무관심이 있었기에 섹슈얼팀이 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획한 일을 진행하지 않던 문제들이 방지될 수 있었기 때문. 또한 아수나로의 전체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도 섹슈얼팀뿐 아니라 전체팀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섹슈얼팀 운영과 활동의 문제는 단순히 섹슈얼팀의 문제로써 치부하기 어려움.

아수나로의 전체팀 시스템 자체의 문제와 한계/어려움을 인지하고, 애매한 목표와 무책임한 활동회원 등의 문제들로 다시 팀이 무기력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장. 반성폭력적 문화와 인식에 대한 점검 -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문제점1: 지역모임 / 활동회원간의 반성폭력 관련 지식 및 감수성 격차가 큼

상황

- 앞의 반성폭력 공부모임 현황(3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난 2014년 지역모임별로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원지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모임/준비모임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연 2회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다른 일정들에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공부모임이 의무사항이란 사실을 몰라서 뉴페공부모임만 진행.’ ‘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같이 반성폭력에 대한 지식, 반성폭력을 위한 아수나로 안에서의 논의내용/제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격차로 생긴 문제이기도 함.

- 이외에도 2015년 2월 내부게시판에서 논쟁이 붙었던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운동을 보면 여성 권리 찾기라는 이름으로 레이디 퍼스트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와 같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주위 모아 페미니즘에 대한 물지각과 편견을 드러내고, ‘젠더권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활동회원이 있기도 한 반면, 반성폭력과 페미니즘 관련 활동과 교육 등을 경험해온 활동회원과, 반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수나로에서 처음 들어보는 활동회원도 있는 등 아수나로 활동회원들간의 반성폭력 지식 및 감수성의 격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원인

원인1) 자주 이루어지는 단체의 인적구성 변화, ‘논의 역사의 재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함

- 아수나로는 새로운 사람이 활동회원이 될 때, 특별한 자격요건을 따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들어오는 단체임.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상급학교 진학, 알바, 취업, 가정탄압 등의 이유로 2~3년도 되지 않아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지역모임 또한 9년 사이 24개 지역에서 모임이 꾸러져서 활동하다 사라지고, 다시 부활하거나, 지역모임의 활동회원이 모두 바뀌는 등 단체의 인적구성 변화가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단체의 구성원이 자주 바뀌면 정보를 공유하거나, 합의수준을 높여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음. 반성폭력 제도들을 만들어온 과정에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활동회원들이 늘어나고, 관련 논의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해줄 오래 활동한 활동회원은 적어지는 상황에서 지부/활동회원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제도를 만들게 된 취지와 만드는 과정에서 공유되었던 고민은 사라지고, ‘징계를 받았다더라’ ‘내규가 있다’ 등의 결론만 형식적으로 기억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의역사의 재공유’가 필요함.

- 반성폭력을 위한 논의/토론 과정에서 어떤 문제의식, 고민, 합의점 등이 있었는지를 재공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지식 및 감수성의 차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하지만 인적구성이 자주 바뀌고, 기억하고 공유해야 할 논의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는 아수나로의 상황에서 사람을 통한 재공유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현재 아수나로 상황에서 논의역사의 재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만 기대는 방식을 넘어 공부모임/아카이빙/자료제작 등 제도적으로 논의역사가 재공유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나,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는 방식으로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원인2) 부실한 공부모임

- 현재 아수나로의 반성폭력 논의/토론의 역사를 재공유하는 하는 제도 중 하나로 공부모임, 즉 내부교육을 들 수 있음. 하지만 반성폭력 의제를 직접 다루기 위해 만든 반성폭력 공부모임도 2장의 평가파트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역모임에서 진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진행이 되더라도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왜 만들어졌는가’ ‘왜 일반적인 성폭력 내규가 아닌 반인권적 행위 내규로 만들었는가’와 같은, 반성폭력을 위한 논의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공유나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볼수 있는 관점을 공유하는 등의 실속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뉴페공부모임’에서도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까먹어서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존재와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으로조차도 진행되지 못하기도 하고, 뉴페공부모임 자체를 지부 회의 전에 2~30분만에 아수나로의 역사부터 활동,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쏟아내고 끝내는 수준으로 진행되기도 함. 뉴페공부모임은 특히나 아수나로 활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과 반성폭력을

포함한 이수나로 내 지식 및 감수성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현재는 기본적인 정보전달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반성폭력공부모임’ ‘뉴페공부모임’ 과 같은 내부 교육이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는,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전달조차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 이는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활동회원이 존재하게 만드는 등, 이수나로 내 지식과 감수성 격차를 더욱 키지게 만들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원인3) 자료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가 없음

- 지식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료를 통한 공유임. 또한 위에서 언급한 교육을 통한 재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자료가 잘 축적되고 관리/가공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수나로에서 반성폭력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자료 축적의 차원으로 생각해본다면, 성폭력사건 대책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노출 등의 문제로 회의록/면담내용기록 등의 과정을 자료로 남기기 애매한 경우가 생긴. 일례로 2013년 봄 성폭력사건 대책위를 들 수 있을 것.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는 지점들을 피해서 자료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만, 2013년 봄처럼 대책위 멤버가 특별히 챙기지 않는 한, 보통의 경우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대책위가 해산되면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축적된 자료들도 안건지/자료집/회의록/속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업로드되어 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하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료로 출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섹슈얼티에서 성폭력사건 아카이빙, 반성폭력 교육자료 정리 등을 추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처럼 아카이빙해둔 게시물 자체도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 자료로 찾아 읽는 등 잘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원인4) 반성폭력 관련 단체 및 활동과의 만남의 차이

- 가까이에서 반성폭력 관련 단체 및 활동들을 만날 수 있는가 또한, 반성폭력 지식 및 감수성 격차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반성폭력 관련 운동을 하는 여성/인권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하고, 이슈되는 사건을 통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제기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 지식과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기게 됨. 하지만 서울 중심으로 굴러가는 한국 사회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수나로 지역모임별로 접하게 되는 환경 및 경험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음.

■ 문제점2: 토론과 고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

상황

- 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성폭력'이 아니고, 그저 성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반성폭력적 문화'가 아니듯이, '성폭력'과 '반성폭력적 문화'라는 것은 흑백처럼 명확하고 단순한 개념 또는 상황이 아님. 그래서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것, 또는 반성폭력적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정해두고 그것만 지킨다고 되는 문제일 수가 없음. 누군가는 '나쁜 뜻 없이' '그냥' 한 말과 행동이 성희롱적 표현이기도 하며,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맥락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등, 썸과 폭력 사이, 장난과 폭력 사이의 경계는 너무나 모호하고 어려운 문제임. '성폭력', '반성폭력적 문화'는 관계와 권력, 환경과 문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고민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요구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아수나로에서 '성폭력', '반성폭력적 문화'라는 단어는 2006년 단체 초기부터 내규, 공부모임, 성폭력사건 논의 및 해결과정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 하지만 활동회원간의 합의와 이해 수준은 [문제점1]에서 이야기되듯,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체 내에서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고, 합의수준을 맞춰가기 위한 토론 또는 일상적 대화는 지부/전체 모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된 토론이나 대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잠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마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원인

원인1) 사라진 토론의 장, 전반적 토론문화의 축소

- 현재 아수나로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비단 반성폭력 차원의 문제만은 아님. 아수나로의 활동과 담론, 운영과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토론이 사라져간다는 우려는 2012년 10월 카페에 올라온 '폭탄 드랍입니다: 아수나로는 오만에서 좀 벗어나야하지 않나'²¹⁾ 게시물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제 14회 총회(2014년 겨울)에서도 '운영토크의 제안'²²⁾을 통해서 '활발한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로 인식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함. 토론문화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반성폭력 관련 토론의 활성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반적 토론문화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반성폭력 관련 토론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연관성을 갖고 있음. 반성폭력 관련 토론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수나로 내의 전반적 토론문화 자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과거 아수나로의 토론은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중심이 카페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및 개인들간의 카카오톡그룹, 페이스북그룹 등의 소규모/폐쇄적/비공식 그룹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임. 아수나로도 네이버 카페에서의 공유, 논의, 토론 등이 축소되면서 카페 자체가 죽어가게 되어 토론의 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활동가 개인들의 소셜네트워크 및 소규모/폐쇄적/비공식 그룹에서 토론이 알음알음 진행되는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토론의 장이 없는 상황. 새로운 대안으로 내부게시판에서 온라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활성화시켜보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토론의 장으로 잘 형성되지 못함.
- 이렇듯 온라인에서의 토론의 장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수나로와 청소년 인권 이슈 관련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과거에는 학생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이면서 댓글로 이루어지는 토론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공감대 형성과 설득 등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찬반 모두의 담론과 쟁점이 과거보다 복잡해지면서, 댓글을 통한 준비/기획 없는 온라인토론이 어려운 수준이 됨. 또한 아수나로 내부적으로는 활동회원들이 과거보다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여유가 많이 줄어들어 토론에 참여하는 빈도가 적어지고, 아수나로의 논의 중심이 온라인에서 지역모임별 회의/전국논의자랑 등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생기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이었던 아수나로의 변화 또한 컸음.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맞춘 토론방식, 토론의 장은 마련되지 못하면서 전반적 토론문화가 축소되는 상황이 됨.

원인2) 반성폭력, 페미니즘 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음. 그렇기에 무엇이 성폭력이고, 무엇이 반성폭력적 문화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2차가해란 것은 무엇이고,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과정은 어떠한가 하는 등에서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21) 폭탄 드랍입니다: 아수나로는 오만에서 좀 벗어나야하지 않나 | 작성자: 진냥 | 작성일: 2012.10.08. - <http://cafe.naver.com/asunaro/44566>
22) 제14회 총회를 위한 운영토크의 제안! (운영토크 요약) | 작성자: 공현 | 작성일: 2014.01.09. - <https://nebu.asunaro.or.kr/576865>

그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거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애매한 문제들의 합의지점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발전적인 방법이 모색되기도 함.

그러나 운동사회 내에서 반성폭력 담론, 페미니즘 담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운동적이지 못한' '진보적이지 못한' '반여성적인' 행위라고 인식되는 분위기로 인해, 활동회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간 비판/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민을 포기하기도 함.

원인3) 반성폭력, 페미니즘 학습이 지속적, 전문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원인2)와 같은 두려움의 원인 중 하나는, 무지 또는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공포라고 할 수 있음. '성폭력은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세뇌시키는 언론, 여성단체들이 조리퐁이 여성의 성기와 닮아서 판매금지를 요구했다는 인터넷 루머 등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음. 그래서 성폭력/반성폭력문화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 무지와 편견을 걷어내고, 여성주의 운동의 주장과 역사 등 운동의 고민과 맥락을 파악하면서, 아수나로 조직의 문화/청소년인권의 입장 등으로 적용시켜보는 학습이 지속적/전문적으로 필요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그러다 보니 토론과 고민의 수준이 발전하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발전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원인4)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의 부재.

- 보통 아수나로에서 진행하는 공부모임이나 토론은 다른 단체나 기업 등 보다는 말랑말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활동회원들이 모두 둘러앉아 발제문이나 토론문을 읽고&듣고, 토론하는 형태를 벗어나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방식이 논의를 준비하고 정리하기에는 효율적이고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딱딱하게,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게 여겨지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어려운 방식이기도 함. 더 다양한 고민과 토론을 자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3년 비청소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술자리 느낌으로 진행되었던 '권태기토크'처럼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

■ 문제점3: 일상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화

상황

- '문제제기'는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행위'를 뜻하는 개념으로, 의미로만 생각해보면 문제제기는 논의를 시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 위치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는 크던 작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에, 문제제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함. 그리고 이는 아수나로 또한 마찬가지.

- 하지만 성폭력사건 문제제기를 포함한 아수나로 내 문제제기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문제제기가 논의를 시작해보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않고 있음.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참고 참다 전쟁을 선포하듯 분노/두려움/걱정을 한가득 안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받은 사람은 감정에 격해 싸우듯이 반박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 이 과정과 분위기를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은 문제제기 자체를 포기하기도 함. 문제제기가 관계를 끝내듯 극단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

원인

원인1) 논쟁을 꺼려하는 한국 사회 문화의 영향

-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딴지건달', '성격이 모났다', '까칠하다'며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쉬쉬하거나 덮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등, 문제가 있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퍼져 있음. 아수나로 활동회원들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현재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논쟁과 문제제기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을 느끼고, 문제제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문제제기가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고, 일상에서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쟁을 꺼려하는 한국 사회 문화를 견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비슷한 예를 들어, 아수나로에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나이주의 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나이 중심의

사고방식과 구분,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반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논쟁을 꺼려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거나,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논쟁을 꺼려하는 문화에 있어서도 단체 내에서부터라도 문제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논쟁을 꺼려하는 문화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추진되어야 문제제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임.

원인2) 문제제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

- 이수나로에서는 기업이나 학교 등에서처럼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낙인찍힌다거나, 징계를 받고 배제되는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음. 하지만 일상 속에서 문제제기가 잘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나 시스템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임. 일상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히 없으며, 문제제기를 하고자 할 때에도 어떤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후 지부나 전체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

- 문제제가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하는 자리를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회가 인위적으로라도 준비될 필요가 있음. 실제 기업 등에서는 워크샵, MT 등에서 서로의 답답함, 억울함, 불편함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곤 함. 하지만 이수나로에서는 단체 내 문제를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시도되지 않고 있는 상황.

원인3) 문제제기 당사자로서의 고민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활동회원 개인의 차원에서도 문제제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 문제제기가 당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스스로가 피해자/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 없는 활동회원이 많으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땅히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문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렵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음.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활동회원들도 문제제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 자기합리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함.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문제제기가 더 잘 이루어지고, 사건해결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당사자로서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함.

원인4) 인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이야기/고민하는 문화가 부족함

-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차별 등 성폭력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꼭 반성폭력 공부모임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님.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통해서, 차별/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권침해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하는 등, 조직 내 인권감수성은 형성 및 향상될 수 있음.

- 조직 내 인권감수성의 형성 및 향상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문제제기에 대한 부담을 줄임. 또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 자체가,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의 역할을 하기도 함.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써 치부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써 고민할 수 있을 때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함.

- 하지만 이수나로 내에서 인권의 문제를 지속적,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잘 되지 않듯, 이슈대응 및 실무에 정신이 없어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강연/토론 등의 기회 자체가 잘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조직 내 인권감수성이 형성 및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권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교육/강연/토론 등의 자리부터 일상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4장. 반성폭력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4-1. 개선 방향

1) 기본: 기본만큼은 제대로 해보자

- 더 발전적인 반성폭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반인권적 행위 내규, 반성폭력 공부모임 등 기존 반성폭력 제도들부터 잘 챙기는 것이 '기본'으로서 필요함. 새로 이수나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잘 안내하고, 지부별로 진행하기로 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꼼꼼히 챙기는 등 기본적인 부분만 되더라도, 앞서 제기된 정보와 감수성의 격차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2) 숨은 이수나로 찾기: 개인 의존적 방식을 탈피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자

반성폭력 공부모임, 대책위원회 활동 등 현재 이수나로의 반성폭력 활동들은 관심 있고, 의지 있고, 역량 있는 활동회원 개인들에게 의존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음. 지부별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준비할 때도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회원 개인이 있으면 챙겨지지만, 지부차원에서의 고민과 챙김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김. 대책위 활동이 이루어질 때에도 대책위 멤버들의 역량에 따라 사건처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경우가 나뉘이기도 함.

반성폭력 문화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음. 조직 내 반성폭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활동회원들의 진행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대책위 운영을 개인의 경험에 맡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기록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카이빙으로 묶어 노출시키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개인 의존적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3) 실효성: 활동회원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시키자

- 반성폭력 공부모임과 반인권적 행위 내규 등의 현재 이수나로 내 반성폭력 제도들이 활동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 내용과 방식이 활동회원들이 일상/활동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임. 그리고 활동회원들의 다양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등의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제도가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내규와 공부모임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부모임을 활동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실효성 있는 내규와 공부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음.

4) 일상: 지금보다 일상적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수나로 내에서도 그러한 분위기와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을 완전히 피하기는 힘들. 남성중심적인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찌든 채 살아가는 우리가 반성폭력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 논의, 경계와 노력이 요구됨. 그러나 지금까지 이수나로 내에서는 그러한 일상적인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었음.

같은 지부 등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원들이 모여 일상적인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고민과 문제들에 대해 내용적으로 고민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일상 속에 반성폭력 문화를 녹여낼 필요가 있음.

5) 향상: 지부/활동회원간의 반성폭력 지식 및 감수성의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자

- 반성폭력 공부모임, 대책위 활동 등의 실무를 할 줄 아는 사람만 계속해서 맡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활동회원 전반의 지식과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지부간/활동회원간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6) 책임: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잊지 말자

- 아수나로 조직이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활동회원들이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짚어지는 것임. 개인 의존적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한다고 해도, 반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고 반성폭력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함께 책임지고, 개개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 그러나 앞서 평가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는 개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활동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아수나로 내 반성폭력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있어 지부와 활동회원의 책임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7) 반성폭력적 아수나로+너머: 반인권적 행위로 개념을 확장하자

- 현재 아수나로에서는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부모임에서도, 내규에서도 잘 다뤄지고 있지 않음. 반성폭력 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인권담론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성폭력사건 뿐만이 아닌 여러 반인권적 행위를 다룰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4-2. 10가지 제안

제안1) '성폭력사건 특별내규' 는 이제 그만,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맥락을 살리자!

■ 제안내용

아수나로에서는 성폭력이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인권의 문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반인권적 행위에 관한 내규'를 만들. 하지만 내규의 제정 맥락과는 달리, 성폭력사건이 발생해서 대책위를 꾸릴 때 읽어보는 '성폭력사건 특별내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제정맥락을 살려, 성폭력 뿐만이 아닌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과 내용을 담아 내규를 개정해보자.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읽는 형식적인 내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인권의 문제를 고민해 보게 되는 읽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규가 될 수 있을 것.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포함하여 내규를 개정한다면, 내규 길이가 훨씬 길어져 읽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음. 특히 금지되어야 할 인권침해 문제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식은 분량이 너무 늘어나고,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안 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이해/적용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방법으로, 반성폭력 토크에서 나온 의견처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는 서술방식으로서의 내규 개정을 제안함.

■ 추진계획

- 개정안 작성 팀을 구성하여, 2016년 겨울 제 18회 총회까지 약 5.5개월간 개정작업 진행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반인권적 행위 내규 개정안 작성 팀 구성 * 내규 제정 취지 및 반성폭력 토크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 안에서 개정작업 진행
2015년 11월, 전국논의자랑	개정 진행상황 중간점검
2016년 1월, 제18회 총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2016년 1월 말	개정완료

■ 기대효과

- 성폭력 문제가 별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주장하고 고민하는 인권의 문제로서 고민되며, 성폭력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 거부감, 부담감이 줄어들

- 성폭력뿐 아니라 단체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수월하게 이야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2) 반인권적 행위 사건해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자!

■ 제안내용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고, 대책위가 꾸려지는 상황은 익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 쉬움. 이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이론, 관점 등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할 수 있을지를 포함한 처리 절차와 실무방식 등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중요함. 문제제기부터 대책위 구성 및 마무리까지 실제 적용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가해자/주변인/대책위로서 고민과 역할을 고민해보는 과정을 연습하는 '반인권적 행위 사건해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자!

■ 추진계획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정
2015년 9월 초 ~ 11월 초	교육자료 기획 및 준비 (by 반디팀 ²³⁾ * 2014년 인천지부 성폭력사건 대책으로 제작된 대책위 시뮬레이션 공부모임 교육자료를 업데이트, 활용 가능
2015년 11월, 전국논의자랑	교육자료 준비상황 공유 및, 지역모임별 교육일정 점검
2015년 11월 중순 ~ 12월 말	시뮬레이션 교육 진행 * 최대 9회 진행 (4개 공식지역모임, 5개 준비모임). 지역모임 또는 팀 일정상 지역 독자적 진행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권역을 묶어 함께 진행.
2016년	교육자료 업데이트 및 연 1회 시뮬레이션 교육 진행 (by 반디팀)

■ 기대효과

- 사건 해결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신속한 대응 가능
- 사건 해결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막막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피해자/가해자/주변인의 두려움, 부담감을 줄여 원활한 문제제기 및 사건처리 가능

23) 아수나로 내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디자인하는 팀

제안3) 피해호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피해호소 창구’를 마련하고 안내하자!

■ 제안내용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문제제기 또는 피해호소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음. 그 중 한 가지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호소 창구와의 접근이 얼마나 쉽고 안내가 잘 되어있느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지점.

현재 이수나로에는 다른 제안들과 마찬가지로, 내부게시판에 문제제기 글을 올리거나,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호소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음. 하지만 이수나로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논의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직접적인 피해호소 방식이 쉬운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또한, 그 방식마저도 잘 안내되어 있지 못한 상황.

부담스러워서, 몰라서 피해호소를 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과 함께 공식적인 피해호소 창구를 마련/안내해보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부담을 느끼는 활동회원/뉴페들도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폭력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자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고, 안내하자!

■ 추진계획

- 반디팀이 담당을 맡아서 서둘러 공식적인 피해호소 창구/절차를 만들고, 절차 안내글을 업로드. 이후 총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팀 논의시간에 점검.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정
2015년 9월 초 ~ 11월 초	피해호소 창구 개설 및 안내글 제작 (by 반디팀)
2015년 11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과 공유
2016년 1월, 제18회 총회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점검

■ 기대효과

- 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안내함으로써 피해호소인의 부담감을 덜고,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문제가 덮여지거나 문제 제기가 지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음

제안4) 대책위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시키는 매뉴얼을 만들자!

■ 제안내용

기존 아수나로 회칙과 내규에 대책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적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이지는 못하다는 문제가 앞서 제도평가 파트에서 제기되었음. 대책위 구성 및 활동과정에서 역할과 권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예전 대책위 구성원이었던 활동회원으로부터 떠도는 정보를 모으는 데에 부족한 시간과 역량이 쓰이고 있는 상황. 실제 아수나로 내에서 대책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도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의 역할과 권한을 단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보자. 대책위가 해야 할 일, 대책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 대책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단체 및 다른 구성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대책위가 보다 책임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일이기도 함.

■ 추진계획

- 현재 반디팀에서 추진중인 대책위 매뉴얼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11월 전논자에서 초안을 논의한 후, 총회에서 필요한 회칙/내규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마무리.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정
2015년 9월 초 ~ 11월 초	매뉴얼 초안 작성 (by 반디팀)
2015년 11월, 전국논의자랑	매뉴얼 초안 검토 및 논의
2016년 1월, 제18회 총회	회칙/내규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마무리

■ 기대효과

- 대책위의 구성, 운영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지금보다 신속하고 빨라짐
- 대책위 운영방식을 개인에게 물어 물어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문서화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재공유를 통해 개인의 존적 방식을 탈피
-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들도 대책위의 업무 처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불투명한 대책위 운영으로 인한 답답함/불신/우려가 줄어들고 신뢰가 형성

제안5) 떠들썩한 논쟁 속에 쏟아지는 의견들, 고민을 담은 '인권감수성 향상 공부모임'을 하자!

■ 제안내용

앞서 반성폭력 공부모임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아수나로 내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 그나마 진행되는 공부모임도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한 번 읽어보고 마는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현재 반성폭력 공부모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TF에서는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활동회원들의 고민을 담은 논쟁적인 주제로, 내규 개정에 발맞춰 기존 반성폭력을 포함한 '인권감수성 향상 공부모임'으로 진행해보자고 제안함.

공부모임이라는 활동 자체가 내부 활동이다보니 쉽게 잊혀지고 밀리기도 하며, 꾸준히 진행하기 참 어려운 성격의 활동임. 공부모임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활동회원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더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곤 함. 그에 비해 기존 아수나로의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활동회원들의 격차, 구성원의 다양한 차이, 시간과 역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상 꼭 해야 하는 내용만으로 공부모임이 진행되어 왔으며, 활동회원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공부모임은 아니었음.

그러므로, 앞으로 진행되는 '인권감수성 향상 공부모임'에는 활동회원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보자. 2차가해, 피해자 중심 주의 같은 논쟁적 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핫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음. 그저 좋은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떠들썩하고 논쟁적이긴 공부모임을 만들어보자 제안함.

■ 추진계획

- 지역모임에서 지역 활동회원들의 고민, 관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공부모임을 진행. 또는 반디팀에서도 기획을 만들어 지역모임들에 제안. 이후 반디팀에서 '인권감수성 향상 공부모임'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챙기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공부모임이 아니라, 충격적이어서라도, 화가 나서라도, 어떤 이유로든 고민이 남고 기억이 남는 기회를 마련.
- 이성간의 젠더권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부터,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을 다양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으로써, 인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단체 분위기를 형성.
- 활동회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차이, 성별/성정체성 등의 차이, 다양한 경험과 소수성 등의 '차이'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제안6) 서로의 스타일을 알아가는 ‘문제제기 워크숍’을 열어보자!

■ 제안내용

문제제기는 단체 내에서 반인권적인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해결의 첫 단계가 됨. 그러나 문제제기는 그 자체가 즐거운 이야기 일 수는 없는 성격이기에 어려운 일임. 특히 반성폭력 토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각자의 감정/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식은 활동회원마다 모두 달라서 문제제기는 더욱 쉽지 않음.

이 어려운 문제제기를 조금이라도 잘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잘 받기 위해 ‘문제제기’를 주제로 활동회원들의 서로의 생각, 고민, 스타일을 이야기해보는 ‘문제제기 워크숍’을 열어보자! 같이 활동하는 지역모임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과 표현을 공유하고, 문제제기를 더 잘 하고/받기 위한 팁과 노하우를 나눠보자는 제안.

■ 추진계획

- 2015년 하반기에 지역모임별로 시범적으로 진행.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정
2015년 9월 초 ~ 11월 초	지역모임별로 문제제기 워크숍 진행방식/일시 확정 및 추진 * 공부모임 또는 겨울 MT, 숙박워크숍 등 다양한 시기에 진행 가능.
2015년 11월, 전국논의자랑	지역모임별 추진상황 공유 및 점검
2016년	추후 진행여부 및 효과에 대해 지역모임별로 평가

■ 기대효과

- 문제제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문화를 단체 내에서 형성.
- 서로의 대화 스타일을 이해함으로써, 성폭력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쟁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감정적/극단적 폭발을 줄일 수 있음
- 문제제기를 하는 것/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일상적인 문제제기 및 대화를 긍정적으로 활성화.

제안7)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내는 ‘작은 모임’을 열자!

■ 제안내용

사람들의 고민들 중에는, 아무리 말랑말랑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라고 해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음. 특히 아수나로처럼 여성/남성/제3의성/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장애인/비장애인/초중고등학생/탈학교청소년/대학생/대학입시거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런 고민,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그래서 TF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제안함. 다른 단체/기업 등에서도 여사우회, 여성활동가 MT처럼 작은 모임을 꾸리듯이, 아수나로에서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술술 풀고, 고민을 나누고 털 수 있도록 정체성/키워드/경험 등을 가지고 활동회원들이 모여 맛있는 것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 추진계획

- 반디팀이 중심이 되어 작은모임 신청을 모으거나, 기획해서 제안. 약간 여유가 생기게 되는 11월~12월 중에 가능한 지역 또는 권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후, 2016년 겨울 제 18회 총회 반디팀 논의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정
2015년 9월 초 ~ 11월 초	작은모임 신청모집 및 기획 (by 반디팀)
2015년 11월, 전국논의자랑	진행상황 점검
2015년 11월 ~ 12월	시범적으로 진행 * 가능한 지역, 권역에서 1~2회 정도 진행.
2016년 1월, 제18회 총회	팀 논의시간에 이후 작은 모임 운영계획을 함께 논의

■ 기대효과

- 공론화되지 않았던, 또는 공론화되지 못했던 약자/소수자 입장에서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공론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꼭 특별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수나로 활동회원 개인들이 편하게 수다떨고 쉴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활동가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

제안8) ‘반(인권적행위에) 반(대하는) 인권많이 기금’을 만들어 보자!

■ 제안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 하든 돈이 필요함. TF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TF의 제안을 추진할 때도, 성폭력 또는 다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대책위가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일 때도, 피해자의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고민을 나누는 자리에 모일 때에도, 모두 돈이 듬.

하지만 아수나로의 재정은 빈곤하고, 열악하고, 불안정함. 그래서 TF에서는 미리미리 ‘반(인권적행위에) 반(대하는) 인권많이 기금’을 형성해서, 돈이 어떻게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대처하자고 제안하는 바임. 구성원들이 경제적 기반을 최소한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등의 단체라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할 때, 교육을 위해 비용이 필요할 때, 단체 내 모금활동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 하지만 아수나로 구성원은 대부분이 학생/청소년이라, 활동하느라 등등의 이유로 경제적 기반을 최소한으로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모금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미리 준비가 필요함.

아수나로 정기후원금(CMS)에서 월 5만원씩, 12개월간 기금을 모으면 연 60만 원 이상의 반반인권많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음.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 매뉴얼을 출판해야 할 때 돈이 없어 밀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상담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써 쓰일 수 있을 것. 또한 적게나마 기금이 있어야, 추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 위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추진계획

- 전논자 이후 공급담당이 반반인권많이 기금통장을 개설하여, 9월부터 기금을 모음.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정
2015년 9월	온라인을 통해 적금상품을 공유하고, 기금통장 개설 (by 공급담당) * 1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가입, 만기일즈음 하여 총회/전논자에서 논의를 통해 갱신
2015년 11월, 전국논의자랑	추진결과 공유

■ 기대효과

- 인권침해 사건 대처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제안9) 화장실에서 읽어보는 - ‘아수나로 내 인권침해에 맞서기’ 소책자를 만들자!

■ 제안내용

열심히 내규를 고치고 다양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짐. 특히 아수나로는 평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활동회원의 인적구성 변화가 잦은 편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TF에서는 그 방법으로 ‘아수나로 내 인권침해에 맞서기’ 소책자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바임. 공부모임 등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져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공부모임이 안정적으로/완성도 있게 모든 지역모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모임에서 까먹거나 누락되더라도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은 소책자 배포라고 판단함.

소책자 발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며, 성과 남기기 등의 단체가 생색을 내는 방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음. 하지만 아수나로가 반(反)성폭력, 반(反)인권침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색’을 냄으로써 꾸준히 제도가 알려지고, 반성폭력/반인권침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단체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단체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함.

■ 추진계획

- 다른 대책들의 결과물이 나오는 2016년 겨울 제 18회 총회 이후에 결과물을 모아 제작. 방학시즌이 끝나기 전에 지역모임별로 모임에서 배포 진행.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정
2015년 11월~12월	소책자 기획단 모집 (by 반디팀)
2016년 1월, 제 18회 총회	반디팀 팀 평가시간을 활용하여 중간점검 및 진행상황 공유 진행.
2016년 1월 ~ 2월 초	소책자 내용 작성 및 편집
2016년 2월 말	소책자 배포 * 지역모임별로 택배 등으로 배송하여, 회의에서 나눠 가지는 방식

■ 기대효과

- 기본적인 제도들을 확실하게, 보다 안정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활동회원/뉴페들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
- 단체 차원에서 반인권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민/운영하고 있음을 내/외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반인권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단체 분위기 및 문화 형성에 기여.

제안10) 반디팀을 지원하자! 반디팀에 반상근 활동가를 두자!

■ 제안내용

안 그래도 할 일 많은 반디팀. 특히 이번 TF의 대책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아가는 상황. 하지만 섹슈얼팀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들의 의지만으로 전체팀이 운영되기는 어려움. 특히 피해호소 공식창구, 공부모임 챙기기 등 꾸준히 챙겨야 하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뒷받침이 필요함.

TF는 반디팀이 챙겨야 할 반성폭력 대책들이 안정적으로 챙겨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반디팀에 반상근활동가를 두자고 제안하는 바임. 점점 반디팀에 요청할 게 많아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팀 활동에 써야 하는 시간과 역량은 더 많이 요구됨. 돈을 벌기 위한 알바를 하면서, 또는 집안의 경제력에 의존하며 많은 시간과 역량을 쏟기는 매우 어려운 일. 전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반디팀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 빈약한 아수나로 재정상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어도, 당장 2016년에는 월 30~50만 원 사이의 반상근비를 공금에서 지급하고, 10주년 후원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반상근비를 마련해 보자!

■ 추진계획

- 2015년 하반기 준비를 통해 2016년 2월부터 반상근자를 두고 반디팀을 운영. 지속적인 반상근비 확보를 위해, 1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

시기	계획
2015년 9월, 전국논의자랑	추진 결정
2015년 9월~12월	1. 10주년 논의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논의 및 기획 진행 (by 10주년 팀) 2. 2016년 예산에서 반상근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공금 지출 준비 (by 공금담당) 3. 반상근의 역할, 반상근 가능한 활동회원 정하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계획 논의 (by 반디팀)
2016년 1월, 제18회 총회	1. 관련 내용을 포함한 10주년 사업계획 확정 2. 팀 논의시간에 반디팀의 2016년 운영계획과 함께, 반상근 운영계획 및 반상근자 확정 * 월 30만 원으로 반상근비가 측정될 경우, 2016년에는 30만원*11개월= 330만 원의 지출 예상
2016년	1. 총회 이후 2월부터 반상근 시작 2. 지속적인 반상근을 위한 기금마련 활동 진행

■ 기대효과

- 꾸준히 일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을 돕으로써 일이 흐지부지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를 줄이고, 보다 책임 있는 일처리가 안정적으로 가능.

- 아수나로 첫 번째 상근자를 반디팀에 돕으로써,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아수나로 내/외적으로 상기.

[기타 참고자료] 반성폭력 토크 기록

■ 1차 토크 (2015.04.12)

참가자 : 파이루, 마카롱, 미야, 윤쓰리, 라일락, 수수, 빈둥, 오진식, 아리데, 호밀밭, 둠코, 물병, 오미자

[주제1] 성폭력사건 해결과정

발제

발제 1) 대책위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윤쓰리

- 피해자가 피해호소를 하기까지, 공론화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림. 피해자도 주변사람들도 글로 공유하는 방법 외엔 공론화 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제기가 늦어짐.
- 반인권적 행위 내규상 대책위 구성내규가 있는데 고려하지 않고 구성.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이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피해자에게 고지가 안 됨. 대책위 일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대리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몰랐고. 대책위 경험이 있던 사람에게 회의 때마다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됨.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
- 아수나로 내에서 성폭력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 가해자를 징계하고, 활동중단으로 마무리. 피해사실을 지부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이 글로 써서 회의에서 공유하자 이야기 함.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회의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글로 쓰기 꺼려워 차일피일 미루다 늦게 공론화를 시켰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할까?
- 대책위 활동이 종료되고 사건 당사자와 대책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사건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 > 대책위라는 기구에 대한 무거운 생각.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에 처리는 대책위가 하고,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 안될 것 같고,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게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

공현의 3줄 요약: 사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무지한 점. 대책위 구성에 대해서 해맨 점. 대책위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던 점.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던 점. 대책위 활동 종료 이후 사후 대책을 어쩔지 모르겠는 점. 대책위가 존재해서 다른 활동회원들은 무관심해진다는 부작용을 느꼈다는 점.

발제 2) 사건처리과정 안에 있으면서 대책위 활동을 안 한 사람: 라일락

- 피해자가 지부 내에서 친분이 있는 구성원들에게 피해호소를 했을때, 그러한 사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 처음에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피해호소인이 피해호소를 할 때 그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함.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부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글을 쓰고, 2차가해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함. 그제서야 지부회의에서 전온회 안건으로 대책위 소집을 요청해서 전온회가 소집됨, 그리고 이때부터 공간분리 조치가 진행됨. >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도 필요.
- 빠른 처리와 공간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처리절차에서도 문제가 발생. 대책위나 대리인의 역할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음.
- 가해자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 라고 주장했으나, 가해지목인의 말을 자르듯이 이야기 > 가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지부 구성원들은 가해지목인과 어떻게든 좀 관계를 가졌었는데, 가해지목인을 좀 배제하는 식으로 됐던 것도 문제.

논의

■ 대책위의 역할

- 친분이나 어느쪽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역할.
- 기초적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거치는데 피해자/가해자/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는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한다고 보기 힘들.
-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진상위와 진상조사-대책논의를 하는 대책위로 나누자 > 두 번이나 사람을 구성해야 하고, 사람이 없음.
- 대책위는 무거운 기구 > 대책위라는 건 아수나로 전체에 계속 공유되고 개인간의 조정이 아니라 단체 차원의 기구로서의 역할. 대책위의 역할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막기 위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런 상황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놓아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절차를 만들고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자극적인 호기심과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고민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 다른 지부나 활동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개입하는 시기는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고, 결정과정에서부터 논의하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

■ 대리인의 역할

- 가해자 대리인과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 분리 필요 > 대리인의 역할은 두 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경우에 정말 자신을 대리해서 참여할 사람, 폭력적으로 말해서 아바타 역할. 하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상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나 대변되지 않
- 가해지목인과 대책위가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꼭 필요할까? > 대리인이라는 게 대책위의 구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 > 가해자가 동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직접 해결 의사가 있다면 대리인이 있는 게 오히려 왜곡을 줄 수도 있고, 번잡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
- 대책위를 꾸렸으면 대책과 소통을 해야 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물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책위를 통하지 않고 대리인을 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 대리인은 당연하게 대책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책위와 굉장히 긴밀하게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 왜곡되기 쉬운 상황에서 대책위가 뭘 논의하는지도 모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 가해자/피해자의 이름공개

- 아수나로가 엄청 큰 사회여서 한번 언론보도가 났다가 나중에 정정보도가 되도 수습이 안 되는 커뮤니티도 아닌데 왜 가해지목인과 피해호소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지 > 아수나로가 조그마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의 이름을 원칙적으로 공유하지 않는게 옳음 > 가해지목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알리는게
- 가해자의 이름을 앞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가해적 느낌을 주고, 뒤에서 이야기가 걸들 수도. > 대책위가 꾸러지고 나서 대책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최대한 그 대책위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향은 있을 듯. 대책위과 종결된 이후에 그걸 가지고 혹시 우리 지부는 어땠는지, 같은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 피해자가 어떻게 공론화 시켰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름 공개의 여부는 대책위의 윤리 > 공론화 문제는 다양한 피해호소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들의 이름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 가해자의 피해호소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가해자가 피해호소하는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면 피해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음 > 성폭력사건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적인 맥락 등 복합적으로 포함. 피해자가 느꼈던 폭력적인 상황과 가해자가 느꼈던 반인권적 상황은 개별의 사건으로 따로 진행. > 가해자이기 때문의 이야기를 처낸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설명이 필요. 가해자가 피해호소 하는 일 또한 명백하게 반인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하면 앞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사건을 조사한다는 식

으로 진행.

- 이것과 다른 결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논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것이 논의된 후에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라는 과정적/공식적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

- 가해자가 그 문제를 자기 또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별건으로 처리하라고 처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책위에서 검토해서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

■ 공간분리

-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의 공간분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누가 이런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조사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간분리부터 논의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번 모임에는 나오지 않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하는 방식 > 자신이 공간분리를 요청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디에 가고 어디에서 공간분리가 필요하다고 공유하지 않으면 공간분리가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 > 아수나로 내에서 공간분리라는 건 불가능한 일.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요청하는 건 그건 일시적인 활동중지 요청일 거고, 긴급한 임시조치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만큼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사건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에서 결정하는 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임의로 '너의 활동을 당분간 정지할테니까 대외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마'라고 권고할 순 없음. 피해호소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런 것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내를 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챙겨야 하는 일과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안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다른 단체의 경우 공간분리를 공지로 알리는 경우 > 홈페이지같은 곳에는 공개x, 대책위가 가해자에게 통보

- 공간분리를 하려면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것 >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요청하는 건 일시적인 활동중지 요청 일테고, 대외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할 순 없는 것. 피해호소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챙겨야 하는 일과 자신이 도움 받을수 있는 것에 대해 안내 필요

■ 문제제기

- 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경우엔 전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텐데. 전체에 글로 공유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다른 절차나 방법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양한 피해호소 절차를 마련할 때에도 개인들의 이름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그 방법을 만들 때 신경을 써야 할 듯.

[주제2] 반인권적 행위 내규

발제

발제 1)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잘 겪은 사람: 수수

- 대책위 운영방법이 대책위를 꾸릴 때 마다 구전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낡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경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내용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이게 맞냐고 묻는 경우. 구전되던 대책위 운영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 내규 자체는 꽤나 구체적. 다른 단체들의 반성폭력 내규를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수나로의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모든 반인권적 행위를 포괄하고 있음. 이수나로가 성폭력만큼 다른 반인권적 행위에 민감하지는 않음. 분명 언어폭력, 장애차별, 학벌차별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음.

-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뭔지 잘 모른다는 문제제기.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모임이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누군가가 나이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옆에서 문제점을 짚어주고, 이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자유롭게 있어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내규의 존재를 잘 모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동의해야 활동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을 못 잡는 경우도. 그래서 저번 섹슈얼 팀에서도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풀어서 설명하는 공부 자료를 만들었을 정도로 너무 개념화가 많고.

발제 2)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잘 아는 사람: 공현

-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성폭력사건으로 시작. 실제로 내규에 따라서 처리 된 건 성폭력사건이 다수. 한 90%는 성폭력사건. 공식적으로 넘어온 건 다 성폭력 사건. 폭력사건은 진지하게 이야기 되긴 했는데 넘어오진 않음.

-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다른 회칙보다도 어려운건 그제 다른 단체 걸 많이 베껴와서. 그래서 개념어 같은 것도 많이 베껴왔고. 그것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걸 11년에 보완. 그때 처리절차나 대책위 구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구체화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음. 처음 초안에서 써온 것은 사회권 침해는 다룰 수 없고 자유권 침해에 대한 것만 다룬다, 였는데, 말을 좀 쉽게 고치자고 해서 그렇게 바꾼 것.

- 장점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개념 부분은 잘 설명이 되어 있음. 다른 단체에 비교했을 때 이 내규가 잘 작동. 반면에 사건에 대한 절차나 최근에 논란이 된 이름 공개 문제도 그렇고, 대책위의 권한이 무엇이나, 제가 뭘 요구했을 때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라거나, 절차에 대한 것이 구체적이지 않음. 과거에 없던 호모포비아 등과 같은 개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리가 필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 대책위가 꾸려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 필요

- 항상 대책위가 꾸려진 건 아니고 지부 차원에서 해결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런 해결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해결 방법의 다양한 수준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 단체 내부 교육을 늘리는 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활동 중에 공부모임을 계속하는 게 지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모임을 늘리는 것에도 한계

- 반인권적 행위 내규는 가해자도 동시에 규율하는 것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 대책위가 꾸려지지 않고 지부차원에서 해결해서 넘어가는 경우 등등 해결방법의 다양한 수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논의

■ 반인권적 행위 내규 정의

-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의미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지만 적용되는 것을 보자면 성폭력사건 특별내규 >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들 등의 내용 추가 필요 > 이수나로가 추구하는 인권친화적에 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폭력과 차별에 대해서,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하다 보면 한번 쬐은 읽어보게 하려면, 될 어렵게 쓰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내용 자체도 성폭력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들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 금지하는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행위라고 정의하는 게.

■ 반인권적 행위 내규의 적용

- 활동회원이 아닌 뉴페나 가입자와의 성폭력이 연관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가 힘들. > 공부모임이나 일상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이야기

- 피해자 중심주의에 각주를 달아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아쉬나로의 입장/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가 필요

- 다른 폭력행위에 대한 처리방식도 처리방식이고, 사랑방의 내규와 대조를 해보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고, 우리 내규에서도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지.

- 적용과 범위 4번 피해자중심주의를 따르는데 피해자 중심주의에 각주를 달아서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아쉬나로의 입장/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가 필요.

-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벌금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2012년에 대책위에서 징계로 생각. 그러나 불가능. 돈을 받으면 좋을거 같은 한데, 내규에서의 징계가 돈을 받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일텐데. 정말로 실비가 청구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가 먼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그렇고,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너무. 아쉬나로 활동가에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 벌금과 실비지원의 개념이 헷갈려서 그런 듯. 벌금을 걷는 건 불가능하고,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병원비 등 실비가 발생한다면 그건 가해자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2012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규에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논의. 그때 가해지 목인 쪽이 돈이 없어서. 하지만 피해호소인 쪽은 청구하는 금액이 명확했고, 근데 가해지목인은 돈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 처리 자체가 흐지부지된. >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만들어두는 게 필요한 일. > 진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대책위가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움.

- 인권적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상황을 구제받거나 하기 위한 대책위란 장치가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책위가 기능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폭력 대책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명시하는 것도 좋을 듯.

- 성폭력의 개념을 넓힌다는 것도 일각에서는 폭력이라는 게 일상적인 거고,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생각. 아무리 성폭력의 개념을 넓혀도 그 무게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심각성이 아니라 가해자를 나쁜 새끼로 몰고 가고 피해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계속 보는 인식들이 지속된다면, 넓히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

- 반디팀이 갈등의 조정을 위한 상담의 역할이든, 상담의 역할을 한다면, 그에 따라 위치도 분명하게 해줘야 할 것 같고 반디팀의 누군가가 불편할 수도. 그러면 반디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반디팀의 한명에게만 이야기하거나, 지부를 통해서 안건을 올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하나의 창구를 만든다고 해도, 그 창구에게만 모두 의존하는 건 아니고.

- 아쉬나로가 추구하는 인권친화적에 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폭력과 차별에 대해서,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하다 보면 한번쯤은 읽어보게 하려면은, 덜 어렵게 쓰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내용 자체도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들 등의 내용이 추가 >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폭력행위나 이런건 카테고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전의 어떤 규정하지 않았던 카테고리가 추가되는.

■ 대책위

- 수원지부는 성폭력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대책위를 안 꾸리고, 당사자와 면담의 시간을 피해자와 가지면서 얘기했을 때 가해자가 인정하고 실수했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했을 때 굳이 대책위를 안 꾸린 사례가 있음. 굳이 대책위라는 틀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안 어울린다는 느낌 > 웬만하면 대책위보다는, 너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대책위를 쓰는 게. 웬만하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게 문제제기를 받은 사람의 이해도에도 좋을 거고 근데 성폭력이 아닌 다른 것들도 대책위를 꾸릴 수 있다는 인식이 없다는 느낌.

-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가 활동회원 아닌 사람과의 연관된, 혹은 뉴페나 가입자와의 성폭력이 연관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난감. 활동에 참여한지 얼마 안 됐고, 아쉬나로가 이야기하는 바가 아직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들이밀면서 너에게 대책위를, 이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주제3] 피해자 차후지원과 가해자/지목인을 바라보는 인식

모둠별 토론- 전체토론의 형식으로 진행 (발제 없음)

1) 가해자, 지목인을 바라보는 인식

발표

■ 평가

-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지목인부터 시작함. 그때부터 주변사람들이 편견을 가짐(“왜 가해자랑 패친이냐”, “왜 그사람이랑 연애하나, 이해가 안 간다” 등)
- 가해자가 사과/반성 하거나 성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나도 낙인은 여전함.

■ 아이디어

- “가해자 되기” 공부모임 진행하기
- > 대책위나 피해자 되어보기 공부모임은 있었지만, 가해자 되어보기는 진행한 적이 없음.
- > 대책위 처리과정 등에서 가해자에게 느껴지는 시선이나, 우리가 가해자를 얼마나 몰아세우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 > 가해자의 인정/사과 이전에 박탈감/홀로 서 있게 되면서 포기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

- 대책위 과정 속에서 가해/피해자로 구분된 사람들의 이야기 모아보기(감정/느낌)

논의

■ 가해자 되기 공부모임

- 가해자 되기 공부모임? > 가해를 하자는 게 아님. 가해자의 고독함에 대하여.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 가해자에 대한 동일시가 자주 문제시 됨. 가해자 되기란 게 어떤 개념인지? 가해자가 되면 어떤 태도나 조치가 필요한지를 익힐 필요는 있지만, 비난받는 감정이나 고독함을 이해하는 것은 이상하다. 가해자는 비난받는 게 맞다고 생각. > 가해자가 비난받는 건 맞는데,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
- 가해자되기 공부모임이 어떤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되기 공부모임에서 중요할 수 있는 건 가해자가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서, 더더욱 가해자를 개새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음. 가해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성찰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기.

■ 공부모임에서 어떤 것을 다루어야 하나?/가해자에 대한 낙인의 문제?

- 가해자가 ‘헐 내가 가해자라고?’ 이야기 되고, 대책위 과정에서 막히는 느낌이 들 때, 대책위가 잘못 처리하는 거 + 가해자가 처리지침을 몰라서 그런 듯. 가해자가 되어서 취해야 할 입장을 고민해보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지목인이 되면 주변에서 패친끊기 등등, 이 단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배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대책위를 겪으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등을 물어보면 개선할 점이 보일 듯.
-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배제,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예컨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해자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도 아무런 사과나 성찰없이 단체 사람들과 잘 지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단체 나가서 사람들이랑 하하호호 하고 있음. > 피해자 입장에서 힘들 듯. > 여기서 상정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 가해자인 듯.
- 그런 사람 자체가 희귀하지 않나.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매장되어 버

리는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임 > 이견 따로 봐야하는 문제임, 오히려 가해자가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음. > 페이스북을 없애자. 인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해자로 지목돼서 끊긴 게 아니라, 자꾸 관련글을 올려서 그런 거 아님? 아수나로 사람들이 가해지목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폐진을 우르르 끊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음.

- 두 가지 고민할 지점이 보임. 하나는 아수나로 내에서 견제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입장이라던지, 그 심각성과 조치라던지, 낙인에 비해서 실제로 가해자가 이 단체를 나갔을 때 반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거. 둘째, 가해자가 사건처리과정 도중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억울하다',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 는 감정적인 호소와 반론밖에 없음.

- 가해자들이 대개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고, 가해자는 완전 나쁜놈이라고 여겨져서 몰아질까봐 그런것도 있음. 하지만 분명 이견 2차가해가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을 것인가 공부해보는 자리를 가질 수 있음.

■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계맺음

- 사건이 해결되고 조정되는 과정과, 거부되고 썩가는 경우가 있음. 두 경우에서 활동회원들도 의식적으로 다르게 대할 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연결해서, 다른 활동회원들이 논의하는 내용과 진행상황을 기다리고 지켜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음. > 그 이후에 가해자가 썩까고 단체차원의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는 활동회원들도 그 행보에 맞춰주는 게 가해자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더 큰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 >우리가 해결과정 속에 있을 때는 가해자와 함께 갈 기회/여지를 주는 것인데,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상황에 맞는 배제는 하나의 징계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 피해자도 활동하고, 가해자도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 저는 앞의 의견과 달리, 제명이 되든가 단체를 나갔다고 해서 활동회원 개개인의 친분이나 연을 끊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단체차원에서 요구할 순 없음 > (가해자가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썩갔을 때, 상황에 맞는 배제가 필요하다.) 이걸 좀 공유되는 윤리로 가져가잔 애긴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 그럴 수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안된다는 건가요? > 사과도 안하고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정나미가 떨어져 '너랑 안 놀아' 할 수는 있는데, '누군가 개인적으로 밥을 먹었다.' 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

- 의식적으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둬서 조금 더 피해자의 감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거든요. 두 번째로, 내가 성폭력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 그 사람과 연을 끊고 살아라, 만나선 안된다/처벌해야 한다.그런 식으로 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음. 그렇지만 단체차원의 윤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 너 언제 사과할 거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희희락락 만나서 노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전시한다거나 그런 건 안해야겠쥬. > 잘못된 건 당연히 반성해야 하는데, 그 사람과 주변사람의 관계를 한번에 무너뜨려 버리는 건 좀 고민이 필요.

- 어떤 가해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본인이 사과할 마음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의 관계나 그런 것들이. 윤리강령으로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신뢰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해를 저질렀는데 전혀 사과하지 않고 단체를 나가버린 상황에서 계속 친분을 맺는 경우는, '왜 그러니?'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음. 친분이 있는 A로서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계속해서 자각시켜줄 필요가 있음.

- 앞에서 말했던 게, 가해자였는데 공부모임/사과를 다 한 사람이 있음. 그 사람이랑 한번 연애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개가 저한테 통화하면서 “나 애랑 연애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사귀는지 이해가 안간다.' 고, 헤어지라고 한다.” 고 이야기했던 케이스. 가해지목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편견들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나?

- 분리해서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음. 핵심 중 하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배제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인 듯. 단체 안에서는 시끌시끌한데, 가해자를 만나는 단체활동가들은 일부러 그 이야기를 안하는 거. 근데 주변사람들로서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상기시키고 설득하는 게 가해자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라 생각함. > 근데 그건 오히려 가해자와 관계를 끊는 방식 아닌가요?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데. >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를 활용해서 설득하는 거죠. > 그 관계에서 사건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건, 동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불편하더라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 그것 때문에 떠나간다면 어쩔 수 없음. > 해결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는것 처럼 하하호호 이야기하는 것도 안될 일임. 징계를 했지만 그 후 좋게 해결되지 못한 과정에서도 만약 가해자를 계속 만나야 한다면, 만날 때 마다 문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게 필요함. > 저는 그게 책임감이면서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저는 사람을 전적으로 좋아하거나 신뢰하거나 존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관계가 도모적이라서. 저는 누군가가 가

해지고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청소년 운동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면 계속 만날거임. > 대체 가능하다면 함
 께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이야기에요. > 두 개가 좀 다른 거 같은데. 실무적으로 만나는 거랑. 예컨대 전교조 상근자인데,
 그 사람이 반인권적 행위를 했고 문제제기를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래도 그 사람이랑 만나면 안되느냐.....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와는 별도로, 그 사람과 실무적으로 말할 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음 > 개인
 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황과 실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다른 문제일 것 같다. >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짊어지
 게 되는 그 스트레스와 짜증이 피해자만 죽어나고 다른 단체구성원들과 가해자는 하하호호 멀쩡하거나 단체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
 황으로 방지되는 것에 대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2) 피해자 차후지원

발표

■ 평가

- 피해자 차후지원을 한 적이 있나? 딱히 없다. > 피해자 대리인 개인의 감정노동 외에는..... 왜그럴까? > 단체 내 성폭력의 맥
 락이 일상적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음. 사건의 농도? 가 질지 않아서 피해자가 단체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
 음.

- 아수나로라는 단체가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 반성폭력 공부모임의 이행 이라던지, 피해자 중심주의적
 사고라던지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액티브한 지원보다는 패시브한 지원을 많이 함

■ 아이디어

- 외부상담은 돈이 많이 들고, 폭력에 대해서 상담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상담이 필요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받을만한 사람들을 알아두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 문제가 어
 려운 감이 있음.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하고, 끈대이지 않아야 하고, 거리가 어느정도 있어야 함. 성소수자판은 인권감수성이 있는
 상담사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음.

-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 말을 다 들어주고 관심을 쏟는 건, 오히려 피해자에게 낙인이 될 수 있음. >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와 신뢰,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술값을 지원할까 하는 이야기가 나옴.

논의

■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

-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경우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반성과 사과를 완료하고 자신의 폭력을 인지한다
 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맹목적인 증오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음. > 가해자가 사과 안하고 뺨꿘을 때에도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환자 취급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단체의 대응이 필요함.

■ 지원 방향과 2차가해

- 지원,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역할 > 2차가해 예방에 대한 고민지점
 은? > 평소에 하는 교육이 아니면, 2차가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있지? 일상 속에서 2차가해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하고 경계
 하는 자리의 필요 > 2차가해는 몰라서 저지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서 하는 경우가 많음. > 대책위가 어떤 사건을 접수받았을 때,
 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행동지침처럼. 이런 건 2차가해입니다. 하는 > 제가 피해자라면 그런 걸 올려야 하는 단체 분위기가
 신뢰를 주지 못할 것 같음.

- 사건 발생 후에 대책위가 할 수 있는 일 > 예방은 어려운 일 같고, 2차가해적 게시글이 있을 때 선삭제 후공유 등의 조치를 하는 권한과 재량을 주는 것이 최선일 듯. 또한 가해자가 자기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 감성적인 글을 써대는 경우가 있음. > 가해자가 사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할 수 있게끔, 공부모임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 처리과정에 참여하기 등을 통해서 미리 고민해 보는 게 최선 아닐까. > 대책위만들기,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과정에 참여하기, 가해자 입장에서 참여하기 라는 커리큘럼이 만들어 졌다.

■ 가해자의 조치 이후의 상황?

- 가해자가 사과도 하고, 조치를 다 이행했는데도 피해자가 도저히 같이 활동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엔? > 그럴 경우엔 피해자가 본인의 감정이 합당한 이유없이, 트라우마가 작동되는 식이라면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피해자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떠받들듯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그리고 피해자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화가 난다고 할때는 상담같은 도움을 중 수 있지 않을까 하는

■ 사건 해결 매뉴얼

- 만약 우리가 사건 해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면, 피해자에게 '내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주며, 그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이수를 해도 감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일 때,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 상담이라거나 쉬고 오겠다거나 그런식의 안내? 양해? 가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납득할 수 있을 것.

- 피해자가 이수나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것을 매뉴얼 식으로 정리해 두는 건? >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민만할 것 같다. 그리고 안되는 건 너무 명확할듯. 예컨대 정권교체와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게 명시되어 있으면 열받을 것 같아. >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명시 필요성을 느끼는 건, 상담사를 모색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비용은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 이수나로의 상황과 함께 왜 지원할 수 없는지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거지, 우리가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닌듯. > 다양한 방식의 모색을 차단할 수 있다. > 정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모금을 할 수도 있음. 가해자가 보통의 경우엔 도망가거나 잠수타니까. > 아니면 민사소송 초기 비용을 지원해 준다던지?.

■ 2차 토크 (2015.04.26)

참가자: 파이루, 마카롱, 미야, 윤쓰리, 빈둥, 난다, 영서, 루블릿, 둠코, 물병

[주제1] 반성폭력 공부모임

발제

발제 1)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부 회원: 광주지부 빈둥

■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지부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1) 부족한 인권감수성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리기까지

- 광주지부가 생긴지 오래됐는데, 2015년 4월에 반성폭력공부모임을 두 번 하고, 그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음. 무조건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도 있었음. (윤쓰리: 광주지부 2012년 상반기에 공부모임 한 번 진행은 했었는데, 그냥 2011년에 서울지부에서 공부모임 진행했던 자료 읽고 끝났음. 안 한 거나 다름 없었음.)

- 시기별로 인권감수성에 대한 차이가 있었음. 아수나로 내에서 합의된 이야기들을 얼마나 알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봄. 2010년 쯤에는 나도 기존의 활동회원들에게 아수나로 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나 인권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인권은 청소년인권/학생인권 위주로만 이야기함. 2010년 5월에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발언이 나온 이후, 성차별적 발언이 내부적인 문제제기를 당하고 사건이 다시 떠올랐는데, 문제제기 이후 지부 내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약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게 된 거고, 정 불편한 표현이었다면 미안하게 됐다', 라는 식으로, 사과라고 보기는 힘든 반응이 나옴. (그건 주변에서 보게 된 거였고, 그걸 지부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었나? ▶ 없었음.)

- 여성을 꽃에 비유한 발언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오프라인에서 한 번, 온라인에서 한번 더 이야기 되었지만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함. 문제의식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문제의식도 거의 없었고 지부 내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던 인권감수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

- 성평등에 대한 발언만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발언도 있었음. 생물학적 여성에게는 남자친구 없냐고 물어보고,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여자친구 없냐고 물어보는 이도 있었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병신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고 문제제기도 받지 않았음. 그런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분위기도 있었음.

- 2010년 이후에는 한동안 회의도 파토나고 뉴페공부모임도 버거웠음.

- 반성폭력공부모임을 갑자기 두 번이나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와서 가능했다고 생각. 오래 활동한 활동회원들도 3명 정도 있었고 총회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 물어오면서 관찰아지지 않았나. 지부 안에서도 비공식적인 고민을 많이 나눔. 2013년 말에 회원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많아지고, 그 당사자들의 고민도 듣게 되면서, 각각의 마이너리티/고민들을 들어볼 수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 지부 활동회원이 아닌, 다른 인권운동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공부모임을 함. 그리고 탈가정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하면서 고민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짐. 광주지부에서 반성폭력공부모임까지 할 수 있게 됐던 건 이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듦. 활동회원들이 많아지면서 반성폭력공부모임에 대한 언어 정도는 나왔는데 계속 미뤄졌던 이유가, 2013년 말에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때 맨날 요즘것들 배포 캠페인을 하는 등,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못함. 공부모임을 텍스트로만 하다 보니까 망하던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뉴페공부모임만 꾸준히 했음.

2)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간과했을 때

- 반성폭력 공부모임의 필요성이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14년 광주지부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 때문이었다고 생각함. 피해자가 나에게 피해호소를 할 때 자신이 구제받으려고 하거나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친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나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식으로 이야기함. '반인권적행위에 대한 내규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을 하고, 공부모임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듦. 그 사람은 반인권적 행위 내규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음.

3) 세미나팀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하자고 했다..!

- 2015년 초에 세미나 팀이 만들어짐. 우리도 반성폭력 공부모임 하자, 어차피 안 하기도 했고, 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하고. 그런데 지금 광주지부 사람들이 반의 반토막이 나서 좀 힘들었음. 세 명에서 팀을 꾸려서 기획안을 쓰고,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눔. 첫 번째는 성폭력이나 성차별이나 기초적인 개념들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썸데이수다회/고민나누기 이렇게 두 차례 진행함.

■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는지

1) 세미나팀이 기획안을 만들 때(진행을 고려하면서) 골 때린 것들

- 첫째는 어떻게 반성폭력공부모임을 파트를 나눠야 하지? 이것도 이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나누기가 애매모호함. 두 번째는 답론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나눠버리면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될 것 같은 느낌. 세 번째는 우리 내규에 맞춰 이야기를 할까 / 성폭력,반성폭력에 맞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고민. 내규가 성폭력을 중심으로 많이 다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반인권적 행위' 내규이니까.

- 1겨시: 내규 한번만 읽으면 한 방에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읽으면 "와 좋다 정말 좋다 이응이응" 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

2겨시: 진행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음. 썸데기가 사람의 외관을 보고 차별하는 것들, '너는 남성이니까 이성 애자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 썸데기수다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달걀을 삶아서 매직으로 껍질에 차별에 관한 것들을 적은 다음 나중에 깨먹음.

2) 반인권적행위에 대한 내규와 반성폭력 사이, 언어에 대한 개념

- 내규의 구체적인 개념 등이 성폭력을 위주로만 많이 다루고 있음. 그래서 내가 오진식 걸로 대학 도서관 로그인해서 논문을 짱 다운로드해서 젠더폭력도 찾아보고, 성폭력/반성폭력/다른단체 사례 등등 읽어봤는데, 그때서야 공부가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진행할 때 딱 맞추기는 힘들. 구체적인 상이 필요할텐데, 딱 잡아서 이게 안 됨. 그 한계를 전제하고 가더라도 진행이 느려지거나 좀 별로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단 느낌. 그래서 반인권적 행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 어디까지 개념화시킬 수 있을지 하는 고민들이 있었음.

3) 다른 공부모임과 비교해 콘텐츠가 부족한 반성폭력 공부모임

- 뉴페공부모임은 ppt도 많이 올라오고, 예전 자료도 엄청 많은데,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진짜 없음. 그래서 찾아보고, 세미나팀에서 페이스북 그룹을 팜. 괜찮은 것들 다 링크 걸고.. 그래서 찾은 것 중에 '억압된 다수'라는 프랑스 단편 영화가 좀 괜찮았고.

- 글들 찾아보면 많은데(공현이 내부위키에 올린 것들 /반인권적 행위 내규 등) 그게 어쩐지 어려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응이응하고 끝날 것 같고.

-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체의 무게를 줄이긴 힘들겠지만 / 줄여서도 안 되겠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했던 게 달걀 껍데기에 차별에 관한 것들을 적어서 깨서 먹는 것이고.

4)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부모임

- 광주지부 인원이 반의 반으로 줄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공부모임의 양/질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인원이 확 줄어서 공부모임을 하기가 힘들어짐. 공부모임을 하자고 모였는데 절반 이상이 세미나팀이고. 그래서 광주지부에도 새찾사팀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이..

■ (어떤)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공부모임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있음. 인권교육하면 되게 방법론 많지 않나. 근데 반성폭력은 그런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 반성폭력 교육이 민우회 등에 있었을텐데, 우리 공부모임이란 비슷할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 교육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교육에 대한 일반화인가 하는 고민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고 할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료들이 있는지 요청해봐도 될 것 같고.

-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너무 공부공부한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음. 뉴페공부모임이나 인권교육이나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인권을 존나 공부한다고 해서 인권 똑똑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성폭력 공부모임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너무 공부공부스러운 것들 (공현이 글을 쓴 것들이나 논문을 찾아 뽑아 읽는것)은 필요하고 그런 것 자체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공부공부한 게 얼마나 일상적인 반성폭력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음.

- 어떤 내용으로 공부모임을 채울 수 있을까 할 때, 페미니즘 등이 있을텐데, 페미니즘도 그 안에서 너무 다양해서 좀 고민이 됨. 그런 부분부분들 나눠서 그걸 반성폭력 공부모임의 일환으로 둘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음. 반성폭력공부모임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고가 될 수 있을테니.

관련 텍스트 및 영상은 '억압된 다수' 등. 아동 여성들이 쌍욕을 하면서 우리에게 왜 능력보다 예쁜 걸 요구하느냐, 고 말하는 영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참고할만한 영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겐 없을까. 뉴페공부모임 할 때 뉴페분들이 덜 낯설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하지 않나. 반성폭력 공부모임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 공부모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 지부 안의 분위기라던지, 문제제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라던지, 수용자의 태도 라던가, 어떻게 지부 안에서 의식적으로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광주지부가 공부모임을 하기까지 굉장히 중요했다고 느낀 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발제 2) 반성폭력 공부모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지부 회원: 수원지부 난다

■ 그 동안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 2012년까지는 안 봤고 2013년부터 정리함.

-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하기는 했는데, 총회 전에 후다닥 해버린 느낌.(개학 직전에 안 한 숙제 몰아서 하듯이.) 2013년 상반기는 7월에 경기지역 연합으로 진행함. 토리를 외부강사로 초청함. 그때 경기도에 지부가 다섯 개 있었는데, 그 모든 지부가 살아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공부모임을 기획함... 의정부지부랑 수원지부에서 모여서 진행함. 속기록 형식으로 남아 있는데 참여자 목록은 남아 있지 않음.

- 2013년 하반기 12월에도 함. 그때 수원지부 차원에서 아가지기하게? 모였던 느낌. 반인권적 행위 내규 내용을 한번 다 읽어 보고, 성폭력의 개념이 뭘까 이야기하고, 광주지부에서 봤다는 사례를 좀 더 편집?각색? 했던 것 같음. 활동회원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함.

- 2014년 7월에도 진행했는데, 이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움. 그때 내가 진행을 맡았는데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음. 2013년 하반기에 진행했을 때랑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었음. 반성폭력 관련 자료 읽어보면서 이런 게 왜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함. 이때 새로운 멤버들도 있고 해서 지난번이랑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감.

- 2014년 하반기에는 반성폭력공부모임이란 이름으로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수원지부 활동회원들끼리 성폭력/성차별 없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함. 페미니즘을 주제로 10월~1월에 세 차례 정도 모여서 공부모임을 진행함. '행복한 페미니즘'이란 '페미니즘의 도전'이란 책을 읽음. 행복한 페미니즘은 입문서로 추천받았는데 너무 어려웠음..

- 올해 3월 8일에 여성의 날이라며 공부모임을 진행함. 성폭력/2차가해 등에 대한 개념을 같이 봄. 이때, 대책위에서 인천지부에서 진행한 공부모임 PPT자료를 가지고 2차가해에 대한 사례 토론을 모둠을 나눠서 진행함. 성폭력에서 2차가해가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등의 이야기가 나옴.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등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제기하자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냐고 얘기했던 사례를 가져오거나 함.

■ 공부모임의 성과와 한계

- 지부 안에서 상황이나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과이자 목표이지 않을까. 그리고 평소에는

잘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 공부모임을 통해서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 광주지부도 청소년인권/학생인권 위주로 이야기하고 다른 건 잘 고민을 못 했다고 했는데, 아수나로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반성폭력적인 문화를 지향한다는 건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는 거랑 연결되는 것 같고 이 연결점을 발견하고 아수나로의 활동과 운영을 통해 이러한 가치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데에 공부모임이 도움이 됨.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과 콘텐츠의 부족. 그런 개념이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것.

- 활동한 지 1,2년 된 활동회원의 평가는, 공부모임 자체가 언어가 좀 어렵고 언어 자체가 잘 모르는 말이라는 거였음. 배경지식이 있다면 알 수 있을텐데, 뉴페분들에게는 어렵고 따분한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 공부모임 안의 내용들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건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것 같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건 수원지부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룰 때, 수원지부 멤버들이 고민을 꺼낼 수도 있고, 각자 경험을 갖고 얘기하면 공부모임 진행이 풍부해진다 하는 생각이 듦. 그런 점은 좋은데, 그때 그 시간에만 집중하고 거기서 한 고민들이 공부모임 안에서만 머무는 것 같다는 고민도 있었음.

- 수원지부가 개개인이 감성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서로의 표현에 대해서도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거리낌 없이 느낄 수 있는 문화인가, 하면 그건 좀 어려운 듯. 개인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 어려운 건데,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꾸준히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굴러갔던 일상이나 활동 속에서 우리가 기대를 갖게 하기에는 부족한 느낌.

- 공부모임을 자주 하고 내용을 심화하는 게 필요한 걸까, 했을 때 그것만은 대책이 아닌 것 같고- 단체 차원에서, 살펴볼 내용을 찾아보는게 필요. 그리고 수원지부가 멤버가 거의 똑같음. 조금씩 새 멤버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거의 1년 넘게 신입회원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꼭 공부모임에서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계속 비슷한 고민들 이야기로 머문다 하는 느낌. 바깥의 다른 단체들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교류하는 등, 대책을 같이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듯.

논의

■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방식

- 수원지부는 작년부터, 달마다 있는 기념일들에 맞춰 공부모임을 진행하자고 이야기함. (식목일에 채식공부모임을 한다거나, 여성의 날에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한다거나) 결과적으로 달마다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연초 등 전반적인 활동계획을 잡는 때에 계획을 세워 둬. ▶ 정말 뻥센 듯.. ▶ 준비를 하던 입장이라 그런가, 전혀 뻥세다는 느낌은 안 들었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저 공부모임 망했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듦.

- 책을 읽고 진행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읽는지? 서울지부는 사람들이 책 읽는 건 당연히 포기함. ▶ 다 안 읽어옴. 책을 구하지도 않고 모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책 거의 다 읽고 쪽글까지 써오는 사람도 있음. 그리고 "목차는 봤어요", "빌리려고 했는데 못 빌렸네" 등의 사람들이... 책 읽고 진행하는 공부모임은 올해 초를 마지막으로 안 하고 있음.

- 광주지부는 발제자가 발제 당일엔 발제글을 올리거나, 그 전날 새벽에 올리거나... 그리고 정작 발제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자기가 뭘 썼는지도 모르고...

■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공부모임에 대한 평가

-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우리에게 지부 내에서 반성폭력 감수성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되기는 했는가,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해왔을 때 어땠던 것 같은지, 실제 감수성을 키우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듯.

1) 사례토론 & 시물레이션 & 내규 읽기 (실전경험 키우기)

-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읽었을 때,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념들을 알 수 있었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음. 그러나 내규를 읽

는 건 일상적인 반성폭력 문화에 기여한다기보다는, 내규를 읽고 해석한 것에 불과한 느낌. ▶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공부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 작년 성폭력대책위가 인천에서 공부모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반응들이 많단 거였음.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공부모임에서 조별로 나눠서 대책위 꾸리는 과정을 진행했던 것도 있음.

- 수원지부에서 대책위 자료 가지고 공부모임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이입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니까 일상과 접목되었다는 느낌이 들. '와 좋은 글이다 짹짹'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인물에게 이입해서, 그 상황에서 하는 주장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했음.

- 내규를 읽었을 때, 아니면 내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들이 각자에게 다가오는 게 다름. 내규를 읽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챙기게 될 수 있는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했을 때 당황하는 게 있음. 좀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해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부모임을 생활 속에서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 수원지부는 주로 사례토론을 진행했는데, 과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겪은(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던 공현이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함. 교육에서도 보통 사례 토론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이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보려면 감수성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가장 무난하게 직접적으로 감수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인 듯. 사례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오기보다는 각색한다거나 했을 때.

- 사례를 접하면서 감수성을 향상하는 것도 가능할 순 있는데, 되게 위험하지 않나? 시뮬레이션에서 사례를 소개하며 이리이러한 성희롱 발언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 그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건 인식하겠지만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왜 성희롱인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이성애중심주의/여성에 대한 대상화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멘트가 까리하다거나, 언어가 덜 나빠보인다거나 하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가 꽃이라고 하면 안되는구나'라고만 이해하고서 여성을 계속 비하한다거나.

구체적인 프로세스/해결과정/상황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문제인가로 받아들여야 하려면, 그냥 해결과정을 설명하고 연습해보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등 '반성폭력 감수성'이라고 불릴만한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고 학습이 되어야지 그런 해결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표현뿐만 아니라 맥락을 살펴볼 수 있을텐데 그게 가능할까.

왜 여성이 그렇게 차별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라던지, 그런 걸 사례 하나하나에 이야기할 순 없는 거니까. ▶ 그런데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까? 왜 이게 문제적인지 이야기할 때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짧은 순간에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만 끝나지 않지 않나. ▶ 사실 절차 얘기할 때도 사례 없이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개념을 설명하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하는데, 대책위 시뮬레이션은 그걸 거꾸로 해서, 일단 처리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개념을 녹여 설명하는 목표였음.

- 공부모임의 목표가 감수성을 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학습하는 데에는 효과적인데, 감수성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긴 한 것임. 다양한 사례를 그 자리에서 다 다루진 않으니까.

- 감수성을 키우는 공부모임이라는 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긴 한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2) 책 읽기 공부모임 (감수성 키우기)

-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감수성이 갑자기 향상되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과정이 있어야 발전적으로 재해석되고 감수성으로 흡수되는 건데, 그런 게 있나..

- 일단 사람들이 책을 안 읽음. 현실적으로 책을 읽을 사람들도 없음. 우리의 감수성/지식적 수준에 맞는 책을 찾기도 읽기도 힘들.

3) 전체적인 평가 (진행, 방향 등)

- 지금 다들 지부들이 소규모이다 보니 공부모임을 준비하면 분위기가 안 잡힘. 사무실에서 잉여잉여거리던 애들이 모여서 '우리 오늘은 공부모임을 합니다' 하면 뽀뽀해져서 까마득해짐. 사생활과 회의가 분리되지 않는 느낌.

-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음. 하나는 반성폭력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공부모임 / 그리고 또 하나는 내규

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과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인데, 이는 반성폭력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듯. ▶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모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분돼서 진행되어야 하나? ▶ 구분이 가능한가? ▶ 내규를 읽는 방식, 시뮬레이션 방식 등은 대처능력을 함께 키우고 방법을 안내하는 데엔 효과적이지만, 반성폭력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어려움.

- 반성폭력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공부모임과, 그게 사례로 넘어왔을 때 각각의 폭력적인 맥락을 감지하고 어떤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외부 사람들에게/단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유효하게 먹힐 수 있게 하느냐를 고민하는 공부모임이 있음. 전자 같은 경우에는 타 인권 단체 등에서 사용한 다양한 인권교육방법론을 통해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힘. ▶ 수원에서 진행한 사례토론 같은 게 후자의 방식 아닌가? 대책위가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뮬레이션 방식이 충분히 사건해결과정에서 내가 당사자라면, 내가 대책위라면/피해자라면/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개념을 확장하고 반성폭력 감수성 자체를 키우는 공부모임이란 게, 커리큘럼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이.

■ 앞으로의 공부모임은 어떻게?

- 공부모임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일상적인 건 공부모임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부모임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거나, 과정을 세운다거나. 나머지는 지부 안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공부모임으로 만들 수 없는 한계를 지부 안에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챙길 수 있을지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듯. 야 공부모임 하자 해서 공부모임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만나면 은근슬쩍 그런 이야기들, 고민 같은 것들을 끌어내본다던지. 약간 가식적인가?

- 일상적인 반성폭력 문화라는 것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당장 쌓을 순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인권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자주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면, 피해자중심주의 같은 단어에 대한 개념을 빠삭하게 알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단어가 나오게 된 맥락은 알게 되지 않을까.

- 지부별로 반성폭력 공부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지부에서 이야기하다보니 이런 고민이 들었다, 우리 공부모임은 어떤 게 좋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1년에 두 번씩 전논자 같은 자리에서 하면 어떨까? ▶ 생활총화야?

- 우리가 공부모임을 집중적으로 잘 안 하고, 대충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걸 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인데, 이 우선순위를 좀 높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 우선순위를 높게 잡으려면,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간의 페미니즘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어떤 계기, 분위기가 존재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페미니즘과 청소년 운동의 연결성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

- 반성폭력공부모임 대신해서 반인권적행위 공부모임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 그 단어가 턱이 있는 느낌이 강함. 뭔가 특수 용어 같다는 느낌. 어차피 아수나로는 인권단체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함께 다루고 주제들을 다룬다면 개인들 입장에서라도 가지게 되는 부담도 줄고, 전반적인 필요성 자체가 늘어날 수 있고. 반말/호칭 등을 포함해서 하나씩 훨씬 더 활동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라고 해도, 어떤 성폭력 문제보다는 조금 더 자기에게 와닿는 케이스를 함께 다룰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지 않고 반인권적 행위 내규를 만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취지를 좀 더 확장시키면.

반성폭력공부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페미니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끄집어내서 쉽게 만들어서 요약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시선들이 있는 것인데, 반인권적내규 공부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체 내에서 합의한 부분들을 재접근하고 인식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느낌임.

- 범위가 넓어지는 게 장단점이 있을 듯. 반성폭력이란 관점으로만 보면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용어에 대한 개념 등은 배우기가 어려울 것이고, 진행에 있어서도, 지부에 따라서 난잡하게 진행되기 쉬운 경우도 있을 듯. 꾸준히 계획을 갖고 하면 연계성을 가지면서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지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그때 준비하다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음.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어려울 수 있음. ▶ 어차피 반성폭력 공부모임도 하려면 테마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진행할 때 전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성폭력은 뒤편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할래요까지 가려면 훑어보는 것만도 2박3일을 잡아야 함.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등 소수자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성폭력 개념은 아니지만 그 사례들을 듣는 건 사실 성폭력에 대한 맥락들과 결이 같을 수 있지 않나. 장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사실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표현이라는 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표현들이, 여성을 억압하고 대상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그리고 항상 나오는 변명논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들이 소수자들 속에서 통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개념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 공감되고 있다면은 그게 꼭 '가해자의 방어'란 식으로 정리되지 않더라도,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정리되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하고 감수성 자체가 올라간다면, 그걸 사건의 해결과정 프로세스 속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은 듯.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부모임이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해자에 대한 고민은 다른 주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

- 우리가 사람이 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바뀌지 않는 사람들과 공부모임을 하는 게 공부모임의 효과만 봤을 땐 좋음. 정해진 사람들이 계속 공부모임을 끌고 나가는 게, 이미 합의된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깊게 파고들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기존 멤버들간의 정보/인식 차이가 되게 크겠다는 생각이 듭. 청소년인권 이야기할 때도 감수성/정보 차이가 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

- 커리큘럼을 나눠서 두세 개로 나눠야 하는 건가?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아수나로 역량상 그게 온전히 커버가 될까? 하는 고민도 듭. ▶ 만약에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파고드는 방식이 아니라, 인권감수성 전반을 다룸으로써 반성폭력 감수성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라면, 그런 감수성적인 차이/지식적/정보적 차이가, 주제 자체가 다양해지니까 커버가 되지 않을까?

- 인권운동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제 별로 나름대로 커리큘럼이 있음. 우리처럼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투맨이라고. 서울지부에서 멘토/멘티제도 진행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좀 더 체계적인 무언가가 있나 봄.

아수나로는 지역별로 조금씩 사람이 있고 사람 교체가 엄청 빠르지 않나. 거기서 코스 ABC를 굴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 계속 초심자 코스만 굴리고 있고, 그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함.

- 교육방법적인 면에서는, 반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부모임 주제 자체를 인권감수성 전반으로 넓히면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해소되는 부분인가? ▶ 자연스럽게 해결되진 않을 듯. 사실 방법론이라는 게 교육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있음. 그런 인권교육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공유한다거나 하면? ▶ 뉴페공부모임처럼 서로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없는(서로 말을 별로 안 해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인권교육 방법론적 고민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활동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모임은 테마만 잘 잡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안 해본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건 지부마다 다를 것 같긴 함. 지부마다 인원변동이 격렬한 경우도 있고 하니.

- 인권감수성 전반에 대해 공부모임이 진행된다면, 기획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 같지 않나. 예전에 장애단체에서 했던 소수자연대 토크에 소환됐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애단체에다가 장애단체 커리큘럼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활용 가능한 외부 콘텐츠나 역량들도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고민을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성폭력사건해결과정 속에서, 혹은 반성폭력 관련한 개념의 어려움들은, 감수성 향상 교육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등에서 커리큘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짤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듯. 원래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쫓고 얻어먹으면 안 돼요. 여성운동에서 100년 동안 얻어온 거니까 100년 동안 공부해야지(...)

- 우리가 페미니즘/여성주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차별적인 언어와 문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소통방식을 새롭게 발견해나가야 하는 거잖아. 그 지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의.

- 다른 공부모임들에 비해서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는 현저히 적지 않나. 뉴페공부모임은 찾아보면 다 있는데,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거의 없음. 뉴페공부모임을 반성폭력 공부모임보다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인가. 뉴페공부모임은 대강의 커리큘럼은 있는데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없음.

- 타 인권단체에서 전에 제시되었던 인권운동 방법론적인 콘텐츠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걸 반성폭력 공부모임에 적용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다. ▶ 민우회 등을 보면 분명 반성폭력 교육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런 단체들의 자료들 중에 참고해볼만한 게 있지 않을까. ▶ 서울지부에서 한번 민우회 같은 곳 활동가를 강사로 초대해서 반성폭력 공부모임 진행했었는데, 정말 구렸음. 부장님 성희롱 이런 거 이야기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느낌인데, 상당히 이성애중심적이었음. 아수나로랑 너무 다른 문화와 케이스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다 보니 아수나로 활동가들이 거기에 공감되거나 몰입되거나 고민하기가 너무 어려움. 그런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게, 우리는 부장님도 없고 성소수자가 더 많고.. 이성애자가 수적으로 소수자였던 때도 있었고. ▶ 우리는 우리가 시작부터 해야 할 듯.

- 경기도 지부연합으로 공부모임 진행했을 때는, 강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당시 교육을 받

있던 사람들의 감수성이 제로여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밌긴 했음. 부장님 얘기는 아니었긴 한데. ▶ 단체마다 다들 수밖에 없고, 소수자 연대 등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공부모임 내용이랑 같이 얘기를 하려면 행정인(동인련)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등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내규도 대외비고 다 대외비야.

- 한국성폭력상담소/민우회 등에서 교육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나? 자료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정당 같은 데는 교육 같은 거 진짜 잘 안 한다고 하니 제외하고.. 관찮은 곳 물색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참고할 만한 걸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재구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계를 인식하고 교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봄. 다양한 이야기로 얘기가 확장됐을 때는, 페미니즘을 얘기할 땐 당연히 이성애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작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권력 등이 역사적으로 중점적이었으니까. 그게 확장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성애중심적이라고 느껴질 법한 포인트들이 있음. 그걸 한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성소수자 이야기는 성소수자 주제로 한번 더 해보고, 페미니즘을 공부할 땐 그 나름의 한계를 인식하고서 진행하다면 각각의 정보를 취합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외부자료나 책이나 사람이나 교육/커리큘럼을 활용하는 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듯.

- 이렇게 공부모임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주제 자체를 넓게 잡고 하는 게 아수나로의 자연스러운 방식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굳이 섹슈얼티를 만들고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회칙에 넣고 한 맥락들이 있을텐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그것들을 이제 와서 완전히 전환시켜도 괜찮나?

[주제2] 섹슈얼팀

발제

발제 1) 섹슈얼팀 회원: 루블릿

■ 섹슈얼팀에서 생각했던, 섹슈얼팀이 하고자 했던 역할

1) 섹슈얼팀의 간단한 역사

- 아수나로 내에 성폭력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6개월에 한 번씩 지부별로 반성폭력공부모임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규에 들어갈 때 함께 만들어짐. 2012년 10회 겨울총회에서 각 지부별 담당자를 정해서, 그 담당자를 중심으로 아수나로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게 목표였음. 하지만 아무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 하반기에 전체팀 체제로 새롭게 출발함. 2015년 1월에 팀의 명칭을 '반디팀'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

2) 섹슈얼팀이 하고자 했던 역할

- 초기(~2013년 제 12회 겨울총회 이전): 각 지부 내 성폭력적이고 반여성주의적인(혹은 남성중심적인) 분위기나 사건에 대해 견제 및 문제제기하고, 상담을 받는 역할
- 현재: 일상적인 반성폭력적인 분위기 뿐만이 아니라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이야기를 던지기

■ 팀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

1) 개별 사업 평가

- 잠깐 사업: 반성폭력 담론의 맥락과 단어를 설명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로는 좋았으나, 실제로 읽고 나서 사람들이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글이 절반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음.

- 성폭력사건 아카이빙: 반인권적 행위 대책위에 참여하면서, 대책위 활동에 대한 매뉴얼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자료가 그나마 도움이 됐던 듯. 그런 데서는 의미가 있었음.

- 반인권적 행위 내규 공부모임 자료 생성 및 공부모임 진행: 내규를 가지고 팀 내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공부모임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공부모임을 가는 것까지 진행한 것은 매우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함. 그게 한 번 뿐이었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 다른 지역으로 공부모임 간 적 없음. 울산지부에서 공부모임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섹슈얼팀 팀원들이 일정이 안 돼서 울산지부에게 자료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부모임 진행하라고 전달함.

- 반성폭력 공부모임 자료 생성 및 공부모임 진행: 아수나로 내의 반성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주기적으로 진행하자고 회칙에도 넣기는 했지만 봤다시피 제대로 한 데가 없음.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봤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루어졌다/ 사업의 역량 때문에 / 등이어서, 섹슈얼팀에서 이 어려움을 덜기 위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부모임을 다니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진행 중.

- 아수나로 상시고민센터: 사람들이 아수나로에서 이야기하면 문제제기를 당할까봐/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을 때의 창구.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들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나가는.

2) 전체적인 활동 및 운영 평가

- 이전 섹슈얼팀이 생산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움. 1년 넘게 아무 것도 안 하다가, 2013년 들어와서 활동이라 할 만한 것들을 했지만 그때도 팀이 잘 굴러갔다고 보기 힘들. 회의가 과도나고 나서 일을 누가 맡을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일이 늘어졌던 평가도 있음. 잠깐사업 같은 경우 예정보다 글이 훨씬 적게 적혔고, 성폭력대책위 아카이빙 또한 예정보다 미뤄지고, 흐지부지됨.

- 팀이 잘 안 굴러갔던 건 1차적으로 섹슈얼팀원들의 잘못이긴 한데, 알아서 잘 굴러가겠거니 하고 내버려둔 다른 활동회원들

또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섹슈얼팀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섹슈얼팀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1) 섹슈얼팀은 어쩌다 반디팀이 되었나

- '섹슈얼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반성폭력이랑은 잘 안 이어짐. 섹슈얼리티/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청소년 성소수자 관련된 활동을 하는 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음. 우리의 목적은 반(성)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부 논의를 통해 이름을 바꿈.

2) 반디팀은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는가

- 목표를 거창하게 세운진 않음. 현재 이수나로 내에서 반성폭력적인 감수성을 기르는 활동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반성폭력공부모임을 진행하는 게 사업의 한 축. 공부모임 자체를 하는게 힘든 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느낌으로.

- 이수나로 상시고민센터 같은 느낌으로, 지역모임/전체차원에서 공론화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론화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고,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장치로 쓰이지 않을까 함. 이런 것을 가지고 반디팀이 하고자 하는 역할은, 활동회원들을 반성폭력/반폭력 담론과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마치 무슨 결정을 내려주는 것처럼 '이건 폭력적이니까 년 안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한번쯤 고민해볼 수 있게끔 고민을 던지고 이야기를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부들과 많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모임/활동회원들이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할 듯.

- 정리: 반성폭력에서 반인권적 행위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반디팀으로 전환. 올해는 공부모임 자료와 진행을 돕고, 고민센터를 통해서 활동회원들이 반성폭력 담론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발제 2) 섹슈얼팀 외부 회원: 영서

■ 섹슈얼팀에게 기대했던,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역할

1) 문제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창구

- 물론 섹슈얼팀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나, 어느 정도는 상시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위원회 대처방식에 대해 고민을 나눈다거나 하는 것들이 섹슈얼팀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

2) 이수나로 안의 반성폭력적인 문화와 분위기 조성

- 이수나로 활동가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의 감수성에 대한 차이를 느낄 때가 많음. 활동가들의 감수성을 향상하고 이수나로 내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주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게 섹슈얼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또,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잘 안되는 지부를 돕는 것도 역할에 포함된다고 생각함.

■ 섹슈얼팀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

- 활동회원이 됐을 때, 섹슈얼팀이 존재한다는 소문은 가끔 들려왔는데, 활동은 없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2013년 여름총회 때 팀이 재구성됨.

[각각의 사업에 대한 평가]

- 잠깐사업: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제도 없었고, 카페라는 공간 특성상 이야기가 많이 오가기도 어려움. 이야기도 많이 오가지 않았던 것 같음. 사람들이 보기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고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함. 글들을 모아서 반성폭력 공부 모임 자료로 활용하거나, 여름총회 등에서 카페에 올라왔던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본다거나 하는 활동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 글이 자주 올라오지 않았음. 잊혀질때쯤 되면 이상한 제목이 올라와서 아 다시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함. 섹슈얼팀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진행이 안 됨.

- 성폭력사건 아카이빙: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게 없었는데, 사건이나 해결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대책위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음.

- 반인권적 행위 내규 공부모임 자료: 공부모임이 울산에서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쉬움. 그리고 ppt가 엄청 방대한 건드리기 어려워보이긴 한데 추후에 활용될 수 있을 듯.

- 전반적으로 팀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는 느낌. 지역모임들 중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 섹슈얼팀이 챙겨주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듦. 섹슈얼팀이 역량이 크지 않아서 그동안 신경쓰기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함.

- 계획했던 만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섹슈얼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팀원인 활동회원 개인의 사정이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듯.

- 섹슈얼팀에 대해서 다른 활동회원들의 일상적인 관심이 크지는 않았던 듯. 다른 전체팀은 신문을 만들거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데, 섹슈얼팀은 좀 더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들거나, 그런 걸 해와서 좀 더 잊혀지기 쉽지 않았나. 다른 전체팀 사업은 카톡/사석/지부 회의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거나, 일하라고 쫓을 때가 있는데, 섹슈얼팀은 유독 그게 없는 팀들 중 하나였던 듯. 다른 활동회원들이 섹슈얼팀을 좀 쫓아주었으면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 지금 섹슈얼팀이 진행하는 상시고민센터랑 반성폭력 공부모임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음. 아수나로 내에서 지금까지 성폭력/폭력에 대해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도 없었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도 그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고, 공부모임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못했으니. 상시고민센터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상시니까, 초기에는 고민이 많이 모아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잘 챙겨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섹슈얼팀의 필요성

- 그동안 섹슈얼팀이 아수나로의 반성폭력적 문화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부족했던 건 사실. 근데 그건 섹슈얼팀 뿐만이 아니고, 단체차원에서의 노력도 크게 부족했던 듯.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할 반성폭력 공부모임이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게 뒤늦게 공론화된 것만 보아도 우리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고.

- 지금 우리가 작년 인천 성폭력 사건 이후로 한 사건의 해결을 넘어서서, 아수나로 전반의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망각의 동물인 만큼, 이런 논의들조차 잊어버릴 확률이 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수나로 내에서 계속 챙기는게 필요하다고 생각. 그게 꼭 섹슈얼팀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전체팀이라는 것 자체가 아수나로 전체 차원에서 신경써야 할 무언가를 담당자 하나 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챙기고 기획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섹슈얼팀이란 전체팀 형태가 가장 적합한 듯.

- 섹슈얼팀만큼이나 다른 활동회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해야 할 일은 늘 많고 바쁜데, 다 같이 신경써야 할 문제라서. 지금 섹슈얼팀이 진행하는 활동들이, 섹슈얼팀에서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큼.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지, 섹슈얼팀 시즌2 같은 느낌(루블릿 : 시즌 3!)도 들고.

-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잊혀지지 않게 챙기고, 성폭력 피해호소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가 필요한 듯. 다만 그동안 아수나로 단체 안에서 계속 반성폭력이나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나, 이야기거리들을 던지는 것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그걸 위해서 잠깐사업을 했던 것 같음.

- 지부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섹슈얼팀이 지금 수도권에 모두 몰려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울 듯. 그래서 권역별로 팀원이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도 들고. (똥코: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회의가 거의 잡히지 못하면서 한지역에 모으기도 했던 것인 듯)

■ 지금까지(2014년까지)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평가

- 섹슈얼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팀 운영 자체가 폭삭 망하는 상태가 엄청 자주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섹슈얼팀 자체가 가지는 예상 가능한 문제점인 것 같다. 대외사업이 거의 없고 내부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거나, 긴장감이 잘 조성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쉽게 생기는 것 같음.

- 섹슈얼팀에 그동안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덜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개개인이 '섹슈얼팀!!' 이런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지부활동에 치이고, 각자의 담당들에 치이고, 그리고 섹슈얼팀은 그다지 활동을 많이 하지도 않고,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 2014년에 활동을 시작하고 섹슈얼팀에서 잠깐사업 진행하는 걸 보면서, 팀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끼리 페미니즘 등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그들이 공부한 것이 아쉬운 내부에 반영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음. 아쉬운 전제를 겨냥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지부로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단 느낌이 들었음. 그래서 2014년 여름총회 때 섹슈얼팀 활동이 지부랑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온 듯.

- 회의록 내용들은 주로 누가 안 왔다, 누가 일을 안 했다, 누가 한 시간 반 늦었다, 누가 활동 그만둔다, 누가 팀 나가겠다고 한다 등등밖에 없었음. 회의 때 회의록 작성을 주로 맡곤 하던 사람이 회의록 길게 쓰는 걸 혐오해서.. 그런데 혐오하는 거랑은 별도로, 한 얘기가 없으면 회의록에 쓸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긴 할 듯.

- 2013년 쯤에, 수원지부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진행하려고 할 때 섹슈얼팀 팀원에게 반성폭력 공부모임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음. 그 팀원은 "그건 교육연구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함. ▶ 그 당시의 섹슈얼팀은 반성폭력공부모임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른 지부들도 그렇게 생각했음.

- 꼭 공부모임이 아니더라도, 섹슈얼팀이 생겨난 이후에 아쉬운 나의 반성폭력 감수성이 향상되거나 자극이 됐는가라고 냉철하게 생각해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함. 잠깐사업도 처음에는 낚시성 제목으로 활동회원들에게 즐거움을 주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적응해서 재미가 사라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 섹슈얼팀원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생각들이 네이버에 떠돌고 있는 자료들과 함께 합쳐져서 정리는 됐지만, 그게 아쉬운 활동회원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만한 역할을 했을까. 글은 좋은데, 뭔가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좋은 글 같은 느낌. 그나마도 잘 안 올라오고, 섹슈얼팀 차원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하니까 팀원 개인들이 챙겨서 짜내서 써냈다는 느낌. 팀 차원의 무언가가 없었음. 글마다 조금씩 느낌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고민도 너무 다르고.

- 섹슈얼팀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처럼, 감수성을 자극하고 상담받는 창구 역할만이라도 열심히 했더라면 나았을 듯.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의 말 자체를 들어주기도 힘들었던 것은, 챙기지 못한 것들이 방치돼왔던 것인 듯.

- 그나마 한두 명 정도가 일을 개인적으로 잡았지만, 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는 건 확실히 너무 부족하니까 팀 운영이 더 안 되고, 팀이 망해가니까 더 안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느낌이 들.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잡기는 했지만, 혼자만 끙끙거리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였다고 생각.

■ 2015년부터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

- 팀원이 너무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것은 안 좋지 않을까. 논의를 위해 모이기에겐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지부로 갈 일이 있을 때 애매해짐. 공부모임을 진행해달라고 울산지부에서 요청했는데 못 간다거나.

수도권 쪽 지부들을 챙기기는 쉬울지 몰라도, 전체 차원을 챙기기에겐 힘들.

- 지부별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지부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섹슈얼팀이 그것을 전담하는 팀으로 바뀐 건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 섹슈얼팀의 탄생 자체가 반성폭력 공부모임의 등장과 함께였는데, 과거 논의과정에서, 섹슈얼팀은 공부모임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모임을 챙기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함. 지부들이 공부모임을 챙기지 않으면 지부에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팀에서 지부에게 공부모임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고 챙기거나 해야 했을텐데, 그런 게 안 됐다고 생각함.

- 성폭력을 성폭력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반인권적 행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섹슈얼팀이 반디팀으로 이름을 바꾼 게 좋다고 생각.

- 상시고민센터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뭘 평가하기는 어려운 듯.

■ 인권감수성/반폭력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섹슈얼팀이 필요한가

- 섹슈얼팀에서 반성폭력 공부모임을 준비하고 챙기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그런 역할을 장기적으로 맡는다면, 공부모임을 준비하는 일련의 커리큘럼 같은 것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섹슈얼팀은 교육연구팀 같은 느낌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 ▶ 모든 팀들이 교육연구팀 같은 역할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 아수나로 전체팀의 역할 중 하나는, 활동회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함.
- 반폭력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은 필요한 것 같은데, 불안한 이유는 뭘까.
- 섹슈얼팀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한 게 있어야 평가를 하지..
- 섹슈얼팀이 팀으로써 존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앞으로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방안

- 섹슈얼팀을 세 명 정도로 두면 어떨까? 어떠한지 팀처럼. 어떠한지 팀이 파이루/빈둥/은지 세 명이었는데, 그때 전주에서 만났을 때 되게 괜찮았음. 너무 많은 것보다는 3~4명 정도가 모이기에 수월. ▶ 반디팀이 현재 4명임. 수는 적당한 듯.
- 아수나로 내에서 반폭력적인 문화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섹슈얼팀이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애초에 섹슈얼팀이 다 챙길 수는 없지 않나. 그 한계점을 명확히 해서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섹슈얼팀에 대해 원하는 방향은 다들 비슷하는데, 이걸 보다보면 지부지원팀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지부지원이란 명목 하에 복도 치고 장구도 쳐야 하는- 그러면 다 못 챙기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할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이런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시고민센터와 반성폭력 공부모임 커리큘럼 짜기 및 진행인데, 공부모임 진행만 해도 이미 팀원들 일정이 벽찬데 상시고민센터까지 같이 하면 무너지지 않나? ▶ 사실 팀원들 일정이 벽찬 건 섹슈얼팀 일정이 많은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일정이 바빠서 그런 것. 그리고 상시고민센터는 회의 때에만 같이 논의해서 답변 달기로 함.
- 섹슈얼팀에서 다른 지역으로 왔다갔다 하기 힘들다면, 나뉘어지거나 대전 등에서 한 번 일정을 잡아서, 지부별로 한 명씩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자료들에 대해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지부에서 공부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떨까? 섹슈얼팀이 먼 거리 왔다갔다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공부모임 자료만 던져 놓으면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전달하기 힘들니까.
- 팀에서 진행하는 대외사업이 거의 없고 내부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4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거나, 긴장감이 잘 조성되지 않아서 팀 자체가 흐지부지되기 쉬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팀 내부적으로도 잘 챙기는 게 중요한 듯.
- 팀 운영에 있어서, 사람들이 실무에 치여서 일을 하는 방식보다는, 고민을 모으고 정리하는 이야기하는 작업들에 좀 더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팀들은 D-day가 정해진 대외사업을 진행하며 동력을 얻는데, 섹슈얼팀은 사람들의 고민을 계속 알차게 이야기하는 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까먹지 않고 모이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초창기니까 어쩔 수 없이 섹슈얼팀이 공부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직접 지부에 찾아가더라도, 하반기에는 섹슈얼팀이 직접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 커리큘럼을 잘 정리해서 지부들에서 알아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섹슈얼팀 사람들이 일정과 실무에 치이지 않도록 팀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상시고민센터가 섹슈얼팀에서 진행하기 괜찮다고 생각함. 고민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하고, 고민을 깊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수나로 내 여러 반성폭력/반폭력 감수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 또한 가능할 것이고, 고민상담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상시고민센터는 구글닥스 글들을 상시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팀회의가 있는 날 어떻게 답변할지 팀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임. ▶ 그러면 팀 회의가 주기적이어야겠네. ▶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데, 질문 양이 많으면 회의의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음.
- 구글닥스는 현재 루블릿 아이디로 뒀고, 팀원들에게 관리권한이 주어져 있음. 질문자가 질문을 내부계에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닥스를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가 어려움. ▶ 구글닥스가 당장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데이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팀 차원의 구글닥스 아이디를 만든

다거나 해서, 활동회원 개인들이 팀을 나가거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창구는 안정적으로 쪽 유지되고 자료가 쌓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질문을 받을 때, 팀 내부적으로는 데이터화해서 차곡차곡 쌓을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팀원이 교체되면 교체된 팀원에게 질문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안내가 필요할 듯.

- 이번 반기 때 이 두 사업을 굴려서 원활하게 운영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 감론을박하는 게 맞는지 고민되기는 함. 그것이 그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섹슈얼팀에서 반폭력에 관한 고민을 나누게 하려는 게 목표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민센터를 운영하며 피드백을 주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상시고민센터에 답변하기 어려운 글이 올라오면 어찌지? ▶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 섹슈얼팀은 사람들이 고민을 던지면 그 고민에 팀원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다른 활동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지, 고민을 해결해주는 집단이 아님. ▶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음. 질문을 주방이나 화장실에 써 놓고 팀에서 잘 모르겠거나 까리한 건 '팀에서도 잘 모르겠다' 고 써 놓음.

- 고민센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 고민센터를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 팀에서 팀원들의 생각도 말해주는 곳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을 듯. 섹슈얼팀이 정답을 찾고 대책과 해결책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자. 그러니 센터 이름을 '상시고민유통센터'로 바꾸는 게 어떨까? ▶ 섹슈얼팀 5월 초 회의 때 이야기해보기로.

[주제3] 지부와 일상 관계 속에서의 반성폭력 문화

- 애매한 (성)폭력, 어려운 (성)폭력 포스트잇 토크

■ 친밀한 관계 속, 무감각

고민

- (고민1) 서울지부가 요즘은 어떤 사건이 없었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오래 묵어 있으면서 무뎠지는 건지, 가시화 되고 있지 않은 건지 모르겠음.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감이 허물어진다고 해야 하나?

- (고민2) 친밀한 공간, 익숙한 분위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것에 대해 외부에서는 비판하는 상황.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가,' 고민이듬, 그래서 외부에서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문제적인 건 분명한데, 이걸 우리 안에서 풀기가 참 애매하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문제제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나하는 고민.

논의

- 서울지부가 턱이 있다고 표현하는 지점 중에 하나. 합의 지점과 감수성에 있어서 턱이 있다고 하고.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그런 인물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질려서 나가버리고, 밀어내지고. ▶ 밀어내진다는 게 기존 활동회원들끼리 너무 친하다거나, 그 사람들끼리 죽이 잘 맞아서 새로운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의미도 되지 않나 싶기도. ▶ 서울지부는 지부원들끼리 논쟁도 많이 하고, 사업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 최소한의 인권감수성 그리고 문제제기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거 같다. 문제제기하고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돼', '아무튼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고문 같이 서로를 지지하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버티는 것 같음.

- 오래 본 사람들끼리 문제제기에 어려움은 있다. 예전에는 서로 안 친해지기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그냥 술 먹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고민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낸다면 이야기하기 좋지 않을까?

-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문제제기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은, 1차 TF팀에서 활동과 인터뷰하면서도 나옴. 가까운 사이 일수록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제제기를 하는 맥락(내용) 이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관계의 역사가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 활동하면서 감수성 있게 생활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가해지점에서 문제제기하고 가해지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시켜나가는 게 아니라, 반성폭력 감수성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떼내버리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됨. ▶ (드립) 일상적으로 서로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서로 지적해줌으로서, 서로가 인권적이지 못함을 상기시켜서 무너지지 않겠지?

■ 성적대상화 표현, 표현의 경계.

고민

- A와 B가 싸우면서 의견충돌, 갈등상황이 생김. 그 상황이 있을 후에 A가 화를 내면서 B의 여성적인 특성을 비난과 비판의 근거로 삼았어요. 걔가 그렇게 수다스럽고, 뻑뻑거려서 자기가 더 화가 났다는 식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A가 자기는 싸워서 화가 난 거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현한 것으로 봐야되는 건지, A는 남자고 B는 여자라는 권력이 작동한 것으로 봐야 될지. 이러한 애매한 폭력상황.

논의

- '수다스럽다'는게 정말로 말을 많이 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지.. ▶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수다스럽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뻑뻑거린다는 표현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별개의 표현인거 같다. 여성이기 때문에 쓰

이는.

- “뽕뽕거린다”는 표현이 여성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나? ▶ “뽕뽕거린다”는 게 아무래도 여성을 비하하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고 보는 게, 남성들이 큰 소리로 화내면 그걸 “뽕뽕거린다”고 하지는 않는데, 여성들이 큰 소리로 따지면 “왜 그렇게 뽕뽕거리냐”고 하는 게 있음. 그래서 불편하게 다가온 게 있었음. 나는 불편하게 다가왔는데, 화를 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화내면서 욱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나,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 옆에서 시끄럽게 말하면 “그만 좀 뽕뽕대” 라고 말하곤 함. “뽕뽕거린다”의 어원이 정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식으로 거기에서 시작됐나 잘 모르겠다. ▶ 언어가 탄생할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문제인 거 같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어느 지역에선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지만, 어느 지역에선 여성에게만 쓰는 말일 수도 있고

- 여성적 특성이라고 표현될 만한, 여성들에게 주로 사용되거나 비난되거나 공격할 때 쓰이는 표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계가 너무 애매하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다 싶음. 그래서 사건의 맥락이나 분위기나 그런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살펴봐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거고.. 서로가 생각하는 언어감수성을 이야기하고 합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성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썼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 원래 그 단어가 그렇게 비난적인 말이 아닌데, 나이를 가지고 자신을 배제한다는 느낌이 드는 말들 (ex: 청소년에게 친구라고 표현하는)을 이야기하고, 정리해보는 자리가 될수도 있고.

- 합의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쾌할 수 있음. 차별적인 단어들도 당사자들끼리는 자조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처음 온 사람 입장에서 장에인운동 판에서 서로 병신이라고 농담 하거나, 성소수자들이 호모새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걸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음. 또는 소수자비하, 욕설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 트라우마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싫어하는 표현들이 있음. 이런 것을 서로 알아가는 자리가 필요. 그 자리에서 “이 단어는 차별적 단어다.” 라고 딱 정리하진 못해도, 적어도 이 사람은 이 단어를 불편해한다는 걸 안다면 안 쓰거나, 혹시 쓰게 되더라도 사과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수나로 활동을 중단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고민

- 활동회원 C와 D가 과거 개인적으로 싸움. 이제 C는 더 이상 지부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D가 이전에 있던 상황이 자신에게 성폭력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C가 앞으로 모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나도 모임에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 D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을 지부 내에서 공론화되지는 못함.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옛날이고, 사건의 당사자들 중 한 명이었던 C는 지금 지부에 없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

논의

- 약간 다르지만, 광주지부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도, 사실 그 사람이 활동 안 한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지부활동을 안 해버렸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D에 대한 염려인 건가? 아니면 C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 개인적이라고 표현한 건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파악을 좀더 해봐야 하는 문제라서... 그래서 가끔씩 D가 얘기를 하면,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 여기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끌어올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징계도 힘들고 접근금지도 힘들고... ▶ 만약 그 얘기가 공론화되어 충분히 성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했으면, 우리가 C에게 뭐가 할 수 있나? ▶ 접근금지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소속된 곳에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공동대책위를 제안한다, 이정도? 나갔기 때문에 징계나 조치를 못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죽었거나,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한은. 다만 이게 D에게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 이수나로 소속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대책위 시뮬레이션 할 때 사례 중에 넣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

■ 말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까지? 개인적 취향?

고민

- (고민1) 뉴페공부모임 때 이수나로에서는 형/누나/언니 등등의 나이에 따른 호칭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질문이 있었음. 그런데 진행자 A가 그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런데 전 누나가 좋아요'라고 하고 넘어가고, 지부원들은 A가 그런 이야기를 원래 자주 해서 다들 웃으며 넘어가는 분위기. 근데 내가 이걸 뉴페공부모임이고 이수나로 안에서 합의한 호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걸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 했냐고 이야기하면서 A와 싸우게 됨.

- (고민2) 여친/남친이라는 익숙한 이성애중심적인 표현들에 대한 얘기. 그 표현을 쓰는 게 그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한데, 내가 그거에 대해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유별나고 까칠하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식의 반응들. 나이에 따른 호칭에 대해서도, 이성애중심적인 호칭도 이걸 일상적으로 쓰는 거고, 가족들하고도 쓰는 건데 이런 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냐하는 그 "까지"가 참 싫음. 되게 독특한 사람 같고.

- (고민3) 자주 왜 선배/형 이런 거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활동판 안에서도 있고, 실제로 청소년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걸 굉장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끄집어내는 순간 굳이 이걸 또 왜 이렇게 돌아올 반응이 너무 뻘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난 너무 답답하고.

논의

- 우리나라 언어가 2인칭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그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고.. 하지만 그대, 당신 이런 단어들 쓸 수는 있겠지만 어색하고..

- 뉴페공부모임 같은 자리에서 누나라고 말한 거. 그건 확실히 부적절한 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했던 건, 우리가 이 호칭을 왜 안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던 거지, 자기 취향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자기 취향은 존중하는데 왜 하필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 저는 그 취향자체에 대한 저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의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이주의적인 호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는 그게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그 호칭이 익숙하다," 이렇게 말하는게 문제. 가정, 직장 등 사회생활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어려움 상황에서 쓰는 경우와, 내 취향이기에 때문에 나는 쓰겠다고 말하면서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함.

- "누나가 좋아요" 라고 공부모임이나 일상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문제. 그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음.

- "누나가 좋아요"라는 케이스는 아예 반 나이주의라는 이수나로의 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라고 생각.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긴다는 사고 자체가, ▶ 근데 그게 차이를 말하나요? ▶ 취향이라 해도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누나인지 동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 페티쉬잖아 이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가.. ▶ 굳이 나이를 물어보고서 거기에 따라 취향이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 여친/남친 호칭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가 이성애중심주의적인 단어라기 보다는, 언어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성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 게이인 사람의 성 지향성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생물학적인 남자인 사람에게 '혹시 여친 있어요?' 하면... ▶ 근데 왜 애인의 유무를 그렇게 물어봐요! ▶ 본인이 께시고 싶은 것일 수 있지. 근데 다자연애는 지양하고 싶을 수 있지. ▶ 그럼 "혹시 다자연애 하세요?" 라고 질문을 바꾼다거나? 그럼 대답이 오겠지.

- 여친/남친이 이성애중심적인 단어인 것 같긴 한데, 페이스북에서 MTF인 분이 생물학적 남성인 애인에게, 남친남친 하는 걸 봐서, 이게 이성애만의 단어인가? 트랜스젠더들에게도 그동안 바라왔던 언어들이었나? 이런 생각. ▶ 트랜스젠더는 오히려 또 자신이 추구하는 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 이것도 보통 여친남친과 쓰이는 맥락이 다른 거죠. 오히려 더 저항적이고 도발적으로 던지는 표현과,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표현이랑은 다르죠.

- 여성적 특성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은 동물 보면 귀엽다고 하는 것처럼, 키가 작은 여성에게 귀엽다고 하는 맥락이 성차별적이라 생각.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도 작은 동물 보면 귀여워하는. 귀엽다는게 차별적인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나도 그러고 있고..

- '멋있다'는 단어가 남성에게만 쓰는 단어인가 생각이 되고, '예쁘다'라는 단어가 여성의 특성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귀엽다'란 표현 자체는 요즘은 작은 동물이나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떼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웹툰에서 흔히들 조폭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귀여운 행동을 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형성한다던가? ▶ 이러한 '귀엽다' 표현도 아까 나온 여성적 특징을 얘기하는 공부모임이나 워크샵에서 언어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함께 이야기.

- 기본적으로 '귀엽다'와 '섹시하다'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외모를 평가하는 말들을 쓸 때,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말들인 것 같다. ▶ 예쁘다/멋지다라는 말도 특정 성별에게 쓰이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건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 문제제기

고민

- (고민1) 이성애중심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움. 문제제기 자체에 대한 고민. 문제제기는 잘 되는게 중요하지, 근데 문제제기를 잘 하면 문제제기를 받은 사람이 잘 불편해해, 그러고 나면 그 사람도 얘기를 안 하고 나도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아.

- (고민2) 쉬면서 “캠페인을 예쁜 여학생이 많은 학교에 가서 해야 된다.” 발언을 하는데, 발언한 분이 뉴페였고. 나도 피곤하기도 하고, 활동을 한지 오래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말이 후 들어와서 당황스럽고, 졸리고, 그래서 그냥 잤는데. 돌이켜 보면 사실 그 얘기가, 당황스러워서 별 말을 못한 것. 나중에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됐었나?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야 했었나? 고민.

- (고민3) 다른 사람들 다 웃을 때 문제제기하기 가장 어려워. 나만 또라이 같고.

논의

- 그때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는? 피곤해서? 그 사람이 뉴페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 원인이 많이 있었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것도 생각이 되고. 예측불가능하게 후 들어온 거고.

- 문제제기가 나와서... 지부에서 A라는 활동회원이 폐북에서 문제제적인 발언을 해서, 다른 활동회원 B가 친분이 있는 A와 같은 지부의 활동회원 C에게 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함. 근데 거기에 대해서 C가 “왜 친분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나”, “문제제기한 B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식의 문제제기가 문제인건지. ▶ 잘못된 문제제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문제제기를 할 때 있어서, 그 문제를 내부계시판이나 회의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앞서 그 지부에게 어떤 상황인 건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지부차원에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부 개인에게 제안하거나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내부계시판이나 그런 데 상정하는 거지, 개인적인 문제제기 자체를 정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할 순 없는 거라 생각. 문제상황을 제3자에게 비난하고 짜증을 낸다거나 한다면 그건 별건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걸 문제삼는다면 문제제기를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 화를 내고 있지만, 실은 그 문제제기 자체가 마음에 안들어 한다는 느낌.

- 개인적으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최고의 해결방법은 아니겠지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고 생각. 사건의 공론화의 시작은 보통 개인적인 하소연에서 시작되는데. 개인적인 하소연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 거꾸로,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공식적으로 올리면, 왜 지부에 얘기도 안하고 공식적으로 먼저 올려버리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되는 것도 필요할 듯. 문제제기 가이드?

- 특히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게 뉴페. 뭔가 돌려 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듯이 말하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되고. 처음에 회의 왔을 때 논쟁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하기가 어렵고. ▶ 서울지부는 뉴페의날 PPT에 문제제기가 너 개인을 과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라는걸 포함시킴. 문제제기와 논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고 안내되는 게 필요.

- 타이밍 관련해서. 예를 들어 눈 앞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나는 이 순간이 지나기 전에 이야기를 안 하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 말이 그렇게 금방 나와주지 않음. 근데 나중에 말하기에는 그 사람이 그걸 말했다는 걸 까먹을 만큼 확확 지나갈 수 있잖아요. ▶ 반디팀 고민센터를 이용? 상담기록이 내부계에서 회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그걸 꼼꼼히 읽을지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문제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건 본인에게도 좋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도 그걸 읽고서 거기에 대해 공감하거나 조심하게 될 수 있는 거고 혼자 고민하고 끄끙 숨기기보단 고민센터에라도 얘기하는 게.

- 문제제기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거 같다. ▶ 문제제기는 성격하고도 확실히 연결이 되긴 해. 성격 더럽고, 또 하던 버릇이 있어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아수나로 활동하면서 성격이 더러워지는 것 같기는 해. ▶ 성격이 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는건 아님. 자기 방식대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문제제기 한 줄 모르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신을 잃게 됨. ▶ 물론 문제제기의 방식들이 다를 순 있겠지만, 뭔가 큰 것들 있잖아. 다른 단체에 문제제기나, 문제제기에 앞장서는 것들은 모두가 두려운데 하던 사람들만 하게 하고.

- 문제제기를 잘하는 방법이 없나? ▶ 신호등 종이 같은걸 들고 다니면서 문제제기를... 하나면 빨간종이를 경고장처럼 들자. ▶ 문제제기 공부모임?워크샵?을 하자. 하나는 각자가 하는 문제제기 스타일을 공유하는 거. '나는 평소에 화가 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걸 미리 공유하는 것. 그리고 문제제기를 잘 받는 법이나, 문제제기를 잘 할 수 있을 때, 혹은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때 어떻게 어려웠는지,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라, 이렇게 하면 쇼크 요법이긴 한데 사람들이 따르기는 하더라 같은것들 노하우들을 나누는.

- 각자의 문제제기 방식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는다는 게, 아수나로 내의 구성원들끼리 문제제기를 캐치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제기가 아수나로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문제제기할 때마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버리면. ▶ 합의점을 찾자는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스타일로 문제제기하는지를.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문제제기더라는 걸 알고 있는 건 내부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외부적으로 문제제기가 필요할 때는, 노하우 공유를 통해.

- 굳이 말 하지 않아도 서로의 문제제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캐치해낼수 있는 감수성? ▶ 무리라고 생각. 절대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자신의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견뎌내야 함.

■ 편안한 관계 - 일상적 욕, 폭력성

고민

- 지부에 사람이 적고, 서로 알거 다 알고 막 떠드는 사이. 그러다 보니 아수나로 내규 같은 데 거슬릴 수 있는 말이나 표현 같은데, 우리 둘이서는 '그냥 넘어가자'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음. 그 사람이랑 아무런 소리나 하고 욕도 편하게 하는데, 뉴페분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논의

- 버릇되면 교육 가셔도 욕함. 막말이 툭툭 나옴. 나도 모르게 '어머 씨발!'
- 공과 사의 구분, 정도의 느낌? ▶ 혼자 있을 때나, 사적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삶을 사는 게 좋고, 중요하고, 옳은 일. 근데 어려워... 그냥 싸울 때도 욕하고 하다보면은, 문명하다보면 죽이고 있고..
- 욕은 활동하기 전부터 써서, 안 쓰려고는 하는데 잘 안되긴 해요.
- 원래 욕 안하기로 유명했는데, 활동 하고나서 어느 순간 내 입에 '씨발'이 들러붙어 있고... 활동하면 욕을 자주 듣게 되고, 그러다보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나도 욕하게 되고. ▶ 나는 활동하기 전에는 쌍욕도 하고 엄청 거칠게 살다가, 활동하면서 '그대가~' 이려고. 그러다 경찰하고 싸우게 되면서 다시 욕을 쓰게 되긴 했는데..
- 욕이나 비하발언 같은 걸 하는게 그 자체로도 문제기는 문제지만, 비하발언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불쾌할 수 있구나 라는 자각하고 있냐 하는 지점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 비하발언이 나왔느냐, 아니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하는 차이도.
- 그 욕 하나하나의 의미라기보다는, 욕이 다수 섞인 대화라는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축시키잖아요.
- 근데 너무 활동가들이 건전한 언어를 쓴다는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많음. 보통 보다는 '씨발'을 덜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 인권운동하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쓰는 것도 있고.
- 쓰자니 분위기나 문화 자체가 폭력적이고, 남성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걸 안 쓰자니 너무 엄숙한 분위기가 될까봐 불편할 것 같고. 편하다고 쓰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 연애

고민

- 이수나로 회원인 A랑 B가 사귀다가 헤어짐. A가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많이 해서, B가 계속 A를 욕하고 다녔음. 이런 상황에서 한창 감정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욕을 하고 다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계속 욕을 하고 다니고 있음.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

논의

-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 헤어진 후 같은 단체에 있으면 그때부터 골 터지는 거지..
- 헤어질 때의 예의가 중요해..
- 운동권 내에서 연애했다가 헤어지면 CC보다 더 심각한거 같다. 개랑 개랑 사귀다가 헤어져서 사이가 안 좋아?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재생산되고.
- 욕하는 걸 상대방이 듣게 되면 상대방이 문제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제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 감정적인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 하지만 욕하는 내용이 심각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개가 걸레다” 이런 수준의 공격은 급이 다른 문제. 분노에 찬 죽여버리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기준이 너무 이상해..
- 어쨌든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제기는 온당한 거지. 그러니 노하우를 갖고서 욕을 해야... ▶ 간사하다.

■ 연예인, 성적소비 , 성상품화, 이성애중심주의?

고민

- 평소 연예인 외모에 대해서 섹시하다 찬양한다거나, 이성애자 남성이 여성연예인을 찬양하는거랑, 이성애자 여성이 남성을 찬양하는거랑, 동성애자가 같은 성의 연예인을 찬양하는거랑 다른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논의

- 공통적으로 연예인들이 자신의 성을 어필하는 것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짐. 그런데 그것을 소비할 때, 여성이 남성연예인을 소비하는 방식과, 남성이 여성연예인을 소비하는 방식과, 동성애자가 동성 연예인을 소비하는 방식이 정말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느낌적 느낌으로 다른 것인가? ▶ 똑같은 여성가수를 레즈비언이 좋아하는 것과, 이성애자 남성이 좋아하는 게. 사실 둘다 덕후 같아서 비슷해보이던데. ▶ 덕후라서 싫거나 불편한게 아니라. 그 ‘하악하악’ 안에, 여성에 대한 섹스어필? 상품화? 대상화?에 대한 차이가 느껴져서, 더럽다고 느끼는거 같음. 근데 이게 뭔가 오히려 편견 같기도 하고
- 이성애자 남성으로 보이는 이가 여성연예인을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이 왜 불편할까? 생각해봤을 때. 그런 환호가 외모지상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활동가들/사람들이, 남성인 사람이 여성인 연예인을 하악하악거릴 때 더 불편한 이유는, 사회적인 성별권력 문제도 있는 듯. 여성의 소비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그 연장선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더 불편하거나 권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지배적으로 보이고.
- 성적대상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나 맥락이 다르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 소비하는 것과, 여성이 남성에 대해 소비하는 것과, 동성이 동성에 대해 소비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자체는 되게 다르잖아요 ▶ 근데 그게 까리(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지.
- 연예인의 성 상품화가 특히 여성에게서 더 잘 이루어진다. 남성의 누드보단 여성의 누드가 더 잘 팔리고.
- 성의 상품화가 정말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성의 상품화의 기준을, 그 상품화 되는 성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보통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미적 기준을 상품화로 만들어진 기준들을 다른 여성들에게도 적용. ▶ 그 성별 기준에 맞춰서 연예인이 나오지. 선후관계가 다름.

- 남자연예인을 소비하는 것보다, 여자연예인을 소비하는 게 좀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성연예인들에게 강요되는 것들이 있잖아.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강요되기 때문에. 가짓수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되게 많잖아. 눈은 어때야 하고, 코는 어때야 하고.

- 노래방도우미 알바도 성을 상품화하는 일 중 하나인 거고,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생물학적인 남성이고, 일하는 노동자는 여성이고. 성에 대한 상품화 자체가 이성애자 기준에서 짜여진 거 같다는 생각. 호스트바를 생각하면 키크고 잘생긴 남성들이 있고 여성들이 가는 곳이고. 성의 상품화? 부비부비 같은 문화들이 거의 이성애중심적인 것 같다. ▶ 이성애 중심적인 문제인가? ▶ 성상품화의 문제라 생각. 남성들이 소비하는 룸싸롱 문화가 호스트바에서 성별만 바뀌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호스트바에 다니는 여성들이 보통, 직업여성이라고 불리는. 룸싸롱에서 아저씨들한테 시달리다가 영업 끝나고 호스트바에 가서 똑같이 갓는.

- 여성연예인을 여성인 사람이 좋아하게 될 때, 동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재네 동경하나보다,' 이런데, 남성들이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나보다 하며. 좀더 성애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군인들이 걸그룹에 환호하는 걸 보면서, "발정났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그런 맥락들이 드러난다. ▶ 남성이 여성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덕후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발정났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여성연예인을 좋아하는 경우는, 성애적인 관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듯. 이성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성이 여성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성애적 관점이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 그런 관점 자체가 이성애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성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이성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 반성폭력공부모임때 이런 주제들로 공부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다.